

# 그리스도인의 관계

The Relationships



Preaching of the Cross Series

# 그리스도인의 관계

## The Relationships

James W. Knox 원저

이우진 편역



도서출판  
진리의 성경

# The Relationships

James W. Knox

Korean Translated and Published by Permission

©2014 by The Scripture of Truth Publications

All rights reserved.

Printed in Seoul, Korea

## 그리스도인의 관계

원 저 자 | James W. Knox

편 역 자 | 이우진

펴 낸 이 | 이우진

디자인·편집 | 김화영

펴 낸 곳 | 도서출판 진리의성경

초판발행 | 2014. 11. 12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45-4 지하

전 화 | 010-2322-1611

홈페이지 | <http://cafe.naver.com/bbckjb>

(이 책의 PDF 파일은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 ISBN 97911-86022-01-6

■ 정가 6,000원

■ 파본은 바꾸어 드립니다.

번역자 서문

1. 평화롭게 지내는 방법 .....	11
2. 바른 관계를 위한 법칙 .....	31
3.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문제에 관해 .....	51
4. 좋은 관계를 위한 말씀 .....	71
5. 성경적 우정 .....	89
6.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	106
7. 원수에 대한 태도 .....	126
8. 서로의 짐을 짐 .....	145
9. 상처받았습니까? .....	162
10. 화해 .....	178
부록1: 가장 중요한 질문 .....	197
부록2: 성경이 말씀하시는 구원 .....	211



But I will shew thee that  
which is noted in the scripture of truth...  
(Daniel 10:21a)

그러나 내가 진리의 성경 기록에  
적힌 것을 네게 보여 주리니  
(다니엘서 10:21a)

이 책에 사용된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안에”에서  
출간한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전서”입니다.  
The Scripture quotations found herein are from  
the text of the Korean King James Bible  
published by In Christ Jesus Publications.

## 번역자 서문

자식들이 서로 화목하게 지내는 것처럼 부모의 마음을 흐뭇하게 하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자녀들이 원하는 학교에 가고 직장을 잡는다 해도 서로 다투고 싸운다면 부모의 마음에는 슬픔이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전도와 성경공부와 기도를 열심히 한다 해도 서로를 향해 미움이 가득한 마음을 갖고 다투며 싸운다면 하나님께서는 전혀 기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분의 자녀들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다른 그리스도인도 사랑합니다. 다른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가 아무리 대단한 일을 하고 엄청난 업적을 이룬다 해도 그것으로는 하나님을 전혀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과 같이 배교한 시대에 바른 성경과 바른 교리를 믿는다는 것은 정말 소중한 것입니다. 저는 킹제임스성경을 믿는 진영에서 20년 이상 신앙 생활을 했습니다. 제가 늘 안타깝게 생각하는 점은, 이 진영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교리를 아는 만큼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른 교리로 머리를 채운 만큼 하나님의 사랑으로 마음을 채운다면 우리는 더 풍성한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죄값을 모두 치러주셨다는 사실을 진실하게 믿으면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비록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일지라도 예수님을 개인의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다시 태어났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세

상에서 다른 형제 자매들과 바른 관계를 맺어야 하는 이유는 그들과 영원히 함께 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함께 살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는 다투고 싸우면서 바른 관계에 있지 않았다면 사랑하는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이 책을 통해 독자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알아가게 되고, 닦아가게 되고, 그분을 더욱 사랑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만큼 그분께서 사랑하시는 다른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관계이며 이것은 하나님을 매우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이 책은 미국 플로리다 주의 덜랜드 시에 있는 성경침례교회와 부속 신학원에서 목회와 가르치는 사역을 하고 있는 제임스 닉스 목사가 그리스도인의 관계에 관해 10번에 걸쳐 설교한 것을 역어서 한국의 독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편집하여 번역한 것입니다. 원저자가 본래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손상시키지 않고자 최대한 노력했습니다. 어색하거나 잘못된 부분은 모두 편역자의 실력이 부족한 탓이니 넓은 마음으로 이해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 책을 통해 독자들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인의 관계가 무엇인지 더욱 정확히 알게 되었으면 합니다.

“누가 누구와 다툼 일이 있거든 서로 참고 서로 용서하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며”(골 3:13)

“믿음이 약한 자를 너희가 받아들이되 의심에 찬 논쟁은 하지 말라.”(롬 14:1)

“그러즉 우리 강한 자들은 마땅히 약한 자들의 연약함을 담당하고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하지 말아야 하리라.”(롬 15:1)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말다툼하는 자가 되지 말며 오직 부드러우며 모든 사람에게 온전히 온유함을 보이게 하라.”(딤후 3:2)

“그러나 만일 너희가 서로 물고 삼킬진대 너희가 서로에게 소멸되지 않도록 조심하라.”(갈 5:15)

“형제들아, 만일 어떤 사람이 잘못에 빠지거든 영적인 너희는 온유의 영으로 그러한 자를 회복시키고 네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에 들지 않게 하라. 너희는 서로 남의 짐들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갈 6:1-2)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되 특히 믿음의 집안에 속한 자들에게 할지니라.”(갈 6:10)

저자와 역자와 독자의 관계에서 중심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2014년 11월

이우진 목사

## 1. 평화롭게 지내는 방법

우리는 오늘 다른 사람들, 특히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평화롭게 지내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화평이 너희 마음속에서 다스리게 하라. 너희도 그 화평에 이르도록 한 몸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으니 감사하는 자가 되라.”(골 3:15)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로마서 14장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을 이루는 일들과 서로를 세워 주는 데 필요한 일들을 따를지니라.”(롬 14:19)

성경은 우리가 구원받아서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 한 몸 안으로 들어왔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 한 몸 안에서 서로 평화롭게 지내도록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질병이나 감염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몸의 한 부분이 감염되었거나 다른 부분과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면 몸이 온전하지 못한 것이 분명합니다. 작은 바이러스 하나가 몸에 침

투하여 온 몸 전체를 움직이지 못하도록 완전히 병들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작은 상처로 인해 몸 전체가 고통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손끝에 작은 부분이 감염되었는데 몸 전체가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병원 침대에 누워있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한 몸 안에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그리스도의 몸 전체를 병들게 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과 잘못된 관계에 빠짐으로써 그리스도의 몸 전체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 교회 내에서 반목하는 지체들로 인해 그리스도의 몸 전체에 얼마나 많은 손해가 생기는지 모릅니다.

성경은 화평을 이루는 일들과 서로를 세워 주는 데 필요한 일들을 따르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우리가 화평을 따르지 않으면 화평은 멀리 달아나 버릴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화평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화평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해 값없이 얻게 되지만 형제 자매들간의 화평은 공짜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화평을 이루는 데 필요한 일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따르지 않으면 결코 화평이 주어지지 않으며,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그에 따른 책망을 받을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화평을 추구하고 그것을 따라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화평을 따르지 않으면 화평은 멀리 도망가 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화평은 날개를 가지고 있어서 멀리 날아가 버릴 것입니다.

저는 예전에는 목회란, 설교를 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목회의 90%는 성도들 간에 화합을 이루도록 하는 것입니다. 서로 의견과 생각이 다르고, 서로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지체들을 하나로 묶어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화평하게 지내게 하고 사랑하게 만드는 것이 목회라고 생각합니다.

당신은 성도들을 향한 마귀의 사역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90% 이상은 성도들이 서로 미워하고 다투고 질투하고 분열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한 형제가 다른 형제를 미워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형제가 다른 형제에게 상처를 주게 하는 것입니다. 형제가 다른 형제에 대해 험담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은 모두 마귀에게서 나온 마귀의 일입니다. 당신이 누구이건 간에, 무엇을 믿고 무엇을 하건 간에, 당신이 이러한 일을 하고 있다면 당신은 마귀의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화평을 추구하고 따라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화평을 추구하지 않으면 우리는 서로 싸우고 미워하고 분열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의식적으로 화평을 따라가지 않으면 화평은 멀리 달아나 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당신은 모든 힘을 다해 화평을 추구해야 합니다. “나는 다른 형제 자매와 싸우기 싫다. 다른 형제 자매와 다투기를 원하지 않는다. 다른 형제 자매의 험담을 하기 원하지 않는다. 나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다른 형제 자매와 평화롭게 지낼 것이다.” 라고 해야 합니다.

성경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평화롭게 지내는 일입니다. 우리는 형제 자매가 뭐라고 하건 간에, 다른 형제 자매들이 무엇을 하건 상관없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화평을 추구해야 합니다. 만일 당신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다면 다른 사람이 무엇을 하건, 무슨 말을 하건 상관없이 당신은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화평을 추구할 것입니다.

당신은 아마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을 것입니다. “지난주에 그 교회

가 둘로 분열됐다.” 십중팔구 그 교회는 지난주에 둘로 분열된 게 아니라 2~3년 전에 둘로 분열되었을 것입니다. 이미 오래 전에 분열의 틈이 생겼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화평을 추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틈이 커지고 벌어져서 결국 밖으로 드러나게 되었을 것입니다. 처음에 한 두 사람이 서로 반목하며 분열을 일으켰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 사람들이 개입하게 되고 두 편으로 나뉘게 되었을 것입니다.

교회의 분열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타나지만 그 원인을 찾아보면 결국 한 형제가 다른 형제에 대해 화가 난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한 자매가 다른 자매에 대해 화가 난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한 명의 그리스도인이 다른 그리스도인에 대해 화가 난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이렇게 두 사람 간에 시작된 분열은 화평을 추구하지 않으면 계속 성장해서 결국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을 정도로 커져버리게 됩니다.

## 1.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지내야겠다는 확고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화평을 추구해야 한다고, 화평을 따라가야 한다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평화롭게 지내기 위해 해야 하는 일곱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로마서 12장을 보겠습니다. “가능하다면 너희가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지내라.”(롬 12:18)

성경은 가능하면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지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지내야겠다는 확고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화평을 추구하기 위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모든 힘을 다해서 다른 사람과 화평하게 지내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화평하게 지내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라는 것입니다. 비록 내 마음에 들지는 않

아도 그를 위해 온 힘을 다해 그가 원하는 것을 해 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구원받은 사람들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과 화평하게 지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쉬운 일은 싸우는 일입니다. 다른 사람과 다투고 논쟁하고 분열하는 것은 쉽습니다. 이것은 너무 쉽습니다. 그저 자기 마음 내키는 대로 하면 됩니다. 가장 어려운 일은 나와 생각이 다르고 의견이 다른 사람들과 평화롭게 지내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성장해야 자신과 생각이 다른 사람과 평화롭게 지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투고 싸우는 대부분의 원인은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한 데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해 주고 그의 부족함을 참아 주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기는 쉽고, 뒤에서 그에 대해 험담하기는 더 쉽지만, 그를 위해 기도하기는 어렵고 그를 참아주기는 더 어렵습니다. 우리는 모두 잘못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서로 잘못을 고백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약 5:16). 성경은 너희의 죄를 서로 고백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잘못을 서로 고백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의 잘못을 고백하고 서로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찾는 것은 쉽습니다.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을 배척하고 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고 뒤에서 험담하는 것은 쉽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과 평화롭게 지내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힘을 다해 다른 사람과 평화롭게 지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교회에 정착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에 갔다가 그 교회의 잘못을 발견하고 교회를 옮깁니다. 새로 옮긴 교회에서도 또 다시 잘못을 발견하고 다른 교회로 옮깁니다. 마음을 바꾸지 않는 한 이러한 일은 끊임없이 반복됩니다. 옮지 않은 것은 무엇인지, 사람들은 어떤 잘못을 하는지 항상 찾아보기 때문에 어느 교회에도 정착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제외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런 분들에게 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잘못된 것은 교회가 아니라 자신이라고 생각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단 한번 만이라도 ‘다른 사람들이 잘못된 게 아니라 내가 잘못된 것은 아닌가’ 라고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제 코에 된장(치즈)이 묻으면 어느 누구도 된장 냄새를 풍기지 않아도 저는 항상 된장 냄새를 맡게 됩니다. 어쩌면 교회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지역교회에는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문제를 안고 가면서 어떻게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평화롭게 지내야 하는가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것은 성령님의 도움 없이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육신과 마귀의 도움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 일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육신적인 사람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신 하나님의 백성들과 화평 가운데 거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그 일은 육신이 아닌 성령 안에서 걸을 때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평화롭게 지내야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 능력을 구하고 의지해야 하며 자신을 내어 드려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을 보겠습니다.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들 보기를 원하는 자는 자기 혀를 지켜 악에서 떠나게 하고 자기 입술을 지켜 교활한 것을 말하지 말게 하며 악을 피하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구하고 그것을 따르라.**”(벧전 3:10-11)

당신은 생명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화평을 구하십시오. 인생을 즐기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사람들과 평화롭게 지내십시오. 항상 불평만 한다면 결코 누구와도 평화롭게 지낼 수 없습니다. 항상 다른 사람들에 대

해 불평하는 사람은 결국 누구와도 평화롭게 지낼 수 없습니다. 화평을 구하지 않는 것은 생명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인생을 즐기는 게 아닙니다. 제가 얼마나 인생을 즐겁게 사는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만 달린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 특히 다른 믿는 사람들과의 관계에도 달려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간에 평화롭게 지낼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을 사랑하는 것이고 제대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가능하면 모든 사람과 평화롭게 지내십시오. 어떻게 하면 사람들과 평화롭게 지낼 수 있는지를 생각하십시오. 사람들이 하나님과 평화롭게 지내도록 도와주고 그와 동시에 당신은 그 사람들과 평화롭게 지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슬프게 하지 말고 당신이 그에게 복이 될 수 있도록 하십시오.

## 2. 교제의 기준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을 보겠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다른 식으로 가르치고 온전한 말씀들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들과 하나님의 성품에 따른 교리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오히려 논쟁과 말다툼을 좋아하는 자니라. 이로써 시기와 다툼과 욕설과 악한 추측이 생기며 또 마음이 부패하고 진리가 없어 이득이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비뚤어진 언쟁이 생기나니 너는 그러한 자들로부터 떠나라.”(딤후 6:3-5)

만일 누군가, 그가 구원받았든 그렇지 않든 상관없이 성경을 믿지 않는다면, 그런 사람과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교제를 나눌 수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믿지 않으면 그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며 그와는 그리스도인의 교제를 나눌 수 없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한 대속을 믿지 않는 사람은 오류에 빠진 사람이며 이단입니다. 그런 사람과는 그리

스도인으로서의 교제를 나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마귀의 크기에 대해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그와 교제를 나누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성경은 마귀의 크기가 파리만하다는 사실에 동의하지 않으면 그 사람을 떠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UFO가 마귀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은 그러한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UFO가 존재하든, 존재하지 않든, 그것이 마귀적인 것이든 그렇지 않든 그것이 무슨 상관입니까? 그것이 어떤 결과를 바꿀 수 있나요? 그리스도의 재림이나 휴거나 천년왕국에 관한 교리를 바꿀 수 있나요? 은혜를 통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진리를 바꿀 수 있나요? UFO에 대한 관점이 다르면 교제를 나누지 말라는 말이 성경에 있나요?

저는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한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이 아직 생각해보지도 않은 문제에 대해 확고한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지 알고 있습니다. 무엇이 기독교의 본질적이고 핵심적이며 기초를 이루고 있는 것인지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어떤 자동차를 타야 하는지, 어떤 옷을 입어야 하는지에 대해 열띤 토론을 합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씀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이러한 것들은 기독교의 본질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으로 교회를 분열시켜서는 안 됩니다.

당신은 무엇이 중요한 문제이고,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 문제인지 알아야 합니다. 무엇이 본질적인 문제이고 무엇이 부차적인 문제인지 알아야 합니다. 무엇이 분리를 해야 하는 문제인지 그렇지 않은지 알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휴거 되어 공중으로 끌려올라 갈 때 속도가 얼마나 되는지를 놓고 논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무슨 상관입니까? 우리는 눈 깜짝하는 순간에 변화되어 주님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공중으로 오실 때 끌려올라 가게 될 것인지 아니면 남겨지게 될 것인지'입니다. '구원받았는지 그렇지 않은지'입니다. 이것이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성경대로 믿는 교회를 찾는다면서 아주 작은 문제로 인해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본질적이지 않은 문제로 교회를 떠나고, 교제를 끊는다면, 그것은 분명 잘못입니다. 우리는 모두 의견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른 성경을 믿고 스스로를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는 자신의 의견을 진리라고 생각하는 데 있습니다. 저는 당신이 어떤 문제에 대해 확신을 가지고 있거나 의견이나 특별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을 문제 삼을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 본질적인 것이고 무엇이 부차적인 것인지는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차적인 것으로 인해 형제간에 분열을 일으키고 평화롭게 지내지 못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모든 문제에서 완전히 같은 생각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모든 성령 안에서 걷는다면 서로 간에 완전히 동의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때로 육신 안에서 걸을 때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항상 같은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육신 안에 있을 때 다른 사람은 성령 안에 있고, 다른 사람이 육신 안에 있을 때 내가 성령 안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 3. 다른 형제 자매에 대해 인내해야 합니다

형제들간에 평화를 이루기 위해 필요한 세 번째 것은 바로 인내입니다. 아이들을 양육하는 분들은 부모에게 가장 필요한 게 바로 인내라는 사실에 동의하실 것입니다. 아이들에 대해 참고 기다려주는 마음을 갖지 않으면 부모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습니다. 가정이 평화롭기 위해서는 서로가 서로에 대해 인내해야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평화롭기 위해서는 서로가 서로에 대해 참아주고 인내해야 합니다.

부모가 아이들을 참아주고 인내로 대하듯이 교회에서도 그래야 합니다.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들은 영적으로 어린 사람들을 참아 주어야 합니다. 세상에서의 나이는 삼십이나 사십이나 오십일지 몰라도 영적인 나이는 아직 갓난아이에 불과할 수도 있습니다. 영적으로 어린 사람들을 대할 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인내심입니다. 아기를 키우다 보면 한밤중에 일어날 수도 있고 기저귀를 갈아줘야 할 때도 있습니다. 같은 말을 끊임없이 반복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내심이 없다면 결코 이러한 것들을 할 수 없으며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잠언 25장을 보겠습니다. “급히 나아가서 다투지 말라. 그것의 마지막에 곧 네 이웃이 너를 모욕할 때에 네가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할까 염려하노라.” (잠 25:8)

무엇인가를 즉시 해야 할 때가 있고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야 할 때 참지 못하고 즉시 해 버리면 모든 화평이 깨어져 버릴 수도 있습니다. 잠언 16장도 보겠습니다. “분노하기를 더디 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영을 다스리는 자는 도시를 취하는 자보다 나으니라.”(잠 16:32)

무엇인가를 즉시 바꿔보겠다고 했다가 문제를 완전히 망쳐버리는 경우

가 허다합니다. 누군가 문제를 일으켰거나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즉시 그 문제를 바로 잡으려고 하지 말고 먼저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훨씬 더 쉽게 문제를 바로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기도하고 성령님께 자신을 내어드리십시오. 그러면 성령님께서는 우리보다 훨씬 더 쉽고 정확하고 적절하게 문제를 풀어주실 것입니다. 교회와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 너무나도 많은 순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인내심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종종 일어나는 일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떤 구원받은 사람이 잘못된 일을 하였는데 하나님께서는 아직 그에게 그것을 보여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몇 년 동안 그 일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설교를 듣는 중에, 혹은 성경을 읽는 중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그의 마음속에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현듯 “나는 지금까지 잘못된 일을 하면서 살았구나. 이제는 바르게 행해야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바로 잡힙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주일에 당신이 그 사람에게 가서 그가 이미 회개하고 돌이킨 부분에 대해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망쳐버립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마냥 눈감아주라는 게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시간을 주신 만큼은 다른 사람에게도 시간을 주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죄를 지적하기에 앞서 먼저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그 사람의 마음속에서 역사해 달라고 간구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참아주셨던 것만큼 다른 형제를 참아주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기회를 주셨던 것만큼 다른 자매에게도 기회를 줘 보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은혜를 베푸셨던 것만큼 다른 형제 자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보세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문제에 있어서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너희가 판단을 받지 아니하도록 판단하지 말라. 너희가 무슨 판단으로 판단하든 그것대로 판단을 받고 너희가 무슨 척도로 재든 그것대로 너희가 다시 평가를 받으리라. 너는 어찌하여 네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깊이 생각하지 못하느냐? 혹은, 보라, 네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네가 어찌 네 형제에게 이르기를, 내가 네 눈에서 티를 빼내게 하라, 하려느냐? 너 위선자여, 먼저 네 눈에서 들보를 빼내어라. 그 뒤에야 네가 분명하게 보고 네 형제의 눈에서 티를 빼내리라.”(마 7:1-5)

저는 하나님께서 인내심을 가지고 저를 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오래 참아주셨으면 합니다. 당신은 그렇지 않으신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해 주시기 원하는 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대해 주어야 합니다.

#### 4. 부드럽게 말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평화롭게 지내기 위해서는 부드럽게 말해야 합니다. 잠언 15장과 12장을 보겠습니다. 먼저 잠언 15장을 보겠습니다. “부드러운 대답은 진노를 돌이키거니와 가혹한 말들은 분노를 일으키느니라.”(잠 15:1)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부드럽게 말해야 합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부드럽게 말해야 합니다. “아저씨, 지옥으로 가고 있는 중인 거 같은데 잠깐 이 전도지 좀 읽어보세요. 어차피 지옥으로 갈 거 뭘 그렇게 서둘러 가세요. 불 속으로 던져지기 전에 이 전도지를 읽어보시는 게 좋을 것입니다.” 물론 아예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보다는 이런 식으로라도 복음을 전하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왕 복음을 전하는 거 좀 더 친절하고 부드럽게 말하면 어떨까요? “아저씨, 바쁘신 거 알지만 잠시 이 전도지를 좀 읽어보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를 담고 있는 전도지

입니다.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식으로 얘기를 했을 때 화를 낼까요? 아마 앞의 방식으로 얘기했을 때 화를 낼 것입니다. 누구나 저런 식의 얘기를 들으면 화를 냅니다.

잠깐 다른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당신이 집에서 남편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이 당신에게 화를 내며 거칠게 말할 때 당신은 어떤 식으로 말해야 할까요? 남편보다 더 거칠게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평소보다 더 부드럽게 말해야 할까요? 남편이 화가 났을 때 남편보다 더 화를 내며 거칠게 말하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평소보다 더 부드럽고 은혜롭게 말해보세요. 그러면 남편은 화를 풀 것이며 당신에게 사과할 것입니다. 남편이 부당한 일로 당신에게 화를 낸다면 그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지 않은 것입니다. 하지만 남편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지 않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당신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당신의 말을 통해 남편에게 전해 주세요. 그러면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아내와 남편의 경우를 바꿔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칠게 말하는 것은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합니다. 인간 관계를 망칠 뿐입니다. 부드럽게 말하십시오. 은혜롭게 말하십시오. 거칠게 말하는 것은 반감만 살 뿐이며 상대방의 마음에 상처와 쓴 뿌리만을 줄 뿐입니다. 거친 말은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하고 결국 분열만 가져올 뿐입니다. 교통 법규를 어기고 교통 경찰에게 걸렸을 때 말하는 것처럼 형제 자매에게 말하십시오. 그러면 아무런 문제도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말하는 내용보다 말하는 방법으로 인해 분열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그리스도 안에서 평화롭게 지내려면 부드럽고 친절하고 은혜롭게 말을 해야 합니다. 서로를 세워주는 말을 해야 합니다.

나의 말로 인해 상대방이 복을 받을 수 있게 말을 해야 합니다.

잠언 12장을 보겠습니다. “칼로 찌르듯이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건강하게 하느니라.”(잠 12:18)

말만 하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상처를 주는 말은 대부분 상처를 주고자 하는 의도를 가진 마음에서 나옵니다. 당신은 그런 마음을 갖지 않게 해 달라고 주님께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롭고 부드럽게 말할 수 없다면 차라리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지혜로운 사람의 말은 듣는 사람을 건강하게 합니다. 영적으로도 건강하게 합니다. 하지만 지혜가 없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의 말은 아무런 유익도 없이 그저 상대방에게 상처만 줄 뿐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할 바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게 낫습니다. 그러면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평화롭게 지낼 수 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상처가 되는 말을 반드시 해야만 한다면 먼저 예수님께 말씀드리세요. 그 말을 할 수밖에 없으니 지혜롭게 말하게 해 달라고 간구하세요. 예수님께 먼저 말씀드리고 나서 그 사람에게 말해도 전혀 늦지 않습니다. 만일 주님께 말씀드릴 수 없다면 다른 사람에게도 말하지 마세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다른 사람들과 평화롭게 지낼 수 있을 것입니다.

## 5. 하나님의 법칙에 따라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다른 사람들과 평화롭게 지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법칙에 따라야 합니다. 교만과 반역하는 마음은 문제를 일으키기 마련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감독하며 너희에게 훈계

하는 자들을 알고 그들의 일로 인하여 사랑 안에서 그들을 매우 귀중히 여기라. 또 너희끼리 화목하게 지내라.”(살전 5:12-13)

당신은 아마 말씀의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어떤 수고를 하는지 아실 것입니다. 말씀의 사역자들이 교회를 인도하기 위해 어떤 수고를 하는지 아실 것입니다. 이런 말을 해서 좀 죄송하기는 하지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이니 저도 그대로 말하겠습니다. 말씀의 사역자들을 귀중하게 여기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입니다. 말씀의 사역자를 귀중하게 여겨야 화목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성경이 사역자를 귀중하게 여기고 나서 화목하게 지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어디서 누구를 만나 무슨 얘기를 하건 상관없이 말씀의 사역자를 귀중하게 여기십시오. 당신이 평안 가운데 교회 생활을 하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계속해서 보고 싶다면 말씀의 사역자를 귀중하게 여기십시오. 제가 이런 말을 한다는 게 부담스럽기는 하지만 성경에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말씀의 사역자를 귀중하게 여기지 않았다면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이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지 않은 것입니다. 이걸 제 말이 아닙니다. 제가 지어낸 얘기도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당신이 성경을 믿는다면 말씀의 사역자를 귀중하게 여기고 너희끼리 화목하게 지내라는 이 말씀도 믿어야 합니다.

당신이 가정이나 학교나 회사나 국가에서 평화롭게 지내려면 가정과 학교와 회사와 국가를 인도하는 사람을 귀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래야 평화가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인도하는 사람을 귀중하게 여기고 존중해야 평화롭게 교회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가정이나 학교나 회사나 국가나 교회에서 평화롭게 지내기를 원한다면 인도하는 사

람을 격려하고 돕고 지원해 주십시오. 그러면 평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마귀는 당신이 인도자를 비방하게 만듭니다. 그래야 사역이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물론 인도자에게 모든 사역이 달렸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인 것처럼 교회의 인도자도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입니다. 교회의 인도자를 귀중하게 여기라는 것은 사람을 높이라는 게 아닙니다. 단지 당신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처럼 소중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의 몸에서 한 부분을 이루고 있는 것처럼 교회의 인도자가 그리스도의 몸에서 한 부분을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데살로니가전서 5:12-13은 제가 기록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자신의 사역자들을 통해 일하십니다. 우리의 비뚤어진 마음과 어리석은 생각과 경솔한 입술로 인해 하나님의 사역이 중단되거나 망가지지 않게 해야 합니다. 마귀는 교회 밖에서만 일하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일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서만 일하는 게 아니라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일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마귀가 하는 일을 볼 수 있는 것처럼 교회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마귀가 일하는 것을 분별해 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합니다.

## 6. 용서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다른 사람들과 평화롭게 지내려면 용서하는 영을 가져야 합니다. 용서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고 잘못된 일을 하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지

금은 당신이 용서하는 위치에 있을지 몰라도 언젠가 당신도 누군가에게 용서받아야 할 위치에 있게 될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4장을 보겠습니다. “내가 유오디아에게 간청하며 순두게에게 간청하노니 이것은 그들이 주 안에서 같은 생각을 품게 하려 함이라… 그리하면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빌 4:2, 7)

빌립보 교회에는 유오디아와 순두게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서로 생각이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잘 지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들에게 같은 생각을 품으라고 간청했습니다. 서로를 용서해야 합니다. 성경은 “누가 누구와 다툼 일이 있거든 서로 참고 서로 용서해 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며”(골 3:13)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죄를 짓고 주님께 용서받은 적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당신의 죄를 완전히 용서해 주셨습니까? 당신이 이미 용서받은 죄를 하나님께서 다시 끄집어 내신 적이 있나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한번 용서하신 것은 다시는 이야기 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용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해주시면 아무런 죄도 짓지 않았던 것처럼 됩니다. 주님께서는 완전히 잊으십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도 않은 것처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용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서로에게 해 주어야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다른 사람들과 평화롭게 지내야 합니다. 만일 당신이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다른 사람의 잘못이 있거든, 그것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당신에게 행한 그 죄를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 달라고 주님께 간구하십시오. 예수 그

리스도의 피로 씻지 못하는 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원하기만 한다면 누가 얼마나 큰 죄를 당신에게 지었건 상관없이 당신은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주님께 더 큰 용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 7.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다른 사람들과 평화롭게 지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과 평화롭게 지내겠다는 확고한 마음을 가져야 하고, 교제의 기준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고, 인내심을 가져야 하고, 부드럽게 말해야 하고, 하나님의 법칙에 따라야 하고, 용서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사랑을 가져야 합니다.

서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화해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자신이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지 못했다는 사실을 시인하면 누구든 화해할 수 있습니다. 사랑(charity)은 성경적인 용어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속 지체들이 나누는 특별한 사랑입니다.

마지막으로 골로새서 3장을 보겠습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입으라. 사랑은 완전하게 매는 띠(the bond)니라.**”(골 3:14) “매는 띠”가 영어로는 본드(bond)입니다.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지식 이 아닙니다. 교리도 아닙니다. 같은 옷을 입는 것도 아닙니다. 같은 찬송가를 사용하는 것도 아닙니다. 같은 활동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같은 성경을 사용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서로 다른 성향 배경을 가지고 있고 다른 관점과 생각을 가지고 있고 다른 정당을 지지한다 해도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면 우리는 하나로 묶여있을 수 있고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평화롭게

지낼 수 있습니다.

당신이 어떤 집에 살건,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건, 교육을 얼마나 받았건, 어떤 과거가 있건 상관없이, 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할 수 있고, 당신도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사랑으로 저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완전하게 매는 띠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혹시 교회에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당신이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매일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매일 어떤 사람을 위해 기도하면서 그 사람을 미워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아십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확실한 이유 중 하나는 그분께서는 우리를 위해 매일 중보해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다른 형제 자매들과 화평하게 지내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다른 형제 자매도 사랑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보이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거짓말일 뿐입니다. 만일 당신이 싫어하고 미워하는 형제 자매가 있다면, 당신은 그 형제 자매를 위해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에 부어주신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부어주시겠습니까?

당신이 누군가를 위해 기도한다면, 그 사람은 변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최소한 그 사람에 대한 당신의 마음은 변할 것입니다.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어떻게 변화시키시는지 경험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을 도와 주셔서 당신의 마음이 사랑이 충만한 마음으로 변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당

신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다른 형제 자매들과 화평을 이루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 2. 바른 관계를 위한 법칙

빌립보서 2장을 보겠습니다. “어떤 일도 다름이나 헛된 영광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생각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며 각 사람이 자기 일들만 돌아보지 말고 각 사람이 남의 일들도 돌아보라.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을지니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생각이라.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시므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사 자기 위에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들의 모습이 되셨으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음이라.”(빌 2:3-8)

오늘은 바른 관계를 위한 법칙 6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교리적으로 어렵거나 신학적으로 난해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과 성경적인 관계를 맺기 위한 방법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은 아내와 남편

의 관계에 대한 것일 수도 있고, 부모와 자식의 관계에 대한 것일 수도 있고,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한 것일 수도 있고 이웃과의 관계에 대한 것일 수도 있고 직장 동료와의 관계에 대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들과 성경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 가장 기본적인 규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대로 실천한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합당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의 문제나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성경에서 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인간관계에 대해서는 다른 곳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경을 기록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에 대해 살살이 알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황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포함한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게다가 우리를 도와주고 싶어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합당한 가정생활과 직장생활과 교회생활을 하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생활하도록 돕고 싶어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과 성경적인 관계를 맺는 6가지 원칙을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에 기록해 두셨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걸길로 가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처음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며 마귀를 대적해서 싸우려고 합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얼마 가지 않아 마귀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싸우고 심어지는 다른 그리스도인들과도 싸웁니다. 그래서 가정과 사회와 교회가 엉망이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교회를 만드시기 전에 먼저 가정을 만드셨습니다. 국가를 만드시기 전에 먼저 가정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가장 먼저 만드신 기관은 가족(가정)입니다. 개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나 국

가가 아닌 가정입니다. 한 개인에게 있어서 가정 생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처녀탄생이나 재림만큼이나 중요합니다.

우리의 생명은 매일의 삶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매일의 삶은 그 자체로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의 믿음에 대한 하나의 간증과 본과 증거가 됩니다. 당신의 이웃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올바른 믿음의 본입니다. 당신의 자녀에게 필요한 것도 올바른 신앙의 본입니다. 우리 회중에게 필요한 것도 바로 올바른 본입니다. 당신의 직장 동료에게 필요한 것도 바로 바른 본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하는 것보다 어떻게 하는지 삶을 통해 보여준다면 그것보다 더 확실한 교육방법은 없을 것입니다.

## 1. 다른 사람보다 자신을 낮춰야 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다른 사람과 바른 관계를 맺기 위한 첫째 원칙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어떤 일도 다통이나 헛된 영광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생각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며”

첫째 원칙은 자신을 낮추라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광의 주님이시며 하늘과 땅의 창조자이시며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입니다. 누구도 감히 그분께 손댈 수조차 없었습니다. 여자에게 태어난 자 중에 가장 위대한 자라고 불리는 침례인 요한조차도 자신이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에 합당치 않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께서 자신을 스스로 낮추시어 이 세상에 오시고 가장 낮은 곳으로 임하시고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시고 종의 형체를 취하셨습니다. 모든 창조물들로부터 섬김을 받아야 마땅한 분이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섬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이런 식으로 자신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참된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바른 관계를 형성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칙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셋째 하늘에 있는 왕좌에 앉으셔서 사람들에게 바른 일을 하라고 명령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의롭게 행하고 선한 일을 하면 관계를 맺으시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마음에 맞게 행동하면 그 다음에 교제를 나누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은 이 세상의 방법입니다. 이것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방법입니다. 우리 주님께서서는 이러한 방법으로 사람들과 관계를 맺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서는 우리와 관계를 맺고 교제를 나누기 위해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우리보다 자신을 더 낮추시고 섬김을 받으셔야 하는데 오히려 섬기셨습니다. 가장 낮은 인간보다 더 낮은 자리로 오셨습니다. 가장 낮은 종의 자리로 오셨습니다. 우리와 교제를 나누고 특별한 관계를 맺기 위해 우리보다 더 낮은 자리로 오셨던 것입니다.

독자 중에는 부인하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이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 이기적인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부인한다면 이기적일 뿐 아니라 부정직하기도 한 것입니다.

모든 죄의 공통점은 그 중심에 이기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다시 태어났지만 아직 육신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육신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던 죄의 본성을 아직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아직도 이기심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결혼하는 가장 큰 이유는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이 아니라 이기심 때문입니다. 좀 더 편하고 즐겁기 위해 결혼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고 봉사하기 위해 결혼한다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만일 서로가 서로를 섬기기 위해 결혼한다면 부부싸움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대부

분의 여자들은 일하기 싫어서 결혼하고, 대부분의 남자들은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기 싫어서 결혼합니다.

우리는 모두 본성적으로 이기적입니다. 교회든, 사회든, 가정이든, 왜 인간관계가 파괴되는지 아십니까? 상대방을 위해 무엇을 해 주려고 하기보다는 상대방이 자신을 위해 무엇을 해 주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가 되기를 바라는 모습과 완전히 다른 것이며 주님께서 보여 주신 본과는 완전히 다른 정 반대의 모습입니다.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보세요. 다시 3절을 보겠습니다. “어떤 일도 다툼이나 헛된 영광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생각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며”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 남편을 몰라서 그래요.” “저희 집사람이 얼마나 게으르고 무식한지 모르실 것입니다.” “저희 집 아이가 얼마나 말을 안 듣는지 몰라서 그래요.” “저희 부모님이 얼마나 완고한지 모르셔서 그래요.” “그 형제가 어떤 사람인지 몰라서 그래요.” “그 자매가 어떤 짓을 했는지 몰라서 그래요.”

미안하지만 그렇게 생각한다면 대단히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저는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 “제 잘못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단 한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아마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가기 전에는 그렇게 순수히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는 사람을 찾아보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저희 부모님이 화를 내시는 것은 모두 다 저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아이를 보는 것은 아마 거의 불가능할 것입니다. “저희 아이들이 반항적이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않는 것은 모두 제 잘못입니다. 제가 성경적으로 양육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는 부모를 보는 것도 거의 불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아이들이 잘못되면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탓합니다. 친구를 잘못 만나서라거나 사회가 잘못되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도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목사가 성경을 잘 못 가르쳐서라거나 주일학교 교사가 제대로 가르치지 않아서 아이가 엉망이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이를 양육하는 책임은 목사나 주일학교 교사나 사회나 친구에게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그런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의하면 아이에 대한 책임은 부모에게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잘못은 잘도 찾아냅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찾아내고는 바로 그것 때문에 자기에게도 문제가 생겼다고 주장합니다. 그러한 생각이 모든 관계를 망칩니다. 성경은 오히려 다른 사람을 자기 보다 낮게 여기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면 대부분의 문제는 사라져 버립니다. 그것이 바로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신을 다른 사람들보다 낮추셨습니다.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저는 그분께서 만드신 창조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을 얼마나 낮추셨는지 아십니까? 한낱 창조물인 저의 혼을 구하시려고 자신의 생명을 버리셨습니다. 저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버리신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보다 저의 생명을 더 소중하게 여기신 것입니다.

다시 5절부터 8절까지 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을지니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던 생각이라.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시므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사 자기 위에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들의 모습이 되셨으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음이라.”

예수님께서서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보다 훨씬 나은 분이십니다. 우리보다 훨씬 지혜로우시고, 훨씬 능력이 많으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와 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 더 낮은 자리를 택하셨습니다.

모든 분열의 원인은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낫다고 여기는 데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대부분의 교회가 분열하고 가정이 깨지는 것입니다.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는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부부는 죄인인 남자와 죄인인 여자의 결합으로 이루어집니다. 다시 말하지만 결혼이란, 죄인과 죄인이 만나서 하나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남자의 아내는 죄인이고 동시에 모든 여자의 남편은 죄입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아이들의 부모는 죄인이고 동시에 모든 부모의 아이들도 죄인입니다. 당신의 형제 자매 중 죄인이 아닌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당신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다면 이러한 사실에 동의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다른 사람에게 완벽함을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죄인에게 완벽함을 요구하기 때문에 관계가 형성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작하기도 전에 패배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누구이건 간에 당신은 완벽한 사람과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누구이건 간에 당신은 완벽한 국가에서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당신이 누구이건 간에 당신이 다니는 교회는 완벽한 교회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불완전함을 인정하고 용납하기 전에는 그 사람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과 바른 관계를 맺기 위한 첫째 원칙은, 다른 사람을 자신보다 낮게 여기는 것입니다.

## **2. 아무런 반응이 없어도 다른 사람보다 자신을 낮춰야 합니다**

다른 사람과 바른 관계를 맺기 위한 둘째 원칙은 고린도후서 12장에 있

습니다. “보라, 내가 세 번째 너희에게 갈 준비가 되어 있으나 너희에게 짐이 되지는 아니하리라. 나는 너희 재물을 구하지 아니하고 너희를 구하노니 자녀들이 부모를 위해 모아 두지 아니하고 부모가 자녀들을 위해 하느니라.”(고후 12:14)

둘째 원칙은, 상대방으로부터 아무런 반응이 없을지라도 다른 사람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가진 것이나 그가 해 줄 수 있는 것을 기대하고 결혼하지 말고 그 사람 자체로 인해 결혼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가진 재산을 다 날려도, 건강을 잃어도, 예쁜 얼굴이 사라져도, 그 사람의 미래가 사라져 버려도, 그 사람 자체만 남아있다면 관계는 깨지지 않게 됩니다.

“이 교회는 제 필요를 채워주지 않아요.” “이 교회에서는 제가 원하는 것을 해 주지 않아요.” “그 목사님은, 그 형제는, 그 자매는 저를 도와주지 않아요.” 이런 생각은 완전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교회든, 목사든, 형제든, 자매든, 다른 사람들과 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그가 나에게 무엇을 해 줄 수 있는가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 사람 자체를 사랑하고 원하고 돌봐주려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이 세상의 방법은 아닐지 몰라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다른 사람과 바른 관계를 맺는 방법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늘을 펴시고 태양과 달과 별들을 만드셨습니다. 새와 물고기와 짐승도 만드셨습니다. 천사와 사람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 분께 제가 무엇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제가 소유한 전 재산을 다 주님께 드린다고 해도 그것이 주님께 어떤 유익을 끼칠 수 있겠습니까? 저의 이 작은 머리로 하나님께 무엇을 가르쳐 드리고 어떤 정보를 드릴 수 있겠

습니까? 제가 이 손으로 전능하신 분에게 어떤 유익을 끼치고 무엇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서는 저로 인해 어떤 유익을 얻기 위해 저를 대신해서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를 원하셨습니다. 분에 넘치는 말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저를 원하셨습니다. 제가 가진 것이 아니라 저의 존재 자체를 원하셨습니다. 자신에게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하고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 저와 개인적인 관계를 맺고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다른 사람과 맺는 모든 관계의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든, 부모와 자식의 관계든, 교회에서 형제 자매의 관계든 상관없이 모든 관계의 기초가 상대방으로부터 무엇인가를 얻기 위한 게 아니라 상대방 자체를 원하는 것이라면 무엇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나를 위해 무엇을 하기를 바란다면, 무엇을 주기를 바란다면 실망하게 될 것이고 관계는 깨질 것입니다. 그러한 관계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재물이나 능력이 사라지고 나면 관계는 거기서 끝나고 맙니다. 하지만 그 사람 자체로 인해 관계를 맺는다면 그 사람이 존재하는 한 관계는 끝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과 교제를 나누고 관계를 맺을 때 그 사람의 재능이나 소유를 보고 관계를 맺지 말고 그 사람 자체로 인해 관계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 주신 일입니다. 우리도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들과, 형제 자매들과 관계를 맺는다면 시간이 지나도, 상황이 변해도 관계는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저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 일하지 않고 당신의 유익을 위해 일하고, 당신도 자신의 이익이 아니라 목사를 돕고 다른 형제 자매들을 돕기 위해

교회에 나온다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한 교회에서 계속 함께 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다른 사람으로부터 무엇을 받으려고 교회로 모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 교회로 모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관계는 아름다운 관계가 될 것입니다.

15절도 보겠습니다. “너희를 더욱 넘치게 사랑할수록 내가 덜 사랑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위하여 가진 것을 매우 기쁘게 쓰고 나 자신을 쓰리라.”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모든 시간을 너희를 위해 사용하는데 너희가 나에게 전혀 감사하지 않는다 해도 나는 전혀 상관 없다. 그것은 나에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래도 나는 여전히 너희를 사랑한다. 너희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받기 위해 이런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너희 자신을 위해 이 일을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너희가 전혀 감사하지 않아도 나는 계속해서 너희를 위해 일하겠다. 너희를 위해 나의 돈과 시간과 재능을 쓰겠다. 너희에게 아무런 보답을 받지 않아도 상관 없다. 내가 일하는 것은 너희로부터 무엇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너희를 위해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목사님, 제가 남편을 위해 그렇게 노력했는데도 남편은 고맙다는 말 한마디를 안 하더군요.” 고맙다는 말을 듣기 위해 일하지 말고 남편을 위해 일하십시오. “아내를 위해 정말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원하는 건 다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내는 저를 더 힘들게 만들 뿐입니다.” 아내로부터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 하지 마십시오. 아내 자체로 인해 하십시오. 당신의 유익이 아닌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그를 섬기십시오. 다른 사람이 무엇인가를 해주기를 바라고 그를 섬기지 말고 다른 사람 자체를 위해 섬기십시오.

감사나 보상이나 보답을 바라지 말고 해 주십시오. 그러면 관계는 망가지지 않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바라지 말고 그 사람의 행복을 위해 섬기십시오. 이것은 대부분의 부모가 자녀를 대하는 자세입니다. 부모는 아무런 조건 없이 자녀가 안전하고 평안하고 행복하게 지내게 하기 위해 필요를 공급해주고 섬기는 것입니다. 아이가 감사하다고 하지 않아도 부모는 계속해서 필요를 공급해주고 섬기기 때문에 관계가 지속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관계는 이익을 배제해야 형성됩니다. 이것은 세상과는 정반대로 가르치는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이든, 부모와 자식의 관계이든, 교회에서 형제 자매의 관계이든, 참되고 바른 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이익을 배제한 섬김이 있어야 합니다.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 교회에 오지 말고 무엇인가를 주기 위해 오십시오. 그러면 아름다운 관계가 형성될 것입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고도 그들에게 설교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고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도 있습니다. 육신 안에 있으면서도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 무엇인가를 하고 있다고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 3.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 것처럼 서로 용서해야 합니다

셋째 원칙은 하나님께서 용서해주신 것처럼 서로 용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모든 쓴 것과 진노와 분노와 소리 지르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히 대하며 상냥한 마음을 품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엡 4:31-32)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그 사람이 저에게 어떤 짓을 했는지 몰라서 그러세요. 목사님이 그 형제가 한 짓을 알았더라면, 그 자매가 한 짓을 알았더라면, 저에게 그 사람을 용서하라는 말은 하지 못할 것입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명령은 제가 한 게 아닙니다. 저는 성경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저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명령은 성경을 기록하신 분이 하신 것입니다.

당신에게 한 가지 묻겠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당신을 거짓으로 고소해서 법정에 세우고, 당신의 눈을 가리고 주먹으로 당신의 얼굴을 때리고, 수염을 뿌리째 뽑아버리고, 가시로 관을 만들어 머리에 씌우고, 등에 깊은 상처가 나도록 채찍질을 하고, 십자가에 못을 박아버리고, 옆구리를 창으로 찌른다면 어떻게겠습니까? 누군가 당신에게 그런 짓을 한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겠습니까? 당신은 그 사람을 용서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의하면 당신의 죄가 예수님이 이러한 일을 당하도록 했습니다. 제가 예수님께 그런 짓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저 때문에 그런 일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서는 저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왜 저를 용서해 주셨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서는 제가 저지른 죄와, 저의 죄로 인해 받으실 고통보다 저와 교제를 나누는 것을 소중하게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서는 자원해서 이러한 고난을 받으시고, 저로 인해 고난을 받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저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종교에 대해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그 형제가 저에게 어떻게 했는지 몰라서 그러세요.” “그 자매가 저에게 어떻게 했는지 몰라서 그러세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 형제가, 그 자매가 당신에게 어떻게 대했는지는 모르지만 당신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께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성경은 “그들이 너희를 용서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 절도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사랑스러운 자녀로서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 자신을 향기로운 냄새의 헌물과 희생물로 하나님께 드리신 것 같이 사랑 안에서 걸으라.”(엡 5:1-2)

예수님께서서는 셋째 하늘에 있는 왕좌에 앉으신 채 우리에게 지침만 주신 게 아닙니다. 프린트물만 돌리신 것도 아닙니다. 주님께서서는 직접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자신을 전혀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희생물로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서는 우리에게 자신이 걸은 그 길로 걸어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신이 산 것처럼 살아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행하신 대로 해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님께 무슨 짓을 하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멈추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서는 우리도 서로 그렇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아십니까? 모든 잡지를 버려야 합니다. TV를 꺼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펴서 읽으며 하나님의 방법대로 생각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세상이 당신에게 무엇을 가르치는지 아십니까? 세상은 잡지와 TV를 통해 모든 관계의 중심은 당신의 이익이 되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당신의 기분

이 좋아지지 않고 아무런 이익을 얻을 수 없으면 그런 관계는 맺을 필요가 없다고 가르칩니다. 이것은 성경적 기독교와는 정반대편에 있는 생각입니다. 성경적 기독교는 이기심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가르칩니다.

성경은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하라고 말씀합니다. 또 그리스도의 본을 따르고 사랑 안에서 걸으라고 합니다. 만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서로 용서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본을 따르지 않고, 사랑 안에서 걷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러면 기다리는 것은 무엇인지 3절부터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오직 음행과 모든 부정한 것과 혹은 탐욕은 너희 가운데서 한 번이라도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그것이 성도에게 합당하니라. 또한 추잡한 것이나 어리석은 이야기나 희롱하는 말도 적합하지 아니하니 하지 말고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가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을 일삼는 자나 부정한 자나 탐욕을 부리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결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왕국에서 아무 상속 유업도 받지 못하느니라. 아무도 헛된 말들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자녀들에게 임하니니”

왜 어떤 부모는 아이들을 학대하는지 아십니까? 아이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어떤 남편은 아내를 폭행하는지 아십니까? 가끔이긴 하지만 왜 어떤 아내는 남편을 폭행하는지 아십니까? 자신이 원하는 대로 상대방이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첫째 자리에 두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첫째 자리에 두면 모든 관계가 망가지게 됩니다.

성경적 기독교는 서로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께 용서받은 만큼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 4. 과거의 잘못은 잊어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다른 사람과 성경적인 관계를 맺기 위한 원칙들에 대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것들이 쉽다고 말한 적도 없고 그렇게 생각 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을 자신보다 낮게 여기고,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선을 행하고, 또 자신에게 고통을 준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우리의 본성과 맞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넷째 원칙은 과거의 잘못은 잊어버리라는 것입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가 버렸습니다. 되돌릴 수 없습니다. 과거의 잘못을 계속 붙들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용서했다고 하면서도 계속 꼬집어 냅니다. 만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용서하는 식으로 사람들을 용서해 주신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제가 구원받는 순간 예수님께서서는 자신의 피로 저의 모든 죄,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빌립보서 3장을 보겠습니다. “나는 내가 이미 도달한 것처럼 말하지 아니하며 이미 완전한 것처럼 말하지도 아니하고 다만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나를 붙잡아 이루시고자 하신 그것을 붙잡으려고 뒤따라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내가 이미 붙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다만 이 한 가지 일을 행하니 곧 뒤에 있는 그것들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그것들에 도달하려고 나아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꾀대를 향해 밀고 나아가노라.”(빌 3:12-14)

과거를 망친 분들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망가진 과거에 대해서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문제는 과거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일 과거에 저지른 잘못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치렀다면 이제 할 수 있는 일은 그것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어떻게 사는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용서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

는지 보여주셨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 배웠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 눈을 고정하고 앞으로 전진해 나아가야 합니다. 자신이 저지른 과거의 잘못들은 모두 뒤로 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당신이 구원받았다면 이제는 과거와는 다른 식으로 생각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과거와는 다른 방식으로 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과거와는 다른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한다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연구해야 한다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성경을 읽고 공부해서 당신의 마음을 성경으로 채워야 합니다. “세뇌되었다”는 말을 영어로는 “뇌가 씻겼다(brain washed)”고 합니다. 더러운 것들로 오염돼 있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씻는 게 훨씬 낫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의 뇌를 깨끗하게 씻기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완전한 것처럼 말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자신도 잘못을 한다는 것입니다. 완벽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죄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다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 죄를 자백하고 앞으로 전진해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께 이미 용서를 구한 것이라면 자신의 과거의 잘못은 뒤에 남겨두고 앞으로 전진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잘못도 그대로 남겨두고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들과도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 5. 모든 관계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존재하십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렇게 세 분은 한 하나님입니다(요일 5:7). 삼위일체는 마치 트라이앵글과 비슷합니다. 각기 다른 세 면이 있지만 트라이앵글은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

하신 것들은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키나 몸무게나 피부색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영과 혼과 몸을 가진 삼중적인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셋으로 이루어진 하나의 존재입니다.

성경은 “그분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분의 영원하신 권능과 신격은 세상의 창조 이후로 분명히 보이며 만들어진 것들을 통해 깨달아 알 수 있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변명할 수 없느니라.”(롬 1:20)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조물을 통해 하나님의 신격까지도 알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들은 삼중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교제에 있어서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이제 구약성경으로 가서 전도서 4장을 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자기들의 수고로 인하여 좋은 보상을 받기 때문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한 사람이 자기 동료를 일으켜 세우려니와 홀로 있는 자는 넘어질 때에 화가 있으리니 그를 도와서 일으킬 다른 자가 그에게 없도다.”(전 4:9-10) 남편이 죄로 인해 쓰러졌다면 일으켜 세우십시오. 아내가 죄로 인해 쓰러졌다면 일으켜 세우세요.

계속해서 다음 절을 보겠습니다.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그들이 따뜻하게 되거니와 사람이 어찌 홀로 따뜻할 수 있으리요? 누가 그를 쳐서 이기면 두 사람이 그와 맞서리니 세 겹 줄은 빨리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11-12절)

모든 관계는 두 사람만으로는 완성되지 않습니다. 남편과 아내만으로는 참된 부부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교회 내에서의 성도들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형제와 다른 형제, 이 둘만으로는 관계가 완성되지 않습니다. 모든 관계는 둘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결혼을 하면 무엇인가가 남편과 아내, 둘 사이에 끼어듭니다. 아이를 낳으면 부모와 아이 사이에 무엇인가가 끼어듭니다. 다른 형제와 교제를 나누려고 하면 무엇인가가 둘 사이에 끼어듭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에 돈이나 물질적인 것이 끼어들면 그 관계는 오래 가지 못합니다. 끼어드는 것이 돈이나 물질이 아닌 친척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관계는 마찬가지로 오래가지 못하게 됩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끼어들 때만 관계가 영원히 갈 수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끼어들면 관계가 파괴됩니다. 부부 사이에 정당하게 끼어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그들을 만드신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당신은 아이들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친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당신과 자녀들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게 해야 합니다. 당신은 자녀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대화하는 법을 가르쳐주어야 합니다. 그분과 동행하는 법을 가르쳐주어야 합니다. 이 세상 그 누구를 아는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게 해야 합니다. 운동선수나 연예인에 대해서는 알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아는 게 없다면 자녀를 성경적으로 양육한 게 아닙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이든, 부모와 자식의 관계이든, 형제와 형제의 관계이든, 모든 관계의 중심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야 합니다. 당신이 누구와 어떤 관계를 맺든, 그 관계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다면 세 겹 줄은 빨리 끊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 6. 다른 사람을 고려해 주어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솔로몬의 아가 8장을 보겠습니다. “자기의 사랑하는 이

에게 기댄 채 광야에서 올라오는 이 여자는 누구인가? 내가 사과나무 밑에서 너를 일으켰나니 거기서 네 어머니가 너를 낳았고 너를 뱀 여인이 거기서 너를 낳았노라. 나를 도장같이 네 마음에 새기고 도장같이 네 팔에 새기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무덤같이 잔인하니 그것의 솟은 극히 맹렬한 불꽃을 지닌 불붙은 솟이니라. 많은 물도 사랑을 끄지 못하며 홍수라도 그것을 잠기게 하지 못하나니 사람이 자기 집의 전 재산을 주고 사랑을 얻으려 할 지라도 그것은 철저히 멸시를 받으리라.”(아 8:5-7)

마음은 감정과 애착이 있는 곳입니다. 팔은 힘과 활동을 상징합니다. 저의 생각이나 감정이나 실행은 항상 다른 사람을 고려해 주어야 합니다. 여자들은 남편과 함께 낚시를 하러 가고자 하지 않고 남자들은 아내와 함께 쇼핑을 하러 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과 감정과 활동이 자신이 아닌 상대방을 위한다면 모든 관계는 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 원칙을 잘 지킨다면 당신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당신이 무엇인가를 할 수 있을 때, 오늘 우리가 다루는 주제를 잘 공부해 두십시오. 관계가 완전히 망가져서 너무 늦기 전에 미리 공부해두세요. 만일 당신이 원하는 모든 일을 이루고 이 세상에서 큰 성공을 거둔다고 해도 영원히 함께 하게 될 사람들과의 관계를 완전히 망쳐버린다면 그게 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돈과 성공을 쫓는 일은 잠시 멈춰도 됩니다. 물질적으로 무엇인가를 더 소유하기 위해 사는 삶은 잠시 쉬어도 됩니다.

당신의 몸이 무덤에 들어가게 되면 당신은 무엇을 깨닫게 될지 아십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물질적인 게 아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가 정말 중요한 것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가장 중요한 것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이러한 것을 진지

하게 생각해 보지 않는다는 것은 정말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분과 관계를 맺고 영원히 함께 보내게 될 사람들과 바른 관계를 맺게 되기를 바랍니다.

### 3.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문제에 관해

우리는 입으로는 형제 자매를 사랑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다른 형제 자매들을 대하는 우리의 행동은 그렇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드러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모든 것을 드러내면서 예수 그리스도만은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간의 영을 드러낼 때도 있고 마귀의 영을 드러낼 때도 있습니다. 육신적인 영을 드러낼 때도 있습니다.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드러낼 때가 너무 적다는 것입니다.

시편 58편을 보겠습니다. “오 회중들아, 너희가 참으로 의를 말하느냐? 오 너희 사람들의 아들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단하느냐?”(시 58:1)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 두 가지 질문을 자신에게 해 봐야 합니다. 첫째 질문은 “너희가 참으로 의를 말하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하

는지는 신앙 생활에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혀를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따라 우리의 신앙과 실체가 드러납니다.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다른 사람의 잘못만을 찾아내고 험담하고 이상한 소문을 내고 형제 자매들 간에 이간질을 하는 것은 세상과 육신과 마귀에게 속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혀를 그런 식으로 사용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가르치고 격려하고 권면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데 우리의 혀를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매우 안타까운 사실은 우리 대부분은 혀를 잘못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바르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원하시는 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신에게 던져야 할 둘째 질문은 “너희가 올바르게 판단하느냐?”입니다. 우리는 올바르게 판단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올바르게 판단하고 있습니까?

성경을 제대로 읽을 줄 모르는 사람들은 구절 전체를 인용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을 지지해 준다고 생각하는 일부만을 인용합니다. 그래서 “판단하지 말라”(마 7:1, 눅 6:37)는 말만을 되풀이합니다. 문맥을 살펴보거나 구절 전체를 인용하지 않고 자신에게 필요한 부분만 잘라내서 인용하며 “판단하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시편 58편을 기록하셨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판단을 하고 삽니다. “판단하지 말라”는 말을 인용하는 사람도 판단을 하고 삽니다. 판단하지 않고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동차를 운전할 때도 계속해서 판단합니다. “여보, 멈춰요. 사람을 치겠어요.” 라고 하는데 “성경이 판단하지 말라고 했어. 당신은 아무 판단도 하면 안 돼” 라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운전을 하면 사람이 길을 건너는지 그렇지 않은지 판단해야 합니다. 판단하지 않고는 운전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판단하지 말라”는 말은 분명 성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문맥을 고려하지 않고 이 말씀을 적용하게 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시험지를 채점하는 교사에게 판단하지 말라는 말씀을 적용하면 어떻겠습니까? 교통 경찰관에게 판단하지 말라는 말씀을 적용하면 도로는 큰 혼란에 빠질 것입니다.

우리는 판단을 해야 합니다. 문제는 바르게 판단하느냐입니다. “너희가 올바르게 판단하느냐?” 당신은 올바르게 판단하십니까? 우리가 사는 시대는 기준이 사라진 시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바르게 판단하지 못하면서 살아갑니다. 남자들은 여자처럼 옷을 입고 여자들은 남자처럼 옷을 입습니다. 아이들은 부모에게 대들고 여자는 남편에게 대듭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 교회에 가지 않고 성경도 읽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성경에서 보여주면 돌아오는 말이라고는 “판단하지 말라”는 말뿐입니다.

“판단하지 말라”는 말을 하는 사람이 간과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모든 사람이 판단을 받게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둘째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된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이 자신을 판단한다고 판단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점입니다.

판단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가 판단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바르게 판단해야 한다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판단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판단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문제는 판단을 하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바르게 판단하느냐, 잘못 판단하느냐입니다.

우리는 판단을 해야 합니다. 다만 우리가 판단을 할 때 바른 기준으로, 바른 마음과 의도를 가지고 판단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신약성경에서 판단에 대한 말씀들을 찾아보고 우리가 바르게 판단하고 있는지 점검해 볼 것입니다.

## 1. 모든 것을 판단해야 합니다

법정에서 판사는 재판을 하면서 옳고 그름을 가립니다. 원고와 피고는 자신이 옳다고 주장하며 증거를 제시합니다. 판사는 둘 사이에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판단합니다. 이것은 우리와 상관없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판단을 받는 일은 우리의 인생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판단을 받거나 판단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의 인생은 무엇인가에 대한 판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잘못된 것을 옳다고 하거나 옳은 것을 잘못되었다고 판단하면 결국 큰 문제에 빠지게 됩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2장을 보겠습니다. “오직 영에 속한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하나 그 자신은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고전 2:15) 이 구절은 오직 “판단하지 말라”는 구절만 아는 사람이 반드시 암기해야 하는 구절입니다.

당신은 어느 성경을 읽을지 판단해야 합니다. 당신은 가족과 함께 어느 교회에 다녀야 하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당신은 당신이 가진 돈을 어떻게, 어디에 사용해야 하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당신은 시간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판단해야 합니다. 당신은 말을 어떻게 할지 판단해야 합니다. 어떤 어휘를 사용해야 하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당신은 어떤 태도와 자세로 살아야 하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당신은 항상 판단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것은 옳은가, 그른가? 거기에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그 일을 해야 하나, 하지 말아야 하나? 그것은 진리인가, 거짓인가? 영적인 사람은 흘러가는 대로 인생을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명확한 판단을 내리며 삽니다. 영적인 사람은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명확한 판단을 내리고 명확한 행동을 합니다. 영적인 사람은 명확한 길을 걷습니다. 왜냐하면 영에 속한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판단하면 안 된다고 하는 사람도 판단하며 삽니다. 시장에 가서 야채를 고를 때 어느 게 싱싱한지 살펴봅니다. 좋고 나쁨을 판단합니다. 물건을 살 때 모든 정보를 수집하고 가격을 비교해 봅니다. 판단하지 않고 아무 물건이나 구매하지 않습니다. 자동차를 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런 판단도 하지 않고 처음 본 차를 구매하지 않습니다. 시승을 해보고 최대한 현명하게 판단하려고 노력합니다. 구매할 집을 고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을 보지도 않고 계약하지 않습니다. 바닥도 보고 벽도 보고 꼼꼼히 살펴보고 판단하고 나서 계약합니다. 자신이 가진 모든 지식을 총 동원해 판단합니다. 잘못 판단하면 재산상의 큰 손해를 당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재산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는 모든 지식을 동원해서 최선을 다해 판단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물질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최선을 다해 판단하지만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 성경이나 봅니다. 모든 집이 다 같다고 하면서 아무 집이나 구매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모든 성경이 다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꼼꼼히 확인해보고 판단하지 않고 그냥 아무 성경이나 봅니다.

성경뿐만이 아닙니다. 부동산은 꼼꼼히 보던 사람이 교회는 아무 교회나 다닙니다. 아무런 기준도 없이 아무하고나 교제를 합니다. 이것이 덕을 세워주는 것인지 판단하지 않고 누구를 험담하든 말든 상관하지 않고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리고 나서는 왜 자신의 기도가 응답 받지 못하는지 의아해합니다.

영적인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합니다. 모든 것을 판단하되 제대로 된 판단을 하려면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모르고는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성경에 복을 주시고, 어떤 교회에 복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해야 하고 어떤 말을 해야 하는지 성경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누가 다른 사람을 섬기고 있는지, 누가 그저 서성이고만 있는지 성경을 통해 판단해야 합니다. 영적인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합니다.

## 2. 바르게 판단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바르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을 보겠습니다. “또한 밖에 있는 자들을 판단하는 일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안에 있는 자들은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밖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나니 그러므로 그 사악한 자를 너희 가운데서 내쫓으라.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사람과 문제가 있을 때에 감히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소하고 성도들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들이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너희가 가장 작은 문제들을 판단하는 것도 감당하지 못하느냐?”(고전 5:12-6:2)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가정들이 파탄 나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세상 판사 앞에 가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나 성도들 앞에서 판단 받으려고 하지 않고 세상 판사 앞에서 판단 받으려고 하는지 아십니까? 옳은 것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판단 받고자 합니다.

영적인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합니다. 바르게 판단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바르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무엇이 바른지 알 수 있습니다. 문제는 바르게 판단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바르게 판단하면 자신에게 손해가 나기 때문에 바르게 판단하고자 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떻게 판단하는 것이 옳은지 모르겠으면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에게 물어보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물어보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하고자 하면 누구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자신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조차 하나님의 뜻대로 살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대부분의 구원받은 사람들이 성경적인 교회와 성경적인 설교와 성경적인 교제를 거부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 확인해보지 않으려는 이유입니다. 바르게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우리에게 완벽한 성경을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원하면 완벽한 성경을 손에 짚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무엇이 바르고, 무엇이 그른지,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한지,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알 수 있게 하셨습니다. 당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은 성경을 믿는 교회에 출석하여 성경을 믿는 설교자의 설교를 듣고 성경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과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신의 인생은 망가지지 않을 것입니다.

인생이 망가지는 이유는 바르게 판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른 교회에 다니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른 목사의 설교를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른 그리스도인들과 교제를 나누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른 곳에 와서 묻지 않기 때문입니다. 남자 친구와 동침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하는 구원받은 자매들도 있습니다. 만일 그런 문제를, 성경을 믿는 교회에 와서 성경을 믿는 설교자와 성경을 믿는 성도들에게 물었다면 바른 답을 얻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성경을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하고 “요즘은 다 그렇게 한다”는 친구들의 조언에 따라 죄에 빠져버리고 인생을 망쳐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왜 바른 곳에 와서 질문을 하지 않는지 아십니까? 바르게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에 와서 남자 친구와 동침해도 되는지 물으면 우리는 절대로 “뭐 요즘 다 그렇게 하니까, 해도 되지 않겠어? 그게 뭐 그리 큰 문제가 되겠어?” 라고 얘기해주지 않을 것입니다. “성경은 판단하지 말라고 했어. 우리는 네가 무엇을 해도 판단하지 않을 꺼야.” 라고 말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어떻게 답해줄지 아십니까? 성경을 펴서 하나님께서 무엇이 옳다고 말씀하셨는지, 무엇이 잘못되었다고 말씀하셨는지 보여줄 것입니다. 성경을 믿고 당신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라도 당신에게 자신의 생각이나 사회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

는지를 말해줄 것입니다.

사람들이 왜 설교자에게 묻지 않는지 아세요? 설교자가 어떻게 답할지 알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설교자가 어떤 성경 구절을 인용할지까지 아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묻지 않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구원받은 사람들의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고 싶어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신의 생각대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상충되는 자신의 방법대로 살면서 목사가 그저 자신의 비성경적인 어리석은 결정을 지지해 주고 위로해 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만일 목사가 자신을 판단하고 자신의 비성경적인 언행을 지적하면 목사가 사랑이 없다고 합니다. 간음을 하고 다니는 사람은 간음에 대해 경고하는 목사를 싫어합니다. 그렇게 간음하는 사람들과 어울려 다니다가 자신이나 여자친구가 임신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왜 자신에게 “고난”을 주시는지 의아해합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누군가를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라 당신을 돕기 위함입니다. 성경은 당신의 간증과 가족과 교회생활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재물을 사용해야 하는지, 어떻게 옷을 입어야 하는지, 어디를 가야 하는지, 어떻게 시간을 보내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당신이 영적이라면, 당신은 성령님의 인도와 지도를 따를 것이며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알고 싶어 하고 그대로 행하고 싶어할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당신이 구원을 받기는 했지만 여전히 육신적이고 반역적이며 마귀처럼 살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설교자를 무시할 것이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과는 가능하면 거리를

두고 싶을 것이고, 아무도 자신을 판단하지 못하도록 자신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정보만을 남기려고 할 것이고 가능하면 교회에서 최소한의 시간을 보내려고 할 것입니다.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당신의 삶과 가족과 회중을 순수하게 유지하기 위해 당신을 판단하는 문제가 지역교회의 인도자들에게 주어졌다고 말씀합니다. 당신이 죄를 지으려고 마음먹기 전에는 성경을 잘못 가르치는 교회에는 가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죄를 지으려고 마음먹으면 모든 게 달라집니다.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설교자는 평소대로 설교하고 회중도 평소대로 찬송을 부르고 교회는 계속 같은 교리를 고수하지만 죄를 짓기로 마음 먹으면 더 이상 이런 것들을 즐겁게 들을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된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길로 가라고 하셨는데 반대쪽으로 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자신의 방법대로 했더니 하나님의 방법을 걷고 그대로 행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게 하라고 하는 사람들이 싫어진 것입니다. 다른 성도들이 자신과 같은 길로 가지 않자 그들은 사랑이 없고 친절하지 않다고 비난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 3. 의로운 판단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7장을 보겠습니다. 만일 다음에 누군가가 “판단하지 말라”는 구절을 인용하면 당신은 이 구절을 인용하면 됩니다. “겉모양으로 판단하지 말고 의로운 판단으로 판단하라”(요 7:24)

당신은 보이는 것을 기초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마음(중심)을 보십니다. 의로운 판단이란 하나님의 말씀대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모든 것을 판단하

는 것은 옳은 일입니다. 무엇이든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 것은 옳은 것이고 일치하지 않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판단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합니다. 하나님께서 낮과 밤을 만드셨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 안에 있든지 밖에 있습니다. 당신은 바르든지 잘못되었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진리가 아니면 거짓입니다. 겉모양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대로 판단하면 바른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느낌이나 감정이나 이익이나 친분이나 선호도를 근거로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판단하면 바른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모든 남자가 여자 옷을 입는다고 해도 그것은 여전히 잘못된 일입니다. 모든 설교자들이 동성연애는 죄가 아니라고 해도 그것은 여전히 죄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것을 하는지는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라고 하시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하든 그것은 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며 판단해야 합니다. 얼마나 좋아 보이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가 얘기하는지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이는지, 어떻게 느끼는지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의로운 판단을 해야 합니다.

#### 4.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판단 받게 됩니다

당신은 항상 판단을 하며 살아야 합니다. 판단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느냐, 또는 의롭게 판단하고 있는가가 문제입니다. 요한복음 12장을 보겠습니다. “사람이 내 말들을 듣고 믿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나는 세상을 심판하러 오지 아니하고 세상을 구원하러 왔노라. 나를 거절하고 내 말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그를 심판하는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말 바로 그 말이 마지

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요 12:47-48)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당신이 구원받았다면 당신의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의해 판단을 받을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적어도 천년 동안 지옥에 있다가 큰 흰 왕좌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인생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의해 판단을 받게 됩니다. 당신이 구원받고 하늘나라에 가든,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에 가든, 당신의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기록된 대로 심판 받을 것입니다. 당신은 이러한 사실을 믿으십니까? 만일 당신이 이러한 사실을 믿는다면 성경에 무엇이라고 되어 있는지 찾아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당신은 인생의 가장 큰 시험을 치르기 위해 성경을 공부해야 합니다.

저는 왕좌에 앉아 당신을 심판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의 어머니 아버지 학교 선생님이나 친구나 사장님이나 직장동료나 남편이나 아내가 당신을 심판하는 것도 아닙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당신을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당신을 심판하고 판단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그리고 다행히도 그 성경을 당신은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신은 성경을 펴서 읽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게 나을 것입니다. 성경이 당신의 친구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따르는 게 좋습니다. 당신의 혀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따르는 게 좋을 것입니다. 성경이 당신의 돈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따르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성경에 의해, 성경대로 심판을 받고 판단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전 인생은 성경에 의해 판단 받고 심판 받고 평가될 것입니다. 그런데 TV 프로그램이 몇 시에 무엇을 하는지는 줄줄 꿰면서 스가랴나 말라

기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모른다면 무엇인가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당신이 심판 받을 때 TV가이드가 펼쳐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펼쳐질 것입니다.

저의 영원한 복과 상급이 제가 성경에 얼마나 순종했는가로 결정된다면, 제가 정말로 이것을 믿고 당신도 정말로 이것을 믿는다면, 성경을 연구하고 탐구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셨고 무엇을 하지 말라고 하셨는지 알아보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이 아닐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어떤 상급을 받는지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배우고 우리 마음속에 새겨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과 일치하게 해야 합니다.

자기 멋대로 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지 말라는 일을 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좋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성경의 심판을 받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언젠가 모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판단을 받고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날을 예비해야 합니다.

## 5. 주님께 판단 받는 것에 비하면 사람에게 판단 받는 것은 작은 일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판단을 받거나 사람의 판단으로 판단을 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니라. 참으로 나는 내 자신을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나는 판단 받을 아무것도 스스로 알지 못하노라. 그러나 이로써 내가 의롭게 되지는 아니하였나니 오직 나를 판단하시는 분은 주시니라.”(고전 5:3-4)

지금 사도 바울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아세요? 그는 사람의 판단은 크게

신경 쓰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사람의 판단보다 주님의 판단을 훨씬 더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의 비평에도 신경 쓰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비하면 그러한 것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교단 청문회이나 국회 청문회에서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판단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한 것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언젠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서 우리가 사용한 돈에 대해, 시간에 대해, 언어에 대해, 인생에 대해 판단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심판이라고 믿습니다.

계속해서 다음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오실 때까지 때가 이르기 전에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분께서 어둠의 감추어진 일들을 빛으로 가져가 드러내시고 마음의 의도들을 드러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하나님께 칭찬을 받으리라.”(5절)

제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대해 대비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도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대해 준비하는 것입니다. 진실을 하나 말씀드리면 당신은 저의 모든 사정을 알고 있지 않습니다. 저도 당신의 사정을 다 아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저는 당신의 인생에 대해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없고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훌륭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모든 비밀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의 밝은 면만을 보고 그가 훌륭하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그의 어두운 면까지 보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다른 판단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다르게 개인적인 부분도 보십니다. 속 중심에 있는 마음도 보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 대한 평가가 우리와는 다르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을 보고 그가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가 모든 발걸음을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께 자신을 완전히 내어 맡긴 것을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가 당신보다 성경을 덜 알고 있을지는 몰라도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것에 순종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게 되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만 했고, 무엇을 할 수 있었는지 모두 아시는 분께서 자신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판단하실 것입니다.

양쪽으로부터 다 들어보기 전에 판단하는 것은 어리석습니다. 모든 문제에는 세가지 측면이 존재합니다. 양 당사자의 측면이 있고 진실의 측면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부부가 각자 신앙상담을 하는데 마치 서로 다른 사람과 결혼한 것처럼 서로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많은 분열이나 다툼이 악한 상상으로부터 나옵니다. “저 사람은 그럴 것이다” 라는 잘못된 추측과 상상과 말을 옮기는 사람의 과장으로 인해 관계가 망가지는 것입니다.

## 6. 사람의 외모를 중시하지 말고 판단해야 합니다

우리는 의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판단해야 합니다. 다만 우리의 판단의 초점은 다른 사람이 아닌 자신이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을 보겠습니다. “사람들의 외모를 중시하지 아니하시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아버지를 너희가 부르며 간구할진대 너희가 여기에 잠시 머물러 있을 동안에 두려움 가운데 지내라.”(벧전 1:17)

사람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이 어떤 죄를 지으면 그 죄가 작은 문제라고 합니다. 그러나 자신이 싫어하는 사람이 같은 죄를 지으면 그 죄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의 아이가 잘못을 저지르면 부모가 제대로 교육하지 않아서 그런 거라고 합니다. 하지만 자신

의 아이가 잘못을 저지르면 그것은 그저 실수일 뿐이라고 합니다. 우리와 친하고 가까운 사람의 죄는 용납하고 용서하고 잊어버려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우리와 친하지 않거나 미워하는 사람의 죄는 확대하고 정죄하고 저주합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정치인이 정권을 잡으면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해야 한다고 하지만 싫어하는 정치인이 정권을 잡으면 억지로 복종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 이러한 것은 의로운 판단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어느 누구의 외모나 지위나 소유도 상관하지 않으시고 성경대로 판단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동일한 기준으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당신은 의롭게 판단하십니까? 사람의 외모를 중시하지 않고 판단하십니까? 모든 사람을 동일하게 용서해 줍니까? 모든 사람에 대해 동일하게 참아 줍니까?

## 7. 자신을 판단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을 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판단하려 하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고전 11:31)

이것은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자신을 판단해야 합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과 자신의 인생이 일치하는지,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살고 있는지 스스로 점검해 보고 판단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은 것은 죄입니다. 그 죄를 다시 갈보리 십자가 밑으로 가져 가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자신을 부인해야 합니다. 애착과 정욕을 모두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미리 판단하고 심판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 8.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동일한 기준으로 판단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판단해 봐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동일한 기준으로 자신을 판단해야 합니다. 다른 형제를 재는 동일한 기준으로 자신을 재야 합니다. 로마서 2장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오 판단하는 사람아, 네가 누구이든 변명할 수 없나니 이는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들을 행하므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에서 네 자신을 정죄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그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것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오 그런 일들 행하는 자들을 판단하고도 같은 일들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롬 2:1-3)

우리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그 동일한 기준에 의해 판단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판단해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한 일을 똑같이 하고 있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결국 스스로 자신을 정죄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자신에 대해 판단할 때는 매우 관대하지만 다른 사람들에 대해 판단할 때는 극도로 엄격합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지은 사람을 판단한다면 우리는 그것이 죄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동일한 죄를 지으면 우리는 결국 스스로 정죄하는 것입니다.

## 9. 다른 형제의 길에 걸림돌을 두었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운전면허 시험을 보러 가면 시력검사를 합니다. 왜냐하면 시력이 온전하지 않으면 교통상황을 제대로 판단할 수 없고 결국 운전을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어도 운전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제가 하려는 말을 싫어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이기 때문에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TV나 잡지나 인터넷이나 드라마나 구원받지 않은 친구나 거룩하지 않은 내용을 담고 있는 책은 당신의 판단력을 방해합니다. 거룩하지 않고 경건하지 않은 것이나 진리와 타협한 것으로는 마음과 생각을 건전하게 지킬 수 없습니다. 마음과 생각이 건전한 상태가 아니면 무엇이 성경적으로 바른 것인지, 혹은 잘못된 것인지 구분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 세상의 기준을 따르고 용납하다 보면 결국 교회 안으로 죄가 들어오게 됩니다.

정말 이상한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진리를 선포하고 죄를 지적하는 설교를 하면 상처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도 집에 가서 불륜을 소재로 삼은 드라마를 보고 간음과 음행을 소재로 삼은 영화를 보고 가요를 들으면서는 아무런 상처를 받지 않습니다. 죄를 지적하는 설교를 들으면 상처를 받았다고 하면서 죄를 장려하는 TV를 보고는 아무런 상처를 받지 않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돼 버린지 아십니까? 영적 감각이 완전히 무뎠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속사람이 아무런 영적 양식을 먹지 못하여 전혀 성장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바르게 판단하는 능력을 완전히 상실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들으면 상처를 입고 거짓되고 불경건하고 거룩하지 않은 것을 보고 들으면 낄낄대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수많은 백성들이 두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한 눈으로는 하나님을 보지만 다른 한쪽 눈으로는 세상을 봅니다. 그래서 제대로 판단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시선이 양분되어 판단력이 망가져버린 것입니다.

로마서 14장을 보겠습니다. “그런데 네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네 형제를 무시하느냐?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리라. 기록된바, 내가 살아 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굴복하고 모든 혀가 하나님에게 자백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이와 같이 우리 각 사람이 자신에 관하여 하나님께 회계 보고를 하리라.”(롬 14:10-12)

당신은 당신이 한 일, 한 말, 내린 결정에 대해 예수 그리스도께 설명할 수 있습니까? 왜 그 사람을 친구로 사귀었는지 주님께 설명할 수 있습니까? 왜 그것을 읽었는지 설명할 수 있습니까? 왜 그곳에 갔는지 설명할 수 있습니까? 왜 그 일을 했는지 설명할 수 있습니까? 성경이 사실이라면 당신은 언젠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며 당신의 인생에 대해 해명해야 합니다. 당신이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산 인생에 대해 회계보고를 해야 합니다.

당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믿는다면, 언젠가 우리가 한 모든 말과 행위와 생각에 대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회계보고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의 인생이 지금과는 완전히 달라지지 않을까요? 당신의 인생이 세상 사람들의 인생과 별로 다르지 않다면 당신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진정으로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다음 절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를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이것 즉 아무도 자기 형제의 길에 걸림돌이나 넘어질 기회를 두지 않을 것을 판단할지니라.”(13절) 우리는 자신이 다른 형제의 길에 걸림돌을 두었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당신은 바르게 판단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판단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세상을 바르게 판단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판단해야 합니다. 판단하지 않고는 살 수 없습니다. 당신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대로 판단해야 합니다. 당신이 모든 일에 대해서, 모든 사람에 대해서 바른 판단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 4. 좋은 관계를 위한 말씀

우리는 오늘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형제 자매 간에 어떻게 서로를 대하고 성경적인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형제 자매들 간에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구절들은 대부분은 아마 익숙하다고 생각하는 구절들이 것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구절들은 익숙하지만 우리의 삶과 괴리가 크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비극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문제가 무엇인지 알고 답이 무엇인지도 알지만 해결을 하지 못한 채 살아간다는 것보다 더 불행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다투고 싸운다면 차라리 이해는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하면서 서로 다투고 싸운다면 그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히 성경을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믿고 배우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말씀이 또한 믿는 너희 안에서 효력 있게 일하느니라.”(살전 2:13)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아는 것으로만 그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말씀을 믿어야만 우리 안에서 효력 있게 일할 수 있습니다. 만일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믿는다면 당신의 인생은 완전히 바뀔 것입니다.

우리는 현재 일어나는 일만을 다룰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과거를 되돌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인생은 그저 앞으로 나아갈 뿐이지 시간을 거슬러 뒤로 돌아 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당신이 과거에 어떻게 살았는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점은 우리 중 아무도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은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누구든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나만 과거의 모든 죄를 씻어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도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저는 오늘 10년 전 과거에 대한 이야기가 아닌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되는 우리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가정과 교회와 직장에서의 우리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가정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당신의 아내나 남편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 당신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문제는 가정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은 당신의 남편이나 아내를 교회에서 형제 자매를 대하듯 합당하게 대하고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집에서 남편이나 아내를 대하는 것보다 교회에서 형제 자매들을 대하는 게 훨씬 더 낫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정에서보다 교회에서 더 친절하고 공

손하고 예의 바르게 행동합니다. 교회에서는 영적으로 행동하지만 가정에서는 정반대로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교회에서 형제 자매들에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처럼 가정에서 남편이나 아내를 대한다면 우리의 가정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혁명이 일어날 것입니다.

자매님들이 교회에서 목사를 존경하는 것만큼 남편을 존경한다면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당신의 남편은 완전히 변하여 새 사람이 될 것입니다. 형제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목사에게 대하듯 아내에게 공손하게 대한다면 당신의 아내와 가정은 완전히 변할 것입니다.

저는 오늘 당신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들었으면 합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이 아닌 제 마음에 말씀해 주십시오.” 이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전하는 메시지를 듣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이 메시지는 그 형제가 들어야 해”, “이 메시지는 그 자매가 들어야 해”, “우리 남편이 들어야 해”, “우리 아내가 들어야 해” 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 마음을 움직여 주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라고 마음속으로 주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 1.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완성되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간증과 다른 형제 자매들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로마서 13장을 보겠습니다. “사랑은 자기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롬 13:10)

하나님께서서는 성경을 통해 자신의 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선하고 좋은 것들입니다. 문제는 누구도 하나님의 법에 온전히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지

않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한 마음으로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온전하게 하도록 내어드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왜 교회에서 다른 형제 자매들을 제대로 대하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왜 가정에서 남편이나 아내나 부모나 자식이 서로를 제대로 대하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완성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8절부터 보겠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누구에게든지 어떤 것도 빚지지 말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성취하였느니라. 너는 간음하지 말라” 왜 간음을 합니까? 아내나 남편에 대한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너는 살인하지 말라” 왜 살인을 합니까?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너는 도둑질하지 말라, 너는 거짓 증언하지 말라, 너는 탐내지 말라, 한 것과 어떤 다른 명령이 있을지라도 그것은, 너는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이 말씀 안에 간략하게 들어 있느니라.”

모든 범죄의 원인은 사랑의 부족에 있습니다. 만일 제가 당신에게 죄를 짓는다면 그것은 아직 사랑이 저의 마음을 온전하게 하지 못했다는 증거일 것입니다. 교회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문제는 “네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신 것처럼 제가 당신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신 것처럼 당신이 저를 사랑한다면 우리 교회는 온전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남편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신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고, 모든 아내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신 것처럼 남편을 사랑한다면 누구도 이혼하지 않을 것입니

다. 정말 이혼을 할 수밖에 없는 유일한 분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일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수도 없이 배반하고 제멋대로 살며 영적인 간음과 영적인 음행과 우상숭배를 수도 없이 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심지어 그분을 무시하며 살아갑니다. 만일 자신의 배우자를 쫓아버려야 할 정당한 이유를 가진 분이 있다면 바로 우리를 신부로 삼은 예수 그리스도이실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쫓아버리지 않으신지 아세요? 그분의 마음에는 온전한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누구 누구 때문에 교회에 가기 싫다고 하거나 누구 누구는 교회에서 사라져 버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다른 형제 자매에 대해 험담하고 그들의 잘못에 대해 이야기하기를 좋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묵상하지 않아도 다른 지체의 잘못과 실수는 묵상합니다. 신기하게도 이게 마음에 평안을 줄 때도 있습니다. 왜 다른 사람의 험담이나 하고 정죄나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을 지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만일 제가,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당신을 사랑하신다면 저는 당신에게 어떤 죄나 잘못도 저지르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제 마음에 충만하다면 저는 하나님의 법을 성취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싫어하는 사람의 죄나 잘못이나 실패는 확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 그러는지 아세요? 그 형제나 자매와 사이가 좋지 않은 이유를 모두 그 형제나 자매에게 돌리기 위함입니다. 나와 그 사람이 사이가 안 좋은 원인은 모두 그 사람에게 있다고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 교회에서 분열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어느 누군가의 잘못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잘못입니다. 만일 우리가 순수한 마음으로 서로를 사랑한다면 우리 교회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서로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한다면 아무도 서로에게 상처를 주거나 죄를 짓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 2. 약한 자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로마서 14장을 보겠습니다. “**믿음이 약한 자를 너희가 받아들이다 의심에 찬 논쟁은 하지 말라.**”(롬 14:1)

우리는 믿음이 약한 자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자신이 성경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진리를 붙들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아십니까? 모든 사람이 다 영적으로 성장한 그리스도인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성숙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무거운 짐을 질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약한 형제가 간절한 마음으로 당신의 도움을 기다리고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중요한 점은 교회에서 영적인 그리스도인은 가정에서도 영적인 그리스도인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영적이지 않다고 해서 함부로 대하는 것은 영적인 사람의 자세가 아닙니다. 자기처럼 교회에 열심히 다니지 않고 성경을 열심히 읽지 않는다고 남편을 못살게 구는 자매도 있습니다. 만일 당신이 영적인 사람이라면 약한 지체 앞에서 무릎을 꿇고 그를 섬겨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영적인 사람의 태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영적인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서는 가장 영적인 분이신데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오셔서 전혀 영적이지 않은 우리를 섬기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사람이 영적이지 않은 사람을

대하는 방법입니다. 비판하고 정죄하는 게 아니라 그의 부족한 점을 도와 주고 섬기는 게 바로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영적으로 어린 사람을 돕는 성경적인 방법입니다.

성경은 믿음이 약한 자를 정죄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비판하거나 쫓아 내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면박을 주거나 창피를 주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성경은 믿음이 약한 자를 받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서 도와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셋째 하늘에 앉아계신 채로 우리들에게 올라오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직접 이 세상으로 오셔서 우리를 받아들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받아들인 것보다 더 중요한 점은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주님을 솔하게 배반하는 우리를 위해 이 세상으로 오셔서 받아들여주신 것입니다. 비판하고 정죄하고 내쳐버리기는 쉽습니다. 주님께서서는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대하셨던 것처럼 다른 사람을 대하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을 받아들이세요. 영적으로 미숙하고 부족한 지체들을 받아들이세요. 잘못하고 실수하고 부족한 지체들을 받아들이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받아주신 것처럼 그러한 지체들을 받아들이세요. 그러면 우리 교회의 대부분의 문제들은 사라질 것입니다.

### 3. 다른 형제의 길에 있는 걸림돌을 제거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로마서 14:13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를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이것 즉 아무도 자기 형제의 길에 걸림돌이나 넘어질 기회를 두지 않을 것을 판단할지니라.”

성경은 우리가 무엇을 판단하지 말고 무엇을 판단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서로 판단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제를 찾아내는 것 자체는 잘못된 게 아니지만 오직 문제를 찾아내기만 한다면 그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문제가 무엇인지 보고 다른 형제가 그것으로 인해 넘어지지 않도록 그것을 어떻게 제거할 수 있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아, 저거 정말 문제야”, “저 형제는 정말 문제야”, “저 자매는 정말 문제야” 이런 얘기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형제가 넘어지지 않도록 걸림돌을 치워주는 일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우리가 다른 형제 자매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넘어지게 할 만한 것이 무엇인지 판단하고 그것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다른 형제가 왜 그렇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지 판단하지 말고 그 형제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게 도우라는 것입니다.

다른 형제의 길에 걸림돌을 두지 마세요. 장애물을 두지 마세요. 짐을 지우지 마세요. 걸림돌과 장애물을 치워주고 짐을 나눠주세요. 우리는 자신이 영적이라고 생각하면서도 다른 형제의 길을 막는 걸림돌을 치워주는 커녕 그저 바라만 보고 있거나 심지어 함정을 파놓고 어떻게 되나 지켜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전혀 영적인 것이 아닙니다. 다른 지체를 돕지 않는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약한 지체의 앞에 있는 걸림돌을 치워주지 않는 것은 영적인 게 아닙니다.

사탄은 우리가 신앙의 경주를 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많은 장애물을 가져다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다른 지체들 앞으로 장애물을 가져다 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른 지체 앞에 있는 걸림돌을 바라만 보고 있거나 지적만 하는 것은 마귀를 대적해서 영적 전쟁을 하는 게 아닙니다. 마귀가

다른 형제 앞에 가져다 놓은 그 걸림돌을 치워주는 게 영적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다른 형제 자매가 아무런 걸림돌이나 장애물이 없는 길을 가도록 도와야 합니다. 다른 형제 자매의 앞길을 막는 걸림돌이 있나 판단하고 그것을 제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문제는 다른 형제 자매의 앞을 막는 걸림돌을 제거해주시는커녕 우리 자신이 걸림돌이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형제 자매를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그의 앞에 있는 걸림돌을 어떻게 하면 제거할 수 있는지 판단하세요.

#### 4.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야 합니다

로마서 15장을 보겠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말씀입니다. 자신이 강한 사람이라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그런즉 우리 강한 자들은 마땅히 약한 자들의 연약함을 담당하고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하지 말아야 하리라.”(롬 15:1)

당신은 누구를 기쁘게 하기 원하시나요?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해야 합니다. 자신을 기쁘게 하려는 것은 성경적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을 섬기는 우상숭배에 지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자신의 방법만을 고집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것도 아니고 주님을 섬기는 것도 아닙니다.

자기 자신만을 기쁘게 하려고 하면 교회는 결코 바로 설 수 없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 주지 않는다고 해서 교회에서 분열을 일으키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어디에서도 만족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을 위한 교회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한 교회는 없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려는 것은 육신의 속성입니다. 육신은 다른 누구보다 항상 자신을 맨 앞에 둡니다. 육신은 항상 자신을 기쁘게 하려고 합니다. 자기를 기쁘게 하려고 하기 때문에 교회가 분열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기쁘게 하려고 하기 때문에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나는 것입니다.

당신이 스스로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한다면 자신을 기쁘게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세요. 도움이 필요한 형제 자매를 찾아서 도와주세요. 쓰러진 형제 자매를 찾아서 일으켜주세요. 육신은 이러한 일을 결코 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다른 형제 자매를 도와주고 쓰러진 사람을 일으켜 주는 것은 육신이 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발을 씻겨주고 섬기는 일은 육신이 원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왜 베드로가 주님을 위해 감옥에 갇혔는지 아세요? 왜 야고보가 주님을 위해 목 베임을 당했는지 아세요? 누군가의 더러운 발을 씻겨주고 누군가를 대신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는 사랑의 의미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 5. 악으로 악을 갚지 말아야 합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형제와 간증과 관계를 망쳐버리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보겠습니다. 이것은 매우 단순하지만 우리가 잘 생각하지 않는 말씀입니다. “조심하여 아무도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도 선하고 또 모든 사람에게 선한 것을 항상 따르라.”(살전 5:15)

우리의 관계가 망가지는 이유는 우리가 악을 악으로 갚기 때문입니다. 무엇인가 자신이 당했다고 생각하면 참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

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께 문제를 맡기지 않고 상대방에게 즉시 보복하고 싶어합니다. 똑같이 갚아주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취해야 할 태도가 아닙니다. 만일 당신이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그대로 갚아주신다면 당신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신이 행한 잘못에 대해 하나님께서 당신을 대해 주시기 원하는 대로 다른 사람이 잘못했을 때 대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서는 당신이 행한 대로 그대로 갚아주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셨고 오래 참으심으로 대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우리의 머리 위로 돌리지 않으시고 자신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우리가 받아야 할 벌을 대신 받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잘못을 우리에게 돌리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상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도 다른 사람을 그렇게 대하기 원하십니다.

당신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선으로 갚으세요. “형제님, 그 사람이 저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형제님이 몰라서 그래요.” “그 자매가 저에 대해 무슨 말을 하고 다니는지 형제님이 몰라서 그래요.” 아마 이렇게 항변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악을 다시 악으로 갚지 않으면 악은 거기서 끝나버립니다. 상대방 없이 혼자 논쟁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혼자 싸울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아무리 상대방이 싸우려고 해도 다툼에 응하지 않으면 악은 거기서 끝나버립니다.

## 6. 악의 모든 모양을 피해야 합니다

22절도 보겠습니다. “악의 모든 모양을 삼가라.” 예전에 뉴욕에서 장난감 총으로 무장한 사람이 경찰에 의해 사살된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기관총으로 무장한 강도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마침 실제와

똑같이 생긴 장난감 기관총을 가지고 그곳을 지나던 사람을 강도로 오인해 사살한 것입니다. 그 사람은 아무런 잘못도 없었습니다. 친구에게 장난을 치기 위해 진짜 총처럼 생긴 장난감 총을 가지고 길을 가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 사람은 실제로 누구에게도 아무런 위협이 되지 않았지만 그 사람의 겉모습이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결국 경찰의 총에 맞아 사망하게 되는 엄청난 일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이 사람은 경찰의 실수로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죽은 이유는 이 사람이 강도였기 때문이 아니라 강도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잘못을 행했기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 잘못을 행한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죽은 것입니다. 비록 옳다 할지라도 잘못되어 보인다면 그것으로 인해 관계가 파괴되고 형제 자매들이 상처를 입고 간증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 자체로는 잘못된 게 아니지만 잘못된 것처럼 보이는 일은 많습니다. 저는 아무리 목이 말라도 “보드카” 라고 써 있는 병에 물을 넣어 마시지는 않을 것입니다. 위스키 잔에 물을 따라 마시지도 않을 것입니다. 소주잔에 물을 따라 마시는 건 잘못된 게 아니지만 잘못된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간증을 위해, 악만 피하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악의 모든 모양조차 피해야 합니다. 당신이 어떻게 보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당신의 교회 지체들이 어떻게 보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무엇을 하느냐 못지 않게 그것이 어떻게 보이느냐 역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 7. 아무도 비방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의 관계를 파괴하고 간증을 망치는 게 또 무엇이 있을까요? 디도서 3장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명심하여 정사들과 권능들에게 복종하며 행정관들에게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을 하도록 준비하

게 하며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말다툼하는 자가 되지 말며 오직 부드러우며 모든 사람에게 온전히 온유함을 보이게 하라.”(딤후 3:1-2)

당신의 입에서 나간 말 한 마디로 인해 어떤 사람은 다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듣고 싶어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어떤 정치인을 비평하거나 험담하는 것을 듣고 그 사람을 지지하는 누군가는 당신이 하는 모든 말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비평은 정당한 것일 수도 있지만 당신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간증을 완전히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아무도 비방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누군가를 비방하는 것을 어떤 사람이 듣고 당신이 전하는 복음마저 거절해 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선거철에는 특정 정치인과 특정 정당을 지지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정치적인 성향으로 인해 저와 다른 견해를 가진 사람들이 제가 전하는 복음마저 거부해 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여당도 아니고 야당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에 비하면 이 세상 모든 일들은 사소한 것들입니다. 사소한 것들 때문에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진리를 전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주님께 무엇이라고 변명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떤 말을 하거나 글을 쓰고 나서 속이 시원하다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를 비웃고 조롱함으로 인해 통쾌하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말이나 글로 인해 누군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데 방해가 되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빌미를 준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주님께 어떤 변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아무도 비방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비방하는 것을 통해 인류가 유익을 얻었던 적은 단 한번도 없습니다. 저는 우리가 자

신의 생각을 버리고 단순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엄청난 일이 일어날 거라고 믿습니다.

## 8. 소문을 퍼뜨리지 말아야 합니다

무엇이 교회를 망치고 형제들 간의 관계를 망치는 것일까요? 바로 가십입니다. 친구에게는 말할 수 있으면서 예수님께는 말할 수 없는 게 있을까요? 잠언 18장을 보겠습니다. “소문을 퍼뜨리는 자의 말들은 상처들과 같아서 배 속의 가장 안쪽 부분들로 내려가느니라.”(잠 18:8)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간증만 망치는 게 아니라 자신의 간증도 망치는 것입니다. 한번 망가진 간증은 회복되기 어렵습니다. 잠언 20장도 보겠습니다. “소문을 퍼뜨리는 자처럼 두루 다니는 자는 은밀한 일들을 드러내나니 그런즉 입술로 아첨하는 자와 상관하지 말지니라.”(잠 20:19)

교회를 분열시키고 가장 빨리, 크게 무너뜨리는 게 무엇인지 아세요? 거짓 교리가 아닙니다. 게으름도 아닙니다. 바로 가십입니다. 가십을 통해 형제들 간에 불신이 오기 때문입니다. 불신이 오면 서로 대화를 나눌 수도 없고 교제를 나눌 수도 없고 함께 기도를 할 수도 없습니다. 결국 추측과 악한 생각과 분열만이 남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모든 소문을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문을 다 알아야 할 필요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너무 약해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거나 잊지 못하거나 쉽게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소문을 퍼뜨리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누군가 당신에게 소문을 퍼뜨리려고 하면 단호하게 거절하십시오.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대화를 나누려고 하면 단호하게 거절하세요. 예수님께서 듣고자 하지 않으시는 것은 당신도 듣고자 하지 마세요. 누군가 다른 사람에 대해 나쁜 이야기를 하려

고 하면 당사자가 있는 곳에서 얘기하자고 하세요.

왜 소문을 퍼뜨리면 안 되는지 아세요? 잠언 26장을 보세요. “나무가 없는 곳에서는 불이 꺼지는 것 같이 소문을 퍼뜨리는 자가 없는 곳에서는 다름이 그치느니라.”(잠 26:20)

소문을 퍼뜨리는 게 잘못된 일인 것만큼 소문을 듣는 것도 잘못된 일입니다. 소문을 들어주지 않으면 소문은 거기서 멈추게 되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22절을 보겠습니다. “소문을 퍼뜨리는 자의 말들은 상처들과 같아서 배 속의 가장 안쪽 부분들로 내려가느니라.” 이것은 잠언 18:8에서도 나온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말씀을 성경에 두 번이나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을 꺾어버리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다른 하나는 소문을 퍼뜨리는 자의 말들입니다. 저는 당신의 마음을 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꺾으기를 원합니다.

## 9. 자기만 의롭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는 가정을 가장 빠른 속도로 망치는 것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아이들을 가장 빨리 낙심시키고 망쳐버리는 것이고 동시에 교회를 가장 빠른 속도로 무너뜨려 버리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바로 비판하는 영입니다. 누군가와 원수가 되고 싶다면 그 사람이 하는 모든 것을 비판하면 됩니다. 누군가와 싸우고 싶다면 그 사람이 하는 모든 것을 비판하면 됩니다. 아이들이 당신을 미워하고 무시하고 당신의 권위로부터 빠져나가게 만들려면 아이가 하는 모든 것을 비판하면 됩니다. 다른 사람과 싸우고 싶거든 그 사람이 하는 모든 일을 비판하면 됩니다. 그 사람이 제대로 한 일에 대해서는 절대 언급하지 말고 그가 실패한 것과 그의 부족한 부분만을

계속 언급하면서 비판하면 결국 관계는 완전히 망가져 버리고 맙니다.

이사야서 65장을 보겠습니다. “이르기를, 너 스스로 서 있고 내게 가까이 오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하니라, 하나니 이런 자들은 내 코의 연기요, 하루 종일 타오르는 불이로다.”(사 65:5)

자신이 다른 형제 자매들보다 더 영적이고 경건하고 신실하고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는 게 자신의 임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성경을 아무리 뒤져봐도 성령의 열매 중에 비판은 찾지 못했습니다. 비판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준다는 말도 본적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비판의 은사를 주셨다는 것도 본 적이 없습니다. 교회에서 필요한 것은 비판이 아닌 기도입니다.

저의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 성령님의 일은 그 말씀을 통해 당신의 마음속에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 중 누구에게도 다른 형제 자매를 비판하라는 임무를 주신 적이 없습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의 인생이 아닌 당신의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진리를 주셨고 당신이 그 진리에 순종하는지 보고 계십니다. 다른 사람이 진리에 순종했는지 아닌지를 당신에게 묻지 않으실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다른 형제 자매들에게 힘을 주거나 격려하거나 도와줄 수 없다면, 제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간곡하게 부탁 드리는데 입을 닫고 조용히 계십시오.

누가복음 18장을 보세요. “또 그분께서 자기가 의롭다고 스스로 믿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어떤 자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시되,”(눅 18:9) 여기에 나오는 사람은 자기가 의롭다고 스스로 믿었습니다. 문제는 다른 사람들을 멸시했다는 데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은 결코 의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주신 가장 큰 명령도 지키지 못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큰 명령은 “너는 구령할지니라”가 아닙니다. “너는 헌금을 많이 할지니라”도 아닙니다. “너는 힘에 넘치도록 주님을 섬길지니라”도 아닙니다. 가장 큰 명령은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다음 절을 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는데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다른 하나는 세리더라. 바리새인은 서서 자기 홀로 이렇게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어, 내가 다른 사람들 곧 착취하는 자들과 불의한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더욱이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주일에 두 번 금식하고 내 모든 소유의 십일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어, 죄인인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하니라.”(10-13절)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해서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낫다는 결론을 내리는 것이 바로 바리새적인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도 이런 생각이 만연해 있습니다. 자신은 무엇 무엇을 했기 때문에, 혹은 무엇 무엇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누구보다 낫다고 생각합니다.

형제 자매의 관계를 망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악을 악으로 갚으려는 것, 즉 보복하려는 마음, 악의 모양, 다른 사람에 대해 악하게 말하는 것,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하는 것, 소문을 내고 돌아다니는 것, 그리고 비판하는 영입니다. 이것들이 바로 가정과 교회를 망치고 형제들간의 관계를 파괴하는 것들입니다.

## 10.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뒤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입으라. 사랑은 완전하게 매는 띠니라.”(골 3:14) 여기서 완전하다는 것은 죄가 없다는 게 아니라 온전하다는 의미입니다. 형제 자매들을 완전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요? 교회를 하나로 묶어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가정을 하나로 묶어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두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도, 누가 무슨 짓을 해도 사랑한다면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고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가정이든 교회든, 사랑이 하나로 묶어주며 완전하게 해 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가 다른 형제 자매들에게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가르쳐주시기를 원합니다.

만일 오늘 메시지를 듣고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을 생각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 안에서 역사할 수 없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살펴본 말씀들을 반복해서 보면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기억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된 사람이 될 것입니다. 당신도 그렇게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삶을 지배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 5. 성경적 우정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말씀들이 당신의 인생에 축복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 말씀들을 진지하게 받아들였으면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말씀들을 통해 당신의 인생을 인도해 주셨으면 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적 우정이라는 주제로 공부할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진정한 친구란 무엇인가를 살펴볼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과 인생에 관해 알아야 할 모든 것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성경적 우정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친구가 필요합니다. 당신도 친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친구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진실한 그리스도인의 친구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지만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과는

반대로 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리스도인과 이 세상은 진정한 친구가 될 수 없습니다. “너희 간음하는 남 자들과 간음하는 여자들아,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 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느니라.”(약 4:4)

## 1. 그리스도인은 친구가 많아야 합니다

진실한 그리스도인은 세상으로부터 미쳤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모든 것 을 반대한다는 소리도 듣습니다. 진실한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적합하지 않 다는 말도 듣습니다. 이제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잠언 14장을 보겠습니다. “가난한 자는 자기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으나 부유한 자 는 친구가 많으니라.”(잠 14:20)

성경은 부유한 자는 친구가 많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 세상에 서 친구가 많아야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분명 그리스도인이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부유한 자는 친구가 많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당신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당신과 저는 이 세상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부유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온 세상을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공동상속자들입니다. 우리의 아버지는 전 우주를 소유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필요한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공급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입을 것과 먹을 것과 쉴 곳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측량할 수 없을 정도의 복을 받았고 또 앞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복을 하나 하나 열거한다면 영원이라도 시 간이 모자랄 것입니다.

## 2. 그리스도인은 다정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우리를 어떻게 평가할지 몰라도 우리는 이 세상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극도로 부유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부유한 자는 친구가 많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누구든 진정한 친구를 사귀고 싶다면 우리에게로 와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진실한 친구를 사귀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오지 않는다면 우리가 무언가 잘못되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성경은 잠언 18장에서 그 이유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 친구를 두는 자는 반드시 자신을 다정한 자로 보여야 하나니 형제보다 더 친밀한 친구도 있느니라.”(잠 18:24)

이 세상 사람들은 함께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피우거나 즐기면서 친구가 됩니다. 함께 도박을 하거나 심지어 마약을 하면서 친구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유명하거나 권력이 있거나 많은 재물을 가진 사람과 친구가 되고 싶어합니다. 그런 사람들과 친해지려고 하거나 그런 사람을 소개시켜달라고 합니다. 당신이 돈을 가지고 있는 한 이 세상은 당신의 친구가 되려고 할 것입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부유한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그 부유함이 다른 사람들에게 넘쳐 흐르게 해야 합니다.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이 소유한 구원이 다른 사람들에게 넘쳐 흘러야 합니다. 당신의 기도는 응답 받는 기도입니까? 그렇다면 당신이 받은 응답이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 넘쳐야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좋은 것들을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이 받은 좋은 것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 넘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선하게 대해 주셨습니까? 그렇다면 당신도 다른 사람들을 선하게 대해 주어야 합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들은 자신들이 받은 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받은 구원과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주었고 그 결과 수천명이 교회로 더해졌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믿는 교리에는 확고했으나 다른 사람들에게는 다정하게 대했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의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신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막대한 축복들은 자랑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다정하게 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문학작품들을 보면 많은 재산을 가졌지만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고 다정하게 대하지 않기 때문에 혼자 외롭게 사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찰스 디킨스의 크리스마스 캐롤에 나오는 스크루지 영감일 것입니다. 많은 재산을 가졌지만 단 한 명의 친구도 없이 홀로 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쓸쓸히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자신이 받은 복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기보다는 혼자 누리려고 하다가 단 한 명의 친구도 사귀지 못하고 이 세상을 떠나고 마는 것입니다.

불행한 사실은 오늘날 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스크루지 영감처럼 살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엄청난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 복을 전혀 전해주지 않고 혼자 그 복을 독식하며 살아갑니다. 엄청난 부를 소유했음에도 다른 사람들에게 다정하게 대하지 않아 친구가 없습니다.

이것은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로부터 엄청난 복을 받았지만 오직 그 복을 자신들만 누리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자신들과 조금이라도 다르면 절대 용납하지 않고 정죄하고 비난하기에만 급급한 채 살아 갑니다. 자신들이 받은 복을 자랑하기는 바쁘지만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잔인하고 이

기적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부를 함께 상속하게 될 거면서, 다른 사람들을 그 축복으로 초대하지 않고 자기 혼자만 누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일 것입니다.

성경은 부유한 사람은 친구가 많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유한 자는, 당장은 친구가 많지 않아도 곧 많아지게 될 것입니다. 다만 많은 친구를 사귀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신을 다정한 자로 보여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 3. 참된 친구는 고난 받는 친구를 불쌍히 여깁니다

이제는 성경을 통해 참된 친구의 6가지 특징을 살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의하면, 만일 제가 당신의 진정한 친구라면 어떤 특정한 일을 할 것입니다. 당신도 저의 진정한 친구라면 저에게 같은 일을 할 것입니다. 첫 번째 일은 욥기 6장에 있습니다. “고난 받는 자를 그의 친구가 불쌍히 여길 것이로되 그가 전능자 두려워하기를 저버리는도다.”(욥 6:14)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참된 친구의 첫 번째 특징은 고난 받는 친구를 보면 불쌍히 여긴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친구를 걱정하고 염려해 준다는 것입니다. 신약성경에서는 이것을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고 슬피 우는 자들과 함께 슬피 울라는 말씀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롬 12:15). 바울은 함께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자로서 자신이 고난 받는 형제들과 함께 고난 받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겠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친구의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친구들은 당신이 잘 될 때는 친구로 남을 것입니다. 당신이 정상에 선 순간에는 서로 당신의 친구가 되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바닥으로 떨어지거나 당신에게 고난이 닥치오면 당신을 떠나 정상에 선 다

른 사람과 친구가 되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절대로 이래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누가복음 10장에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 참된 친구의 태도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참된 친구는 강도를 만나서 상처를 입고 길가에 버려져 죽어가고 있을 때 불쌍히 여겨주고 상처를 싸매주고 안전한 곳으로 데려다 주고 그의 필요를 공급해 주는 사람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은 참된 친구의 표본입니다.

이 세상에서 성공할 때는 누구나 친구가 되고 싶어합니다. 돈이 많고 건강할 때는 누구나 친구가 되고 싶어 합니다. 제가 당신에게 분명한 사실을 하나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언젠가 가진 돈을 모두 잃게 될 수도 있고 명예와 건강도 모두 잃게 될 수도 있습니다. 고난 받고 고통 중에 있게 될 수도 있습니다. 박해 받거나 실패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시험을 받거나 유혹에 빠지게 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참된 친구이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친구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인 친구가 필요합니다.

#### **4. 참된 친구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어떤 일을 행해 주셨는지 말해줍니다**

마가복음 5장을 보겠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서는 마귀 들렸던 사람에게서 마귀를 쫓아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분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마귀 들렸던 사람이 그분께 간구하여 자기가 그분과 함께 있을 것을 구하였으나 예수님께서 그를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네 친지들(친구들, friends)에게 돌아가 주께서 너를 위해 얼마나 큰일들을 행하시고 너를 불쌍히 여기셨는지 그들에게 고하라, 하시니”(막 5:18-19)

예수님께서서는 친구들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일을 행하셨는지 말하라고 하셨습니다. 참된 친구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얼마나 큰 일들을 행하시고 불쌍히 여기셨는지 말해줍니다. 참된 친구는 다른 사람들에게 간증을 합니다.

사람들은 종종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부끄러워합니다.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쉽지 않다고 합니다. 성경은 가장 먼저 친구들에게 간증을 하라고 합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고, 주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해 주셨는지 말하라고 합니다. 나를 사랑하고 아껴주는 친구들에게 가장 먼저 찾아가서 예수님에 대해 말해 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친구들에게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을 해 주셨는지 말해야 합니다.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강단에서 설교하는 것도 아니고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들도 모두 훌륭한 일이지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주님에 대해, 주님께서 당신에게 해 주신 일에 대해 전하는 것입니다.

친구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해 주셨는지 말하는 것은 비단 복음을 전하는 것에만 국한된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안에서 친구가 된 형제 자매들과 교제에 대한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다른 형제 자매들,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친구가 된 사람들과 교제를 나눌 때 다른 사람에 대해 험담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해 주셨는지를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얼마나 불쌍히 여겨주셨는지를 간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교제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만나서 그 자리에 없는 다른 형제 자

매의 험담을 하면서 교제를 하는 것은 나오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함께 모여 주님께서 자신들 안에서 얼마나 큰 일을 행하셨는지에 대해 간증을 하고 교제를 나눴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인의 교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서 행하신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불쌍히 여겨 주신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다른 형제 자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친구가 된 지체들에게 말해 주십시오. 당신의 참된 친구는 그것을 듣고 기뻐할 것입니다. 거짓된 친구는 다른 사람 험담하는 것을 기뻐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없는 곳에서는 당신에 대해 험담할 것입니다. 다른 그리스도인을 격려해 주십시오. 힘을 북돋워 주십시오. 서로가 격려하고 힘을 북돋워 주고 축복이 되는 것이 바로 성경적 교제입니다.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안에 있는 교만과 자기의입니다. 우리의 옛 사람은 낮아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죄인이었으며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에 대해 말하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옛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 대해 평가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얼마나 불쌍히 여겨주셨는지, 자신 안에 있던 마귀를 어떻게 쫓아내주셨는지 말하는 것을 부끄러워합니다. 그런 얘기를 하면 자신의 체면이 땅에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점을 명심하세요. 내가 낮아질수록 주님을 높일 수 있습니다. 내가 높아지는 곳에서는 주님께서 높아지실 수 없습니다.

## 5. 참된 친구는 언제나 사랑합니다

참된 친구는 주님께서 자신에게 어떤 일을 해 주셨는지 얘기해 줍니다. 이제 잠언 17장과 마태복음 26장을 보겠습니다. 먼저 잠언 17장을 보겠습니다

다. “친구는 언제나 사랑하며 형제는 어려운 때를 위하여 태어났느니라.”(잠 17:17)

성경은, 친구는 항상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통 혼인 서약은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부유할 때나 빈궁할 때나, 늘 함께해야 한다”고 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참된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참된 친구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늘, 언제나 사랑합니다.

만일 제가 지금 당신의 친구라면 저는 언제나 당신의 친구일 것입니다. 당신도 저의 친구라면 언제나 저의 친구여야 합니다. 성경에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을 보겠습니다. “그분께서 아직 말씀하실 때에, 보라, 열둘 중의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수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보낸 큰 무리가 칼과 몽둥이를 가지고 그와 함께하였더라. 이제 그분을 배반한 자가 그들에게 표적을 주며 이르되, 내가 입을 맞추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니 그를 단단히 붙잡으라, 하고는 곧바로 예수님께 나아와, 선생님이여, 안녕 하시옵니까, 하고 그분께 입을 맞추니라. 예수님께서서 그에게 이르시되, 친구여, 네가 무슨 까닭으로 왔느냐? 하시매 그때에 그들이 와서 예수님께 손을 대어 그분을 붙잡거늘”(마 26:47-50)

예수님께서서는 가롯 유다를 친구로 대해주셨습니다.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죽음에 넘겨주고 살인자들의 손에 넘겨주었다는 사실도 가롯 유다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바꿀 수는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끝까지 유다를 친구로 대해주셨던 것입니다.

자신을 배반하고 악하게 대하는 사람에게 선하게 대하고 친구처럼 대해주는 것은 분명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고귀한 일임에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일이기 때문입니다. 당신도

주님께서 하셨던 것과 똑같이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광의 소망이신 주님께서 당신 안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주님께 자신을 내어 드린다면 당신은 주님께서 다른 사람들을 참아주시고 사랑하신 것처럼 당신도 동일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을 배반하고 악하게 대하는 사람에게도 선하게 대해주어야 합니다. 이런 말을 하면 어떤 분은 이렇게 항변할 것입니다. “형제님은 그 사람이 저에게 어떤 짓을 했는지 몰라서 그래요.” 예, 저는 그 사람이 당신에게 어떤 짓을 했는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어떤 짓을 했는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자신을 배반하고 죽이려고 한 사람에게도 끝까지 친구로 대해주셨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당신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예수님처럼 선으로 갚아야 합니다. 당신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예, 당신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서는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 6. 참된 친구는 필요한 때에는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참된 친구는 항상 사랑합니다. 다시 잠언으로 돌아가서 27장을 보겠습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주목해야 할 문장이 나옵니다. “친구가 주는 상처는 믿음직하나 원수의 입맞춤은 속임수가 가득하니라.”(잠 27:6) 참된 친구의 또 다른 특징은 필요한 때에는 상처를 주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참된 친구는 필요한 경우에는 당신에게 상처를 주기도 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항상 듣기에 좋은 말만 해야 친구라고 생각합니다. 긍정적인 것만을 말해야 진짜 친구라고 생각합니다. 잘못했을 때에도 지적해주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비성경적으로 행동하고 죄를 지어도 눈감아 주는

게 친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에 의하면 참된 친구는 잘못을 지적해 주어야 합니다. 비록 그것이 상처를 준다 해도 말입니다. 설교자는 회중의 참된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설교자는 회중의 죄를 지적하고 경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죄를 짓고 있고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제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무런 경고도 하지 않는다면 저는 올바른 설교자도 아니고 당신의 친구도 아닙니다.

참된 부모는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가만히 보고만 있지 않습니다. 자녀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경고하고 권면합니다. 아내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남편이라면 아내가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그저 바라만 보고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진정한 친구는 바른 마음을 가지고 바른 말을 바른 방법으로 해 줍니다. “형제님, 형제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려는 건 아니지만 한마디 해야겠습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제가 더 나은 사람이기 때문은 아닙니다. 하지만 형제님이 잘못된 일을 하고 있는 거 같아 도저히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친구의 잘못을 지적하면 친구를 잃어버릴지도 모른다고 걱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만일 참된 친구라면 잘못을 지적했다고 해서 잃어버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잘못을 지적하니 떠나갔다면 처음부터 참된 친구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참된 친구는 항상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레스터 롤로프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은 당신이 집니다. 저는 저의 행동에 대한 책임만을 질 뿐입니다.” 제가 성경적으로 바른 지적을 했는데 당신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참된 친구는 비록 상처를 주게 된다 할지라도 친구가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가만히 지켜보지 않고 바른 말을 해 준다는 것입니다.

진실은 상처를 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면 결국 주님 앞에서 바르게 설 수 있게 됩니다. 참된 친구는 지금 당장은 상처를 줄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 주님 앞에서 바르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비록 상처가 되고 아플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바로 잡힐 필요가 있습니다. 이 일은 때로는 원수를 통해, 그리고 때로는 참된 친구를 통해 일어나기도 합니다. 제가 당신의 참된 친구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당신에게 상처를 주게 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당신이 저의 참된 친구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저에게 상처를 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 당신과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당신의 죄를 지적하지 않거나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아무런 경고도 하지 않는 설교자는 당신의 참된 친구가 아닙니다. 우리가 서로 참된 친구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경고하고 권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중 누구도 완벽하거나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을 가지고 우리의 잘못을 지적해 주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친구에 대해 주님께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를 세워주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만 우리를 바로 잡아 주시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원수의 입술을 통해, 때로는 친구의 입술을 통해 우리를 바로 잡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친구를 책망하거나 조언을 주거나 경고를 할 때에는 사랑을 가지고 온유하게 해야 합니다. 사랑을 가지고 하느냐 사랑 없이 하느냐는 엄청난 차이를 가져옵니다.

상대방을 공개적으로 망신 주는 것은 사랑으로 조언이나 책망이나 경고를 하는 게 아닙니다. 친구가 아무도 모르는 죄를 지었다면 개인적인 자리

에서 권면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친구가 바르게 세워질 수 있습니다. 진리를 전하는 것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진리를 전하는 방법입니다. 시기와 다툼과 증오로 진리를 전할 수도 있고 사랑으로 진리를 전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어떠한 마음으로 진리를 전해야 하는지 쉽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 7. 참된 친구는 친구를 예리하게 만들어 줍니다

다시 잠언 27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쇠가 쇠를 예리하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자기 친구의 얼굴을 예리하게 하느니라.”(잠 27:17)

쇠를 예리하게 하기 위해서는 다른 쇠와 마찰을 일으켜야 합니다. 쇠의 입장에서 이것은 엄청난 고통을 감수해야만 하는 일일 것입니다. 성경에 의하면 당신과 제가 참된 친구라면, 우리는 함께 시간을 보낼 것이고 교제를 나눌 것이며 서로가 조언을 주고 서로가 서로를 섬길 것입니다. 때로는 이렇게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게 고통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저에게 고통을 주고 제가 당신에게 고통을 줄 수도 있습니다. 서로가 고통을 준다고 해서 친구가 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과정을 통해 단련된 금속이 되며 정금같이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쇠로 쇠를 예리하게 할 때 불꽃이 튀는 이유는, 날이 모두 바른 방향으로 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친구가 친구를 바르게 할 때 고통이 동반되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아직 바르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방법으로 우리의 모든 부분이 바르게 되도록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 친구가 필요한 것입니다.

## 8. 아버지의 친구를 저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참된 친구는 친구를 불쌍히 여기고, 그에게 하나님께서 해 주신 일에 대해 간증을 하며, 항상 사랑하고, 때로는 상처를 줄 때도 있고, 서로 함께 하는 것을 통해 예리하게 만들어 줍니다. 이제 친구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두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잠언 27장을 보겠습니다. “네 친구와 네 아버지의 친구를 저버리지 말며 네 재난의 날에 네 형제의 집에 들어가지 말라. 가까이 있는 이웃이 멀리 있는 형제보다 나으니라.”(잠 27:10)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게 무엇입니까? 당신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고난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친구를 찾았다면 굳게 붙들고 저버리지 마십시오. 그러면 그 친구들도 재난의 날에 당신을 도울 것입니다.

아버지의 친구들이 어떤 사람이건 상관없이 그들을 멸시하거나 무시하지 마십시오. 아버지의 친구들과 친구가 되십시오. 당신이 직장을 구하거나 자동차를 구매할 때 그들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아무런 대가 없이 친구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당신을 환대하며 도울 것입니다. 아버지의 친구를 저버리지 마십시오. 이것은 매우 실제적이고 좋은 조언입니다. 그리고 성경적인 조언이기도 합니다. 만일 이 세상에서 누군가가 친구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당신에게 친절하게 대한다면 절대 그들을 저버리지 마십시오.

## 9. 당신은 이 세상에서 환영 받지 못하는 사람들과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이제 친구관계에 대한 또 다른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 세대를 어디에 비유할까? 그것은 마치 장터에 앉

아 자기 동무들을 부르며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를 향해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아니하였고 우리가 너희를 향해 애곡하여도 너희가 애통하지 아니하였다, 하는 아이들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그가 마귀 들렸다, 하더니 사람의 아들이 와서 먹고 마시매 그들이 말하기를, 보라, 음식을 탐하는 자요, 포도즙을 많이 마시는 자요, 세리들과 죄인들의 친구로다, 하는도다. 그러나 지혜는 자기 자녀들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느니라, 하시니라.”(마 11:16-19)

친구관계에 대한 두 번째 말씀은 이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 간다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이 세상에서 환영 받지 못하고 거부되는 사람들과 친구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당신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세상에서 환영 받지 못하는 친구들로 인해 세상으로부터 조롱과 박해와 비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자 한다면, 당신은 주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이 세상에서 거부되고 환영 받지 못하고 조롱당하는 낮은 계층에 있는 사람들과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당신도 멸시와 천대를 받고 조롱을 당하고 심지어 수입이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 누구는 우리 교회에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사람이 오면 교회에 득이 될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지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득이 될 만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나아오는 자들을 아무도 내쫓지 않고 받아주셨다면 우리도 누구도 내쫓지 말고 모두 받아주어야 합니다. 아무런 죄도 없으신 저의 구원자께서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앉아 식사를 하시고 교제를 나누셨다면, 우리는 그 누구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당신의 기준으로 친구를 고르지 말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친구를 만들어야 합니다. 당신 스스로 친구를 찾지 말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사람들과 친구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관계에 주님께서 주신 사랑의 씨를 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언젠가 그 씨앗은 참된 우정이라는 풍성한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 10. 예수님께서 우리의 참된 친구가 되십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5장을 보겠습니다. “아무에게도 자기 친구들을 위해 자기 생명을 내놓는 것,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나니 무엇이든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을 너희가 행하면 너희가 나의 친구니라.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자기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오히려 내가 너희를 친구라 하였나니 이는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모든 것을 너희에게 알려 주었기 때문이라.”(요 15:13-15)

많은 사람들이 참된 친구를 찾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만족을 줄 참된 친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참된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이제 당신은 더 이상 외로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참된 친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과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이, 이 세상에 홀로 외롭게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참된 친구를 소개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서서는 다른 사람들이 참된 친구를 만날 수 있도록 당신이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에게 참된 친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참된 친구는 친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 놓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 놓으심으로 자신이 우리의 참된 친구가 된다는 사실을 입증하셨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참된 친구입니까? 그렇다면 이제 당신은 그분을 위해 당신의 인생을 내어놓아야 합니다. 당신은 주님을 위해 인생을 내어 놓을 수 있겠습니까? 참으로 안타까운 사실은, 모든 영광을 소유하신 예수님께서서는 자신의 인생을 우리를 위해 내어놓으셨는데,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우리는 주님을 위해 우리의 인생을 내어놓기를 아까워한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참된 친구입니까? 당신의 인생을 주님을 위해 내어놓으시겠습니까? 주님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 놓음으로 주님을 향한 당신의 사랑을 입증하시겠습니까?

## 6.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 1. 교회와 가정을 망치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분열이 마귀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마귀가 거짓 교리와 이단 교리를 교회로 들여와서 교회를 망칠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 세상이 교회를 공격한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세상과 타협하는 게 교회를 망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하면 전 우주에서 가장 현명한 자는 바로 마귀입니다. 마귀는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우리를 공격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귀는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자만과 교만과 시기와 자기 의를 통해 교회를 분열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짓 교리나 이단 교리보다 이러한 것들이 교회를 좀 더 효과적으로 망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

습니다. 마귀는 사자와 같은 힘은 없습니다. 단지 사자처럼 위장할 뿐입니다. 마귀는 유다 지파의 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힘은 없습니다. 단지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위장할 뿐입니다. 성경은 어디에서도 마귀가 그리스도인을 삼킬 수 있다고 말스한 적이 없습니다. 마귀는 사자가 아닙니다. 사자 같이 위장할 뿐입니다. 마귀는 그리스도인들을 삼킬 수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너희가 서로 물고 삼킬진대 너희가 서로에게 소멸되지 않도록 조심하라.”(갈 5:15) 마귀가 우리를 삼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서로 삼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의 결혼을 망치는 것은 마귀가 아닙니다. 육신적인 남편과 육신적인 아내가 결혼을 망치는 것입니다. 교회를 망치는 것은 마귀가 아닙니다. 육신적인 교회 회원들이 교회를 망치는 것입니다. 육신적인 형제와 육신적인 자매와 육신적인 집사와 육신적인 목사가 교회를 망치는 것입니다. 부모자식 관계를 망치는 것은 마귀가 아닙니다. 경건하지 못한 부모와 반항적인 자녀가 관계를 망치는 것입니다.

교회든 가정이든 망가진 관계의 원인은 마귀에게 있지 않습니다. 망가진 관계의 원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육신적인 사람들, 즉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입니다. 아마 전 우주에서 마귀만큼 억울한 존재도 없을 것입니다. 자신이 하지 않은 일에 대해 사람들이 거짓 고소를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구원받은 사람들이 마귀를 거짓 고소합니다. 마귀가 구원받은 사람들을 거짓 고소하는 것보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마귀를 거짓 고소하는 게 훨씬 더 많을 것입니다.

마귀가 한 일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대부분의 일들은, 사실 거울을 보면 나타나는 바로 그 인간이 한 일입니다. 저는 마귀가 저를 어떻게 공격할

지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주님의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입니다. 저는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의 몸 안에 속해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의 아버지의 허락이 없이는 마귀는 저에게 손가락 하나 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귀를 두려워하지도 않고 마귀가 저에게 무슨 짓을 할까 봐 염려하지도 않습니다.

저는 마귀에 대해 걱정하지 않습니다. 제가 걱정하는 저의 원수는 거울을 볼 때 마다 나타나는 한심한 인간입니다. 그게 바로 저의 원수입니다. 당신도 거울을 보시면 당신의 원수가 누구인지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원수는 바로 우리의 육신입니다. 사탄이 어떻게 교회를 공격하는지 아십니까? 마귀는 성도들 사이의 아직 작은 틈을 사용합니다. 그 틈을 후벼 파서 점점 더 크게 만듭니다.

## 2.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안 됩니다

야고보서 2장을 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고서 사람들의 외모를 중시하지 말라. 만일 너희 집회에 금반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오고 또 허름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화려한 옷을 입은 자에게 관심을 기울이며 그에게 이르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그 가난한 자에게 이르되, 거기 서 있든지 여기 내 발받침 밑에 앉으라, 하면 너희가 너희끼리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느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귀를 기울이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가난한 자들을 택하시라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왕국의 상속자들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너희는 가난한 자들을 업신여겼도다. 부자들은 너희를 학대

하고 재판석 앞으로 너희를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를 부를 때 쓰는 그 존귀한 이름을 모독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성경 기록에 따라, 너는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왕가의 법을 성취하면 잘하거니와 너희가 사람들의 외모를 중시하면 죄를 범하고 율법에 의해 범법자로 확정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한 조목이라도 어기면 모든 것에서 유죄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신 분께서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이제 네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법에 의해 심판 받을 자들처럼 말하고 행하라. 긍휼을 베풀지 않은 자는 긍휼 없는 심판을 받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기뻐하느니라.”(약 2:1-13)

오늘 우리가 공부할 말씀에 대해 우리가 바른 자세를 가졌으면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말씀은 바로 당신 개인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며 자신에 대해 생각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읽으며 다른 사람에게 대해 생각한다면 우리는 성경을 잘못 읽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구원받은, 사랑 받는 형제라면, 이 말씀은 바로 당신에 대한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무엇을 주의해야 하는지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우리가 방금 살펴본 야고보서 2장의 말씀은 무엇을 경고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것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면서 차별하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사람을 존중하는 것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존중하는 것은 전혀 잘못된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정죄하고 경고하는 것은 어떤 사람들은 존중하고, 어떤 사람들은 무시하는 태도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특정한 사람들만을 높이는 것을 경고합니다.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사람은 존중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업신여기는

것은 육신적인 일입니다. 물질을 가지고 사람을 나누는 기준이 바로 마귀가 그리스도인들의 교제를 깨뜨리고 교회를 분열시키기 위한 술책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사람이 가진 물질로 그 사람을 평가하고 존중하거나 업신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물질로 사람을 나누는 문제는 또 다른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질과 관련해서 교회를 분열시키는 또 다른 것은 바로 자기 의와 교만입니다. 교회에서 가난한 사람들이 부자들을 무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자들이 부자인 이유는 불의한 방법으로 재산을 증식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부자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세상에서 물질적인 축복을 약속하신 적이 없기 때문에 부자는 영적으로 바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부자는 가난한 사람을 무시합니다. 가난한 이유는 게으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과 자신은 레벨이 다르기 때문에 한 교회에 다니고 있기는 하지만 함께 어울리거나 교제를 나눌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 모두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물질의 풍요로움이나 빈곤함은 영적인 기준이나 척도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물질적인 풍요를 추구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빈곤을 추구하지도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물질은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아무런 기준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의 배경이나 전통이나 국적이나 재산이나 직업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교제를 나누는 데 아무런 기준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의 교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가족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의 교제는, 우리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만남을 가졌다는 사

실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교제는 여기에 기초합니다.

그런데 마귀는 우리의 공통점이 아닌 차이점에 주목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서로 다른 점을 지적하며 싸우게 하려고 합니다. 서로 다른 점을 확대하여, 그 다른 점으로 인해 도저히 교제를 할 수 없다고 생각하도록 만듭니다.

### 3.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을 선택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과는 다르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부유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잘 믿는 것과 재산의 많고 적음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부유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야 하는데, 그분은 부유한 분이셨지만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너희가 심지어 그 일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나니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에게 본을 남기사 너희가 자신의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벧전 2:21)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게니와 그분께서 부요하셨으나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자신의 가난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고후 8:9).

예수님께서서는 우리를 위해 가난하게 되셨는데 우리는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예수님을 위해 굶주리고 목마르게 되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위해 가난하게 살았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가난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세상의 가난한 자들을 택하셔서 믿음에 부요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약 2:5).

부자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다는 말을 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는 그런 말이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선택하시는 사람은 세상에서 가난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사람들은 좋은 직장이 있고 몸이 건강하고 재산을 가지고 있고 번영하는 한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것을 잃고 나서야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와 간구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건강한 사람보다는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사람이 더 간절한 기도를 할 것입니다. 먹을 게 넘쳐나는 사람보다는 그날의 양식을 걱정하는 사람이 더 간절한 기도를 할 것입니다. 진수성찬을 차려놓은 부자보다 간신히 마련한 밥상 앞에 앉은 사람이 더 간절한 기도를 할 것입니다.

너무나도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선택하여 믿음에 있어 부요하게 하십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부동산을 풍성하게 소유한 사람들은 대부분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간구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을 믿음으로 얻게 되는 유익이 무엇이나고 묻습니다. 이미 풍성한 양식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일용할 양식을 받을 필요도 없다고 합니다. 이미 많은 옷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필요도 없다고 합니다. 이 세상에서 이미 좋은 저택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저택을 마련할 필요도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의지할 게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주님께 매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가난한 게 저주일 수 있으나 좀 더 긴 안목을 가지고 본다면 오히려 축복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상태로 영원히 살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100년이 지나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소유했던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사는지도 물론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정말로 중요한 문제는 아닙니다. 그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산다 할 지라도 죽어서 지옥에 간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원하는 것을 다 이뤘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주님께 아무런 칭찬도 듣지 못하고 상급도 받지 못한다면 그것은 그저 낭비해 버린 헛된 인생에 지나지 않습니다.

삶과 죽음, 하늘나라와 지옥, 구원받음과 구원받지 못함, 가치 있는 인생과 그렇지 못한 인생을 나누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소유한 재산이나 물질이 아닙니다. 그것을 나누는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에 있습니다.

당신은 구원받은 부유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구원받은 가난한 사람입니까? 당신은 다른 사람을 재산으로 판단합니까, 아니면 믿음으로 판단합니까? 우리의 교제는 우리가 소유한 재산이 아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근거해야 합니다. 우리는 결코 물질을 얼마나 소유했는지 여부로 다른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모두 같은 운명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모두 같은 분을 만나고 같은 분과 영원히 함께 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을 기초로 교제를 나누고 친구를 사귀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소유하고 있는 것은 모두 일시적인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재산을 소유하고 있다 해도 일시적으로 가지고 있을 뿐입

니다. 가진 게 거의 없다 해도 그것은 일시적으로 아주 짧은 기간만 그렇게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각자의 분량에 맞게 나누어 주십니다. 누군가에게는 100 만원을 주고 누군가에게는 10만원을 주는 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당한 이유를 가지고 자신의 계획에 따라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사람이 소유한 것의 많고 적음에 따라 판단하거나 사람을 나눠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부유한 사람을 보면서, 저런 사람들이 교회에 좀 더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가난한 사람을 보면서, 저런 사람들은 교회에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사람이 소유한 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고 죽지 않으셨다면 재산이 많건 적건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지옥에 갔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기 전에는 재산이 많건 적건 그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유하게 하셨다면 주님의 영광을 위해 그것을 사용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을 가난하게 하셨다면 주님의 영광을 위해 그것을 사용하십시오. 사도 바울이 권면한 대로 당신이 처해있는 그 상태에 만족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내가 궁핍하므로 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어떤 처지에 있는지 거기에 만족하는 것을 내가 배웠노니”(빌 4:11) “그러나 만족하면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은 큰 이득이 되느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아니하였은즉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할 것이 확실하니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우리가 그것으로 만족할 것이니라.”(딤후 6:6-8)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에 만족해야 합니다. 가진 것에 만족하는 법을 배

워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가진 것으로 그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가진 것에 따라 사람을 차별하고 교제를 나눌지 말지 여부를 정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교제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재산을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다른 사람의 재산에 대해 판단하는 것도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 사람이 어떠한 방식으로 재산을 늘렸는지는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교제와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의 눈은 언제나 다른 사람의 소유물이나 재산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인 다운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 4. 다른 사람에게 관대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분열을 일으키는 또 다른 틈이 있습니다. 다시 야고보서 2장을 8절부터 보겠습니다. “너희가 성경 기록에 따라, 너는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왕가의 법을 성취하면 잘하거니와 너희가 사람들의 외모를 중시하면 죄를 범하고 율법에 의해 범법자로 확정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한 조목이라도 어기면 모든 것에서 유죄가 되나니”(약 2:8-10)

가정을 분열시키고 교회를 분열시키고 형제 자매들을 분열시키는 게 무엇인지 아세요? 자신의 죄에는 관대하면서 다른 사람의 죄는 조금도 용납하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담배를 피우는 남편이 술을 마시는 아내를 정죄합니다. 술을 마시는 부모가 록음악을 듣는 자녀를 정죄합니다. 죄를 짓는 남편이 죄를 짓는 아내를 정죄하고 죄를 짓는 아내가 죄를 짓는 자녀를 정

죄하고 죄를 짓는 성도가 죄를 짓는 목사를 정죄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판단하고 정죄하기 때문에 가정에 균열이 생기고 교회가 분열되고 형제 자매의 교제가 끊기는 것입니다.

교회가 분열되는 이유는 자신만이 의롭다고 생각하는 형제나 자매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만이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형제나 자매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만이 의롭고 거룩하기 때문에 자신이 하는 모든 일은 정당한 것이고 자신이 하지 않는 모든 일은 부당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하는 일을 다른 사람이 하지 않거나 반대로 자신이 하지 않는 일을 다른 사람이 하면 그 사람과 교제를 나눌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신과 같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교제의 기준이 자신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으로 인해 교회가 분열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이 자리에 오셔서 바른 사람들과만 교제를 나누려고 하신다면 우리 중 누가 예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과 우리 중 누가 더 상대방과 교제를 나누고 싶어할까요?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예수님께서 더욱 간절하게 우리와 교제를 나누기 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서는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자신의 피로 씻어 주시고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납하고 받아주셔야만 우리와 교제를 나누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잘못과 죄를 예수님보다 더 잘 찾을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의 잘못을 찾아내거나 판단하거나 심판하기보다 우리와 교제를 나누기 원하십니다. 물론 이 말은 예수님께서서 우리의 죄를 간과하신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서 우리의 죄를 다루시는 이유도 우리와 교제를 끊기 위함이 아니라 계속 교제를 나누고 더 깊은 교제를 나누

기 위함입니다.

제가 당신을 볼 때 두 가지 관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보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인 구원자로 받아들였다는 사실을 전제로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김을 받은 사람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당신이 누구이건 간에, 무엇을 소유하고 무엇을 소유하지 못했건 간에 저는 당신과 교제를 나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며, 저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김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김 받은 사람으로 본다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제가 당신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보지 않고 당신의 인생 자체를 본다면 저는 당신의 죄를 발견할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인의 모습과 일치하지 않는 당신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제가 하지 않는 짓을 하는 당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영적이지만 저 사람은 육신적이니 교제를 나눌 수 없겠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같은 교회에 다니지만 영적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교제를 나눌 수는 없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영적인 기준을 전혀 낮추지 않고서도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어 자신과는 비교할 수도 없이 비천한 사람들과 교제를 나눈 분에 대한 예를 들어볼까요? 온 세상을 창조하신 영광의 주님께서 계셨습니다. 그분은 알파와 오메가이시며 처음과 마지막이십니다. 옛적부터 계신 분이셨으며 영원하신 아버지였습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종의 형체를 취하셔서 사람의 모습이 되셨으며 이 세상에 오셔서 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군인들에게 매를 맞으시며 모욕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죽으시고 묻히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다 알고 있다. 하지만 나는 너희를 용서하고 너희와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 원한다.”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와 교제를 나누기 위해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다른 형제를 바라볼 때 예수님께서 보셨던 관점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형제들을 고소하는 자는 예수님과과는 다른 관점으로 봅니다. 그는 사악하고 더럽고 죄악에 찌들었으며 처음부터 살인자요 거짓말쟁이였습니다. 그는 마귀입니다. 그는 할 수만 있다면 전 인류를 파멸시키려고 하는 끔찍한 자입니다. 이 세상에 그보다 더 큰 죄를 지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는 인간을 정죄하고 고소하려고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의로우신 분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지적하시고 불의한 마귀가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의하면 정반대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하고 마귀는 우리를 고소하고 정죄하려고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끌고 가서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열거하면서 우리를 정죄합니다. 우리가 지은 죄를 거론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와 교제를 나누시는 것은 합당치 않다고 주장합니다. 우리가 한 말과 한 행위와 간 곳과 마음속으로 생각한 것들을 열거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와 교제를 나누시는 것은 합당치 않다고 주장합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우리가 예배 후에 주차장에서, 집에서, 차 안에서, 커피숍에서, 전화상으로 다른 사람들을 험담하고 판단하고 정죄한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저는 어떤 의미에서는 예수님께서 참 의아해하실 거라고 생각합

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서는 자신을 믿는 사람들, 즉 우리들에게 자신의 거룩한 영인 성령님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령님을 소유한 사람처럼 말하지 않고 더러운 마귀의 영을 소유한 사람처럼 말하기 때문입니다.

## 5. 형제들을 고소하는 자는 마귀입니다

왜 그런 걸까요? 왜 예수님의 영인 성령님을 소유한 사람이 예수님처럼 말하지 않고 마귀의 영을 소유한 사람처럼 말할까요? 왜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기 원하시는 분의 영을 소유한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기 원하는 마귀의 영을 소유한 사람처럼 생각하고 말하는 것일까요? 당신은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게 아니라 육신에게 내어주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고소하고 헐담하는 것은 성령님께서로부터 나온 게 아닙니다. 그것의 출처는 바로 육신입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도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고소하고 헐담하는 것은 잘 합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지 않은 사람도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구원받은 사람도 이 육신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구원받은 사람이 자신을 성령님께 내어드리는 게 아니라 육신에 내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대하지 못하고 마귀처럼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받아주지 못하고 마귀처럼 정죄하고 고소하는 것입니다.

형제들을 고소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마귀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구원과 힘과 우리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

의 그리스도의 권능이 임하였도다. 우리 형제들을 고소하는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으로 그들을 고소하던 자가 쫓겨났도다.”(계 12:10)

그렇다면 형제들을 용서하고 은혜를 베풀고 자비를 베풀고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 원하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형제들을 참아주고 용납하고 받아주는 분은 누구입니까?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형제님들, 당신과 결혼한 여자는 비록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아직 예수 그리스도처럼 변화되지는 못한 사람입니다. 자매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과 결혼한 남자는, 만일 그가 구원받았다면 휴거 되어 변화 받은 이후라야 완전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당신이 구원받은 사람과 결혼했다 할지라도 완전한 사람과 결혼한 것은 아닙니다. 당신은 나중에 그리스도의 심판석 이후에 완전한 분과 결혼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과 결혼을 하게 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당신의 남편은 아무리 잘난 체를 해도 결코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과 함께 모여있는 사람들은 완벽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구원받았지만 아직 완벽해지지 않았습시다. 당신처럼 말입니다. 구원받았지만 아직 죄를 짓고 삽니다. 당신처럼 말입니다.

## 6.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대로 우리도 판단을 받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교회와 가정에서 서로 이렇게 대해야 합니다. 12절을 보세요. “너희는 자유의 법에 의해 심판 받을 자들처럼 말하고 행하라. 긍휼을 베풀지 않은 자는 긍휼 없는 심판을 받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기뻐하느니라.”(약 2:12-13)

저는 우리 중 구원받고 나서 단 한번도 죄를 지은 적이 없는 사람은 없

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에도 자신의 죄에는 관대하면서 다른 사람의 죄에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댁니다. 우리는 자신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은 완벽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자신은 완벽한 남편이 아니면서 아내는 완벽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은 완벽한 아내가 아니면서 남편은 완벽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은 완벽한 자녀가 아니면서 부모는 완벽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은 완벽한 부모가 아니면서 자녀는 완벽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은 완벽한 성도가 아니면서 목사는 완벽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은 완벽한 목사가 아니면서 성도는 완벽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이것은 위선자의 태도이지 그리스도인의 태도가 아닙니다. 야고보서에 의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한 그 기준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판단을 받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전혀 공흠을 베풀지 않고 다른 형제를 판단했다면, 당신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공흠이 없는 판단을 받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공흠을 가지고 다른 형제들을 대했다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당신은 공흠이 넘치는 판단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야고보서의 논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떤 원칙을 가지고 대해야 할까요? 사람들이 가장 잘못 인용하는 구절이 바로 마태복음 7장에 있습니다. “너희가 판단을 받지 아니하도록 판단하지 말라.”(마 7:1)

이 구절 하나만 떼어서 인용하면 이 구절이 의미하는 것과 정반대의 주장을 하게 되며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키는 게 됩니다. 이 구절은 결코 아무런 판단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마태복음 7:1은 문맥에 맞게 이해해야 합니다. 2절부터 보겠습니다. “너희가 무슨 판단으로 판단하든 그것대로 판단을 받고 너희가 무슨 척도로 재든 그것대로 너희가 다시 평가를 받으리

라. 너는 어찌하여 네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깊이 생각하지 못하느냐? 혹은, 보라, 네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네가 어찌 네 형제에게 이르기를, 내가 네 눈에서 티를 빼내게 하라, 하려느냐? 너 위선자여, 먼저 네 눈에서 들보를 빼내어라. 그 뒤에야 네가 분명하게 보고 네 형제의 눈에서 티를 빼내리라.” (마 7:2-5)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모두 언젠가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거기서 모두 주님의 판단을 받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무엇을 기준으로, 어떤 식으로 판단을 받게 되느냐입니다.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와 공훈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 중 누구도 구원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훈이 아니었다면 우리 중 누구도 하늘나라에 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가 잘 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와 공훈로 우리를 대해주셨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구원받고 나서도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와 공훈을 필요로 했던 것처럼 구원받고 나서도 은혜와 공훈을 필요로 합니다. 구원받기 전에도 하나님의 용서와 오래 참으심이 필요했던 것처럼 구원받은 후에도 주님의 용서와 오래 참으심이 필요합니다. 구원받기 전에도 관용이 필요했던 것처럼 구원받은 후에도 관용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던 것처럼 구원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휴거 되어 이 육신이 사라지고 주님처럼 변화되기 전에는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 자신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형제 자매들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가 자

신을 용납하는 것처럼 다른 형제 자매들을 용납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지만 언젠가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했던 그 기준을 가지고 우리를 판단하실 것입니다. 저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주님께 은혜를 입기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주님께서 저에게 자비롭게 대해주시기 원합니다. 저의 상황을 이해해주시고 저를 받아주시기 원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이 세상에서 제가 형제 자매들을 그렇게 대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우리가 황금률대로 살기 원하십니다.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해 주기를 바라는 대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대하기를 원하십니다. 당신이 어떤 사람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 대로 그 사람도 다른 사람에게 당신에 대해서 똑같은 방식으로 이야기한다면 당신은 기분이 어떠시겠습니까? 당신이 다른 사람들에 대해 말하는 대로 다른 사람도 당신에 대해 말하고 다닌다면 당신에 대한 좋은 소문이 퍼지겠습니까, 아니면 나쁜 소문이 퍼지겠습니까?

주님께서서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우리에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대했는지 물으실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판단했는지 물으실 것입니다. 저는 제가 지금까지 다른 사람들을 대했던 것처럼 주님께서 저를 대하시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다른 사람을 판단했던 것처럼 주님께서 저를 판단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저는 주님께서 저에게 화를 내거나 제 험담을 하거나 저와 교제를 끊으시거나 저에 대해 나쁜 소문을 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주님께서 저에게 은혜와 긍휼과 자비와 인내로 대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으로 대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른 사람들을 은혜와 긍휼과 자비와 인내로 대해 주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사랑으로 대해 주어야 합니

다. 함부로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험담하거나 나쁜 소문을 내서는 안 됩니다.

## 7. 다른 사람이 아닌 스스로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바로 잡으라는 부르심을 받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부르심은 우리 자신을 바로 잡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 있나 다른 사람을 시험하지 말고 자신을 시험해야 합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살펴보고 너희 자신을 입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고후 13:5)

제 자신의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했을 때에는 다른 사람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면서 교제가 되지 않는 이유가 그 사람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문제는 다른 사람이 아닌 나 자신 안에 있습니다. 이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볼 수 있어야 비로소 다른 사람과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를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큰 사랑으로 인해 저를 받아들여 주셨습니다. 저를 선택하고 친절하게 대해 주셨고 은혜를 베풀어주셨고 오래 참아 주셨습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대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 안에서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당신의 남편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인내와 관용과 사랑입니다. 당신의 아내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해해 주고 오래 참아 주는 것입니다. 당신의 목사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인내해

주고 오래 참아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무엇을 해 주어야 하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용서해 주고 사랑해 주고 받아 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받아주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부자이든 가난하든, 성공했던 실패했던, 좋은 곳에 살건 나쁜 곳에 살건 상관없이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하나로 묶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처럼 우리끼리도 함께 걸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 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혼과 힘과 생각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자신을 사랑하듯 사랑하는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이렇게 한다면 당신은 언제나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을 것이고 다른 사람과 그리스도인다운 교제를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 7. 원수에 대한 태도

사무엘하 1장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에서 일어났던 일에 대해 잘 모르는 분을 위해 잠시 배경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통치할 왕으로 사울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사울은 주님께 합당한 마음을 가지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주님께 반역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대신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한 사람을 선택하십니다. 그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가는 사람인 다윗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대신할 사람으로 다윗을 선택하셨다는 것을 여러 가지 증거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다윗을 향해 쓴 뿌리를 가지게 되었고 그를 증오하게 되었습니다. 급기야 몇 년 후에는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피해 가족으로부터

떠나 오랫동안 굴이나 사막에서 피해있어야만 했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여러 번 만들었지만 죽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을 읽어보시면 사울이 마음 깊이 다윗을 미워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미워하면서 점점 더 비참해져 갔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원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원수는 사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잘못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한 번 생각해 보세요. 만일 당신 주위에 있는 사람 중에 몇 년에 걸쳐서 당신의 인생을 완전히 파멸시키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사울은 수년에 걸쳐서 다윗의 인생을 파멸시키려고 했습니다. 사울의 마음은 다윗이 자신의 왕국을 빼앗아 갈 것이라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년에 걸쳐 계속 다윗을 추격하며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결국 사울은 전쟁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는 사울이 전사했다는 소식을 들은 다윗의 반응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은 여기서 매우 놀라운 반응을 보여줍니다. 사무엘하 1장을 보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으며 그와 함께 있던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주의 백성과 이스라엘의 집이 칼에 쓰러졌음으로 인하여 그들이 저녁때까지 그들을 위해 애곡하고 슬피 울며 금식하니라.”(삼하 1:11-12)

우리는 여기서 이 사건 자체를 다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따라서 건너 뛰고 17절부터 보겠습니다. “다윗이 이 애가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위해 애곡하고”(17절) 23절도 보겠습니다. “사울과 요나단이 살아 있을 때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들이더니 그들이 죽을 때에도 나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이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너희 이스라엘의 딸들아, 사

울을 위하여 울지어다. 그가 주홍색 옷으로, 다른 즐거움으로 너희에게 옷 입혔고 금 노리개를 너희 옷에 달아 주었도다.”(23-24절) 27절도 보겠습니다. “어찌 강력한 자들이 쓰러졌으며 전쟁 무기가 멸망하였는가!”(27절) 이것은 자신의 원수의 죽음에 대한 다윗의 매우 놀라운 반응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당신이 구원받고 나서 시간이 지날수록, 주님과 더 오랜 시간 동행할수록,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머리로 이해하기에는 한량없이 크신 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구원받은 지 아무리 오래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완전히 파악한 사람은 없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하나님 앞에 완전히 발가벗은 것처럼 서 있다는 것을 깨달을 뿐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을 완전히 깨달아 알게 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성경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이 정말 그런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마음이란 과연 어떤 마음인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심판을 집행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집행하시는 이유는 그렇게 하셔야만 하기 때문이지 원해서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점입니다.

이 세상에서 전혀 쓸모가 없고 오히려 악만 끼치는 최악의 죄인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도 용서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도 멸망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구원받았건 구원받지 않았건 상관없이 육체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러한 마음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악을 행한 사람이 망하는 것을 보면 마음속으로 기뻐합니다. 이것은 매우 인간적인 반응입니다. 하지만 하

나님의 반응은 전혀 다릅니다.

사무엘하 1장에서 보여준 사울의 죽음에 대한 다윗의 반응은 하나님의 마음을 잘 보여줍니다. 다윗의 마음은 하나님을 따라갔을 뿐이었습니다. 사울의 죽음을 보고 먼저 슬퍼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배반하여 원수들의 손에 팔아 넘기려는 가롯 유다를 보고 친구라고 부르셨습니다. 만일 제가 그 자리에서 예수님처럼 배반을 당했다면 저는 유다를 보고 친구라고 부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유다가 그 가증스런 입맞춤을 한 후에 그의 눈을 보면서 친구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마음으로 그를 친구라고 부르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점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대적하여 죄를 지었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저의 수준으로 낮아지지는 않으셨습니다. 저는 주님께 죄를 짓고 무례를 범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주님께서 저의 수준으로 오셔서 똑같이 저에게 되갚아주지는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그 어떤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주님은 항상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고 깨끗하시고 죄인들로부터는 분리되어 계셨습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옥에 보내실 수 있느냐고 묻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매우 잘못된 질문입니다. 바른 질문은, 어떻게 사람들은 사랑의 하나님을 저버리고 지옥에 갈 수 있는가가 되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마치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인간이 지옥에 가는 원인이 하나님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인간이 지옥에 가는 이유는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자신이 죄를 짓기 때문이며 게다가 구원의 길을 마련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렸기 때문입니다.

에스겔서 18장을 보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사악한 자가 죽는 것을 내가 조금이라도 기뻐하겠느냐? 그가 자기 길들에서 돌이켜 사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겔 18:23)

사람들은 사랑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간을 지옥에 보내실 수 있느냐고 합니다. 어떻게 그런 끔찍한 일이 일어날 수 있게 하시느냐고 합니다. 어쩔 그렇게 하실 수 있느냐고 묻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질문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사악한 자가 죽는 것을 기뻐하시겠느냐고 사람들에게 물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악한 자의 죽음을 기뻐하지는 않으시지만 심판을 집행하실 수밖에 없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죄를 처벌하실 수밖에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에게 벌을 주실 수밖에 없으십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은 아닙니다. 회개하지 않고 죽는 죄인이 죽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적이 단 한번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해 지옥을 만드셨지 사람을 위해 지옥을 만들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만일 당신이 하나님이 아닌 마귀를 선택하여 지옥으로 가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전혀 기쁘시게 하는 일이 아닐 것입니다. 독자 중에는 구원 받지 않은 분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 중 누구도 지옥에 가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누군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마귀의 거짓말에 속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지옥으로 가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완전히 반대가 되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히틀러나 무솔리니나 스탈린이나 빈라덴을 보실 때 어떤 마음으로 보셨을까요? 분명한 점은 그들이 죽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잔치를 열지는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혀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미치광이 살인마 독재자가 죽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을 죽인 극도로 사악한 전범들이 마지막 숨을 몰아 쉴 때, 그리고 마침내 지옥으로 떨어져버릴 때 하나님께서는 전혀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만일 당신이 성경을 믿는다면, 당신은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정말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셨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느 누구도 지옥에 가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죽으셨다면, 이 세상에 속한 그 누구도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언제쯤 저런 마음을 갖게 될 수 있을까요? 얼마나 더 영적으로 자라 나아 원수를 향해 저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의로운 사람을 향해 저런 마음을 갖는 것은 쉽습니다. 나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사람을 향해서도 저런 마음을 갖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원수를 향해 저런 마음을 갖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독자 중에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인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않은 분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한 분도 있을 것입니다. 만일 그런 분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 알았으면 합니다. 성경은 에스겔서 33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살아 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사악한 자가 죽는 것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며 오히려 그 사악한 자가 자기 길에서 돌이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오 이스라엘의 집아, 너희는 돌이키라. 너희는 너희의 악한 길들에서 돌이키라.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하라.”(겔 33:11)

당신은 칼빈주의라는 말을 들어봤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잠시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계시록 4:11을 보면 모든 것들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존재하며 창조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모든 것이 주님의 기쁨을 위해 창조되었다면 어느 누구도 지옥에 가기로 정해진 사람을 없는 것입니다. 이 구절 하나로 칼빈주의는 더 이상 설 곳이 없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지옥에 가기로 정해졌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게 아닙니다. 어느 누구도 구원받을 기회조차 없었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들은 죄로 인해 죽게 되고 자신들이 지은 죄 때문에 지옥에 가게 됩니다. 사람들이 지옥에 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사악한 자가 죽는 것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며 오히려 그 사악한 자가 자기 길에서 돌이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너희는 돌이키라. 너희는 너희의 악한 길들에서 돌이키라.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하셨습니다. 당신에게도 회개하라고 하셨습니다. 만일 당신이 회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해야만 하는 일을 하실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죄에서 돌이키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의 심판자로서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을 하실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주님을 찾지 않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분은 정의를 집행하시는 분으로서 당신을 지옥으로 던져버리실 수밖에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누구가를 지옥으로 보내시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누군가를 지옥으로 보낼 때 즐거워하지도 않으십니다. 누군가를 지옥으로 보내는 일에서 기쁨을 찾지도 않으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미워하실까요? 그

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에게 미리 경고하셨습니다. 회개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경고를 받아들이고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경고를 하시고 회개를 촉구하시고 회개의 기회를 주신 이유는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사악한 자라도 자신의 죄 가운데 죽어 지옥에 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아무리 사악한 자가 죽는다 해도 하나님께서는 전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사악한 자가 죽는 것을 보고 기뻐해야 할까요? 우리의 원수가 망하는 것을 보고 즐거워해야 할까요? 만일 사악한 자가 죽는 것을 보고 기뻐하는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하늘나라에 간다면 사악한 자가 죽을 때마다 하늘나라에서 혼자 기뻐하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누군가 사악한 자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그가 지옥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그 사람은 그렇게 바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만일 사악한 사람이나 당신의 원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것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당신은 아직 갈 길이 먼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악한 자들이 죽어 지옥에 갈 때 그것을 비웃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게 아닙니다. 자신의 원수들에게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독기를 잔뜩 품은 채 십자가에 달리신 것도 아닙니다.

마태복음 23장을 보겠습니다. 이것은 좀 난해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여기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꾸짖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을 “위선자들”, “눈 먼 안내자들”, “어리석고 눈 먼 자들”, “회칠

한 돌무덤”, “뱀들”, 그리고 “독사들”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이것은 확실히 거친 말씀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들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불러도 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따르려면 자기가 원하는 특정한 부분만 떼어서 따르면 안 됩니다. 일관성 있게 그분의 모든 것을 따라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그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그분께서 품었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말보다 마음을 따르는 게 더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23장에서 주님께서서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33절을 보겠습니다. “뱀들아, 독사들의 세대야, 어찌 너희가 지옥의 정죄를 피하겠느냐?” 이제 이어지는 말씀에 주목해 보세요.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희에게 대언자들과 지혜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리니...”(34절) 왜 하나님께서는 뱀들과 독사들과 같은 사악한 자들에게 대언자들과 지혜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셨을까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서는 그들이 얼마나 사악한 자들인지 잘 아셨지만 아직도 그들이 변화되기를 원하시고 그들을 염려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희에게 대언자들과 지혜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리니 너희가 그들 중의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으며 그들 중의 더러는 너희 회당들에서 채찍질하고 이 도시에서 저 도시로 다니며 그들을 핍박하리라.”(34절) 왜 주님께서서는 사악한 자들을 위해 의로운 자들이 희생하게 하셨을까요? 사악한 자들이 구원받지 못한 채 죽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사악한 자들이 죽어서 지옥에 가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비록 독사들의 세대라 할지라도 자신들의 죄 가운데 죽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특히 복음을 전할 때는 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지 않은 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동성연애를 미워하시고 술 취하고 방탕한 것을 미워하시고 간음과 음행을 미워하시고 온갖 가증한 일들을 미워하십니다. 하지만 그러한 짓을 하는 자들이 자신들의 죄 가운데 죽어 지옥에 가는 것을 기뻐하지는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기 원하십니다. 우리도 사악한 죄인이었을 때 구원받은 것처럼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악한 죄인들도 구원받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다음 절을 보겠습니다. “그리하여 의로운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갸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모든 의로운 피가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모든 것이 이 세대에게 돌아가리라. 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대언자들을 죽이고 네게 보낸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자기 병아리들을 자기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얼마나 자주 네 자녀들을 함께 모으려 하였느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35-37절)

예수님께서서는 1절부터 33절까지는 성경에 나온 가장 강력한 표현을 사용하여 사악한 자들을 꾸짖으신 다음 34절부터 37절까지는 아직도 그들이 구원받게 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악한 자들을 꾸짖기는 하셨지만 아직도 그들을 마치 암탉이 자기 새끼들을 모으는 것같이 품에 안으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단순히 화를 내시며 사악한 자들을 꾸짖으신 게 아닙니다. 주님은 사람들이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꾸짖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증오로 가득 차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 그들로 인해 찢어질 듯한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가져야 할 마음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얻기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가려고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원수들을 위해 오래 참아 주시고 용서하시고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누군가 복음을 조롱하고 비웃으면서 거절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위해 또 다른 복음 전도자를 보내시고, 또 다른 사역자를 보내시고, 또 다른 전도자를 보내십니다. 그를 위해 또 다른 교회를 세우시고 또 다른 선교회를 조직하십니다. 복음을 거절한 그 사악한 자를 위해 다시 한번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그가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살아있는 동안 계속해서 기회를 제공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인들과 극도로 사악한 자들과 자신의 원수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매우 은혜로우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도 바로 이러한 마음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복음을 전해도 구원받는 사람이 별로 없다고 불평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복음을 열심히 전해도 아무런 열매가 없는데, 복음을 전하든 말든 누가 신경이나 쓰느냐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신경 쓰십니다. 주님께서는 수 천년 동안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들을 염려해 주고 계십니다. 대언자들을 죽이고 침례인 요한을 거부한 자들을 위해 염려해주고 계십니다. 그들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 놓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저의 마음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십니다. 당신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당신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처럼 원수들을 향해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구약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은 잔인하고 무서운 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당신 이 점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단 한번도 이스라엘 군대를 바빌론이나 페르시아나 유럽이나 아시아를 침공 하도록 보내신 적이 없습니다. 이교도들의 국가로 쳐들어가서 그들의 신전을 허물고 우상을 불살라버리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파괴하라고 하신 것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땅에만 해당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땅을 정결하게 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자신들의 땅을 벗어나서 이교도들의 우상을 파괴하라고 하신 적은 단 한번도 없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임무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신약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교회 내의 죄를 정결하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성경은 단 한번도 그리스도인들에게 낙태를 일삼는 세상 의사를 심판하라거나 동성연애자들을 혼내주라거나 우상숭배를 하는 사람들의 집을 폭파하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정결하게 하는 일은 교회 내에서 해야 합니다. 교회 밖에서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해야 할 뿐입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이교도들의 죄를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약시대에도 믿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을 정결하게 해야 합니다. 밖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리는 일을 해야 할 뿐입니다. 주님께서 교회 내에서 음행하는 자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는 말씀하셨지만 이 세상에서 음행하는 자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는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는 그들을 정죄하고 심판하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복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초청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세상의 악을 제거하는 게 우리의 임무가 아니라 그들

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하는 게 우리의 임무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말한바, 너는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한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마 5:43) 이 구절을 자세히 보시면, 주님께서 구약성경을 인용하신 게 아니라 사람들이 한 말을 인용하신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성경에서는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구절은 사람들이 레위기를 절반만 인용해서 자신들이 편리한대로 끼워 맞춘 것입니다. 레위기에는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레위기 19:18을 보세요. “너는 원수를 갚지 말고 네 백성의 자손들에게 불평하지 말며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주니라.”

다시 마태복음 5장으로 돌아와서 계속해서 다음 절을 보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들을 사랑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을 축복하고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선을 행하며 악의를 품고 너희를 다루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이들이 되리니 그분께서는 자신의 해를 악한 자와 선한 자 위에 떠오르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 위에 내려 주시느니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들을 사랑하면 무슨 보상을 받겠느냐? 세리들도 바로 그 일을 하지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문안하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하는 것이 무엇이냐? 세리들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44-48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원수를 사랑하고 저주하는 자들을 축복하고 미워하는 자들에게 선을 행하고 악의를 품고 다루며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한 분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었습니다. 만일 우리도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같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당신이 원수를 사랑하면 당신은 하나님과 같아지는 것입니다. 당신을 저주하는 자들을 축복하면 당신은 하나님과 같아지는 것입니다. 당신에게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선을 행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면 하나님과 같아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도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품지 않은 채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지 않은 채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을 하며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행하다가 지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실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전한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에게 화를 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무엇인가를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품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오랫동안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원수가 죽었을 때 옷을 찢으며 진심으로 슬퍼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가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사울의 죽음을 기뻐하지 않은 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악인의 죽음을 기뻐하지 않으셨던 것과 같았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속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우리나라의 안보를 위협하는 세력은 모두 이 세상에서 사라져 버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속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나라의 안보를 위협하는 사람들이 사라져 버리기를 바라지 말고 그들이 지옥에 가지 않고 구원받아 하늘나라에 가기를 바라야 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자본주의의 위대함이나 공산주의의 위험성에 대해 알리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알려줘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민주주의가 아니

라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민주주의 국가에 살면서도 지옥에 가는 사람은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지옥에 가는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 우리나라의 국민으로서 해야 하는 의무를 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하늘나라의 국민으로서 해야 하는 일을 가장 먼저 해야 한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민주시민으로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립한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선순위에 대해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전쟁으로, 교통사고로, 질병으로, 심장마비로, 아니면 늙어서 죽습니다. 죽으면 하늘나라에 가든지 지옥으로 가서 영원을 보냅니다. 이것은 정치적인 문제보다 훨씬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국가보다 훨씬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애국심보다 훨씬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민주주의보다 훨씬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온 세상을 민주주의로 만드는 것은 우리의 임무가 아닙니다. 우리의 임무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혼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해 오는 것입니다.

저는 대통령을 만나면 왜 정치를 그렇게 하느냐고 따지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것입니다. 저는 야당 총재를 만나면 왜 그렇게 대통령이 하는 일에 반대만 하느냐고 따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것입니다. 당신은 제가 하는 말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받은 사명은 뉴스에 나오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사명은 국회의사당에서 일어나는 일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

십니다(딤편 2:4). 당싢이 가진 모든 영향력을 사용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십시오. 당싢이 가진 모든 힘을 사용해서 누군가 멸망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말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받은 가장 고귀한 사명입니다. 이 세상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고귀한 사역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더 위대한 일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일들도 필요한 일이지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에베소서 4장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쁘게 하지 말라. 그분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봉인되었느니라.”(엡 4:30) 우리는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과 아들 하나님의 마음을 살렘했습니다. 여기서는 성령 하나님의 마음이 나옵니다. 계속해서 다음 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모든 쓴 것과 진노와 분노와 소리 지르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히 대하여 상냥한 마음을 품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31-32절)

여기서 말하는 악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다른 사람이 고통당하는 것을 원하는 마음이 바로 악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악의가 성령님을 슬쁘게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고통당하기를 당신이 원할 때 성령님은 슬퍼하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는 누군가 고통당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왜 이 세상에 계시는 걸까요? 왜 사람들의 죄를 지적하고 죄에 대한 찢림을 주시는 걸까요? 회개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오게 하기 위해 의에 대해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왜 다가올 심판에 대해 경고하시는지 아십니까? 그것을 피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성령님께서는 누구도 지옥에

가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가 그 기록하신 영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형제나 자매가 당신에게 죄를 짓거나 잘못을 행하면 당신 안에 있는 아담의 본성은 그 사람이 고통을 당했으면 좋겠다는 끔찍한 생각을 당신에게 줄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깨어있지 않는다면 당신은 그 생각을 받아들일 것입니다. “정말 좋은 생각이다.” 혹은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라거나, 아니면 “그래,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판하실 거야.”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잘못을 행하면 이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야. 오래 참으시는 분이야.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야. 그리스도인이라면 형제의 잘못은 용서해 주어야 해.”

자신이 더러운 죄를 지었을 때에는 다른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자신을 대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다른 형제가 죄를 지었을 때에는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하며 그 형제를 정죄합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할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의 죄가 폭로되고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의 정체를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자신이 죄를 지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죄를 용서받고 가려지기를 원합니다.

저는 저의 죄가 드러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저의 말과 생각과 행동과 마음을 다른 사람들이 알게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모든 죄와 말과 행동과 생각과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덮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저는 저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저를

사랑하기 때문에 제가 상처 입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만일 저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동일하다면 저는 당신을 이렇게 사랑할 것입니다. 당신이 상처받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잠언 24장을 보겠습니다. “네 원수가 넘어질 때에 기뻐하지 말며 그가 걸려 넘어질 때에 마음으로 즐거워하지 말지니 주께서 그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시 자신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염려하노라.”(잠 24:17-18)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렇습니다. 만일 악한 사람이 넘어지는데 제가 그것을 보고 기뻐하면 주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가 넘어지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의 심판자로서 자신이 해야 하는 일을 하실 뿐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세상의 질서를 잡으시고 인류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이름과 말씀과 의를 위해 해야만 하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느부갓네살이 짐승처럼 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땅이 고라를 집어삼키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거주민들을 불로 심판하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대홍수로 사람들을 멸망시키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누구도 멸망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누군가 멸망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는 것입니다. 죄인이 자신의 죄 가운데 죽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는 일입니다.

바로 이러한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저의 마음이 이러한 마음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합니다. 의와 심판에 대한 말씀도 선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

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죄의 값은 무엇인지에 대해 선포해야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원수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향해 가지고 계신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다시 사무엘하 1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다윗의 원수인 사울은 끔찍하게 죽었습니다. 20절을 보겠습니다. “그것을 가드에서 고하지 말며 아스글론 거리에서 알리지 말지어다.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이 기뻐하거나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의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하노라.”

다윗은 자신이 사울의 죽음에 기뻐하면 하나님의 원수들이 하는 것과 똑같이 행하는 것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원수들과 같이 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높은 도덕적 기준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우리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저주하는 자들을 축복하고 뺨박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단순히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단순히 진리를 선포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무한한 사랑을 가지고 계십니다. 로마서 5:5에서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에 의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넓게 부어졌기 때문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것은 우리 자신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의 친구에게 만이 아니라 원수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 8. 서로의 짐을 짐

갈라디아서 5장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곧 성령 안에서 걸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갈 5:16) 성경은 성령 안에서 걸으면 육신의 욕심이 다 사라진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절을 보겠습니다. “육신은 성령을 대적하여 욕심을 부리고 성령은 육신을 대적하나니 이 둘이 서로 반대가 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들을 너희가 능히 하지 못하느니라.”(17절) 17절은 육신 안에 있는 한 성령님을 따라 바르게 행할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동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이 주님을 섬기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당신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육신에게 자신을 내어주도록 하는 것도 바로 당신의 육신이라는 것입니다. 당신 안에

는 육신적인 사람과 영적인 사람, 두 사람이 있습니다. 둘 중 하나는 항상 불행한 상태로 있습니다. 둘 사이에는 항상 전투가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다음 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이제 육신의 행위들은 명백하니 이것들이라. 곧 간음과 음행과 부정함과 색욕과 우상 숭배와 마술과 증오와 불화와 경쟁과 진노와 다툼과 폭동과 이단 파당과 시기와 살인과 술 취함과 흥청댐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내가 또한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 같이 이것들에 대하여 미리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런 것들을 행하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하리라.”(18-21절)

여기서 중요한 게 무엇인지 보시기 바랍니다. 19절에서는 육신의 행위들이 명백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만일 당신이 항상 누군가를 지켜본다면 그 사람 안에 육신이 있다는 증거를 찾기가 그리 어렵지 않을 거라는 말입니다. 지금 성경은 육신에 대한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육체 안에 있는 사람은 완전히 영적으로 될 수도 없고 완전히 육신적으로 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으로 되려고 하면 육신이 방해로 되고 육신적으로 되려고 하면 다시 태어난 새사람이 방해로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만일 당신이 저를 관찰한다면 영적인 면도 볼 수 있고 육신적인 면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다음 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대적할 법이 없느니라.”(22-23절)

18절에 의하면 율법은 육신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을 대적할 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의 사역을 대적하는 법은 없습니다. 성령님께서서는 강제로 무엇인가를 하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당신은 누군가

를 위협해서 영적인 일을 하게 할 수 없습니다. 율법은 육신을 위협해서 불의한 일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서는 누군가를 위협해서 영적인 일을 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성령님께서서는 오직 자신을 내어드리는 사람 안에서만 일하실 수 있을 뿐입니다.

계속해서 다음 절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24절) 구원받은 사람 안에는 새로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 새로운 사람은 그리스도께 속했으며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하지만 옛 사람은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둘 사이에 전투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제 안에는 성령님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애착들과 정욕들을 육신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 안에는 육신도 있습니다. 이 육신은 계속해서 부패한 옛 생활을 즐기려고 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절을 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살면 또한 성령 안에서 걸을지니 우리가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시기하지 말지니라.”(25-26절)

여기까지가 6장을 들어가기 위한 서론입니다. 5장의 내용들은 6장을 설명하기 위한 것들입니다. 따라서 5장의 내용들은 6장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5장의 문맥은 우리가 무엇을 다뤄야 하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는 부패한 육신을 다뤄야 합니다. 우리의 육신은 구원받기 전에만 부패했던 게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인 지금도 부패한 상태 그대로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지금 현재도 부패한 상태이며 선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반면에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거룩하신 영께 내어 드리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과 오래 참음과 친절이 우리를 통해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전제로 6장이 시

작됩니다. “형제들아, 만일 어떤 사람이 잘못에 빠지거든 영적인 너희는 온유의 영으로 그러한 자를 회복시키고 네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에 들지 않게 하라. 너희는 서로 남의 짐들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어떤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면서 스스로 무엇이나 되는 것으로 생각하면 자기를 속이나니 오직 각 사람은 자기 일을 입증할지니라. 그리하면 그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 안에서만 기쁨을 누리리니 이는 각 사람이 자기 짐을 져야 할 것이기 때문이라.”(갈 6:1-5)

진정한 영적 능력은 아무런 짐도 지지 않을 때 드러나는 게 아니라 무거운 짐을 지고 있을 때 드러납니다. 성경은 갈라디아서 6:2에서 우리가 서로 다른 법에 매여 있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율법이나 어떤 특정한 법에 매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게도 그러한 법들은 육신을 제어하기 위한 것들이며 우리는 그러한 법의 통제를 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법에 매여 있습니다. 짐을 나눠지는 것과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게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짐을 짊어지신 것처럼 우리는 다른 형제 자매의 짐을 짊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법입니다. 그래서 서로의 짐을 짊어지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 무엇인가를 얻으려고만 한다면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입니다. 부부관계나 친구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방적으로 무엇인가를 얻으려고만 한다면 그 관계는 지속되지 못합니다. 부부관계가 서로의 짐을 나눠 지지 않고 한쪽의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하게 되면 결국 비참한 결말을 맞게 됩니다. 그러한 태도로 친구를 사귀려고 하면 결국 주위에 아무도 남아있지 않게 됩니다.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 안에 욕신이 있다는 게 사실이라면, 갈라디아서 6:1의 말씀대로 모든 사람들이 어느 순간 잘못에 빠지게 됩니다. 당신을 포함해서 당신이 아는 모든 사람은 언젠가 잘못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구원 받았든 그렇지 않은 상관없이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남편이 아무리 신실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언젠가는 잘못을 저지르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신실한 자매라 해도 언젠가는 잘못을 저지르게 될 것입니다.

당신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욕신을 입고 있습니다. 성경은 욕신의 일은 명백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과 6장의 문맥을 보면 구원받은 사람들도 욕신을 따라 욕신에게 자신을 내어주어 욕신의 행위를 할 때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그리고 경험을 통해 이것이 사실임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제가 하고자 하기만 하면 당신 모두의 잘못을 찾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잘못을 찾아내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결국 모든 사람의 잘못을 찾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하고자 하기만 한다면 저의 잘못을 쉽게 찾아낼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3이 의미하는 게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만일 당신이 자신도 잘못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면, 자신도 욕신적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면, 성경적 기독교가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1에서 말씀하시는 영적인 사람은, 자신이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영적인 사람은 자신은 잘못을 절대 저지르지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도 잘못을 저지를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자

신도 언제나 육신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다만 아직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발각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영적인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찾아내는 사람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찾아내는 것은 영적인 사람의 특징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영적인 사람은 다른 사람의 잘못을 보고 그것을 자신이 저야 할 짐으로 여기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 짐을 지려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영적인 사람의 특징입니다.

다른 사람이 육신적이라고 정죄하거나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찾아내는 것은 절대 영적인 게 아닙니다. 영적인 사람은 그런 일을 하지 않고 오히려 그런 사람을 돕고자 합니다. 자신이 대신 짐을 지고자 합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지적만 하는 것은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그러한 것은 성경적 기독교가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6:1-3에 의하면, 만일 어떤 사람이 잘못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보고도 돕지 않는다면 우리도 그 사람과 마찬가지로 잘못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 다 육신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육신 안에 있기 때문에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고, 다른 한 사람은 육신 안에 있기 때문에 돕지 않는 것입니다. 잘못을 저지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이고, 그를 돕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법을 어긴 것입니다. 어떤 게 더 큰 죄라고 생각하십니까? 인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법을 어긴 사람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이 인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을 참아주지 못한 사람입니까? 한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이고 다른 사람은 그리스도의 법을 어긴 것입니다.

누가 교회의 영적 성장을 막는지 아십니까? 다른 사람이 잘못하는 것을

찾아내려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입니다. 누가 교회에서 사랑이 넘치게 하고 축복이 되는지 아십니까? 다른 사람이 잘못을 할 때 그것을 정죄와 비판의 기회로 보는 게 아니라 섬김의 기회로 보는 사람입니다.

서로의 짐을 지는 것에 대해 좀 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제가 얼마나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지가 아니라 얼마나 그들을 염려해 주고 도와주려고 하는지입니다.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것은 제가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가졌는지가 아니라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는지입니다.

만일 당신의 아내가 육신적이라면 성경적 아내상에 관해 말씀하는 구절을 아무리 많이 보여준다 해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것입니다. 아내는 어떠한 해야 하는지에 관한 지식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다 해도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실행적인 진리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진리를 이론적으로 많이 안다 해도 아무것도 실행하지 못한다면 영적인 능력은 드러나지 못합니다.

욥기 5장을 보겠습니다. “고통은 티끌에서 생기지 아니하며 고난은 흙에서 솟아나지 아니할지라도 불티가 위로 날아가는 것 같이 사람은 고생하려고 태어나느니라.”(욥 5:6-7)

성경은 모든 사람의 인생에는 고난과 고통의 문제가 존재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신에게도 있고 당신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의 고난이나 문제를 보면서 그 사람을 도와주지 않고 판단만 하고 있다면 그것은 전혀 영적인 게 아니라 오히려 위선적이며 육신적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고난당하는 것을 보면서 저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생각한다면 다음 번에 당신이 고난당할 때 사람들은 당신을 보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욥기 14장을 보겠습니다. “여자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날수가 적고 괴로움으로 가득하며”(욥 14:1) 이 말씀은 인간에 대한 두 가지 사실을 진술하고 있습니다. 첫째, 모든 인간은 날수가 적다는 것입니다. 즉, 인생이 그리 길지 않다는 것입니다. 둘째, 그런데 그 짧은 인생이 괴로움으로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만일 욥기 14:1이 사실이라면,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날수가 적고 그 짧은 인생이 괴로움으로 가득하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섬길 엄청난 기회를 갖게 되는 셈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당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괴로움으로 가득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신은 그들을 돕고 그들에게 복이 될 수 있는 엄청난 기회를 부여 받은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항상 있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는 사람은 항상 있었습니다. 고난과 문제로 허덕이는 사람은 항상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항상 고통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영적이라고 하면서 그저 다른 사람들을 비판만 하고 있다면 그것이 어떤 유익을 줄 수 있겠습니까? 방문하고 위로하고 섬기고 얘기를 들어주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설교를 하거나 성경 구절을 인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야기를 들어주고 위로해주고 함께 해 주는 것으로 충분한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성경을 펴서 왜 그 사람이 고난 중에 있는지 원인을 찾아주지 않아도 됩니다. 주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모든 사람들이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다른 사람들의 짐을 나눠지려는 사람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을 보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이 장막 집이 해체되면 하나님의 건물 곧 손으로 지은 집이 아니요, 하늘들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우리가 이 장막에서 신음하며 하늘로

부터 오는 우리의 집으로 옷 입기를 간절히 원하노니 우리가 옷 입고 있으면 벌거벗은 채 드러나지 아니하리라.”(고후 5:1-3) 성경은 우리의 몸을 장막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장막 안에 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다음 절을 보겠습니다.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을 진 채 신음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입고자 함이니 이것은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켜지게 하려 함이라.”(4절)

누가 짐을 지고 있습니까? 장막 안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이 짐을 진 채 신음하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짐을 진 채 신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모든 사람들이 짐을 진 채 신음하게 하셨을까요? 서로가 서로를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다시 갈라디아서 6장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문맥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아, 만일 어떤 사람이 잘못에 빠지거든 영적인 너희는 온유의 영으로 그러한 자를 회복시키고 네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에 들지 않게 하라. 너희는 서로 남의 짐들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갈 6:1-2) 6절도 보겠습니다. “말씀 안에서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치는 자와 함께 모든 좋은 것을 나눌지니라. 속지 말라. 하나님은 조롱당하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또한 그것을 거두리라.”(6-7절)

문맥을 잘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지금 험박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는 지금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맥은 책망하는 게 아닙니다. 8절을 보세요. “자기 육신에게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는 것을 거두되 성령에게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존하는 생명을 거두리라. 우리가 잘 행하는 가운데 지지 말지니 우리가 기진하지 아니하면 정하신 때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

되 특히 믿음의 집안에 속한 자들에게 할지니라.”(8-10절)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만일 제가 성령 안에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걷는다면, 성령님께서서는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자신의 짐을 질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저에게 문제와 고난이 닥쳐왔을 때 저는 제가 뿌린 것을 거둘 것입니다. 제가 당신이 어려움에 빠졌을 때 당신에게 선을 행한다면, 제가 어려움에 빠지게 되었을 때 당신은 저를 비판하거나 정죄하거나 저에게서 잘못을 찾으려고 하지 않고 도와주려고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갈라디아서 6장의 문맥이 의도하는 내용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다른 사람이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당신이 그를 도와주면, 당신이 어려움을 겪게 될 때 그가 당신을 도와줄 것이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잘못을 범했거나 어려움에 빠진 지체를 보면 비난하지 말고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도 당신이 도움을 필요로 할 때 당신을 돕고자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교회가 영적으로 성장해 나아가고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간에 바른 관계를 맺는 방법입니다.

당신이 어려움에 빠졌을 때 당신의 잘못만을 찾아내서 지적하려는 사람이 있기를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에게 어떤 도움도 주지 않으면서 당신을 정죄하려고 하는 사람을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도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해 주라는 것입니다.

욥은 친구들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마귀가 그의 재산을 빼앗아가도 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마귀가 그의 자녀들을 죽이고 가정을 박살냈을 때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마귀가 어떻게 공격해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찬양했습니다. 하지만 친구들이 와서 정죄하기 시작하자 그는 차라리 죽기를 바랐습니다. 차라리 태어나지도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욥의 친구들이 한 일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고난 받는 사람에게 가서 그의 짐을 대신 져 준 게 아니라 비판하고 정죄했습니다. 그들은 기껏 욥을 찾아와서 실컷 정죄만 하고 상처만 주고 간 것이고 그러한 것은 욥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예리한 시각으로 상대방을 비판하거나 교회를 비판하면 그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정반대의 결과만 일어납니다.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망쳐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도 모두 욥의 친구들처럼 이런 짓을 하면서 교회를 망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큰 착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으시고 우리가 받아야 할 대로 그대로 갚아주신다면 우리 중 누구도 살아있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운 분이십니다. 오래 참으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잘못된 말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의 입술을 치셨다면 저의 입술은 항상 퉁퉁 부어 있을 것이며 이는 하나님도 남아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제 짐과 관련된 세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는 모든 짐을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시편 55편을 보겠습니다. “네 짐을 주께 맡기라. 그러면 그분께서 너를 붙드시고 의로운 자가 흔들리는 것을 결코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시 55:22) 당신은 자신의 모든 짐을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마태복음 11장도 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모든 자들아, 너희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 위에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 혼을 위한 안식을 찾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하시니라.”(마 11:28-29)

주님께서는 주님께로 나아오면 멩에가 사라진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로 나아와도 멩에는 그대로 있습니다. 문제는 그대로 있습니다. 계속 장막 안에 거하고 있을 것입니다. 멩에는 그대로 있습니다. 짐도 그대로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주님께로 나아오면 주님께서는 당신과 함께 멩에를 메 주실 것입니다. 짐을 당신과 함께 져 주실 것입니다. 당신이 예수님께 나아오면 예수님께서서는 당신과 함께 멩에를 메시며 짐을 져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자신에게로 나아오면 짐을 제거해 주신다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짐을 함께 져 주시고 도와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에게, 위대하신 대제사장 곧 하늘들로 들어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계신 줄 알므로 우리가 우리의 신앙 고백을 굳게 붙들자.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의 감정을 몸소 느끼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으며 죄는 없으신 분이시니라.”(히 4:14-15)

은사주의자들은 구원받으면 모든 문제가 사라진다고 주장합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사람에게 연약함을 동감해 주시는 대제사장이 왜 필요한 것일까요? 예수님을 만나면 모든 문제가 사라진다면 왜 예수님께서서는 자신을 만난 사람에게 대제사장이 되어 주시는 것일까요? 계속해서 다음 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공흠을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왕좌로 담대히 갈 것이니라.”(16절) 하나님은 은혜와 공흠이 풍성하신 분입니다.

당신은 왜 예수님을 사랑해야 하는지 아십니까? 왜 제가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아십니까? 제가 그분을 가장 필요로 할 때 그분은 가장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분을 가장 필요로 할 때가 어찌면 그분이 저를 정죄하시기 가장 좋은 때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저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저를 비판하시고 정죄하시고 쫓아내버리실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더 큰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성경은 서로의 짐을 지므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법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서로의 짐을 나눠지는 것입니다. 다른 형제가 짐을 지고 괴로워할 때 하나님께 짐을 맡기라고 단순히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라고 말만 하는 게 아니라, 나의 어깨에도 짐을 나눠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해 주셨던 것이고 갈라디아서 6장에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의 법입니다.

우리가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갈라디아서 6:3을 잊을 때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자신도 죄에 빠질 수 있다는 갈라디아서 6:1을 잊을 때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누군가 도움을 절실히 필요로 할 때 우리는 그를 쫓아내 버리게 됩니다. 도움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사람을 비판이나 하고 있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의 잘못을 찾아내는 것은 영적인 게 아니라 육신적인 것입니다. 구원받지 않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도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지적하므로 자신을 높이려는 자기 의에 불과합니다. 자신은 다른 사람이 짓는 죄는 범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순간에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는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내가 주님의 도움을 필요로 할 때 주님께서 도와주신 것처럼 다른 사람이 도움을 필요로 할 때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을 범했을 때 주님께서

더 큰 은혜와 긍휼로 나를 해주신 것처럼 다른 사람이 잘못을 범했을 때 그 사람을 정죄하거나 비판하지 말고 더 큰 은혜와 긍휼로 해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해 주신 일이며 그리스도의 법입니다.

완벽한 아내를 찾으려고 하면 실망하게 될 것입니다. 완벽한 남편을 찾으려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죄를 지었고 짓고 있으며 짓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완벽한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신 게 아닙니다.

우리가 더 큰 잘못을 저질렀을 때 주님께서서는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법이며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완벽한 교회를 찾아 나섭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이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완벽한 사람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교회나 사람이나 부족한 것, 잘못된 것이 보인다면 그게 바로 당신이 섬길 수 있는 기회이며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을 보겠습니다. “그때에 그들 중의 한 율법사가 그분을 시험하려고 그분께 질문하여 이르되, 선생님이며, 율법에서 큰 명령은 무엇이니까? 하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주 네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가는 큰 명령이요, 둘째 명령은 그것과 같은 것으로서, 너는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니라. 모든 율법과 대언자들의 글이 이 두 명령에 매달려 있느니라, 하시니라.”(마 22:35-40)

만일 당신이 다른 모든 것을 다 하고도 형제를 자신과 같이 사랑하지 않

는다면 당신은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하고도 이것을 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진실이라면 이기심과 자만심이야말로 가장 큰 죄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큰 명령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킹제임스성경을 믿는 어떤 독립침례교인들은 이것이 교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형제를 사랑하라는 말씀은 교리와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은 고기에 해당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이야말로 가장 소화하기 힘든 고기에 해당하는 교리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당신이 이 명령에 순종할 수 있다면 당신은 모든 명령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5에서는 각 사람이 자기의 짐을 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각 사람이 자기 짐을 져야 할 것이기 때문이라.”(갈 6:5)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나의 짐을 제거해 주지 못하며 하나님께서는 나의 짐을 제거해 주지 않으실 거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나는 항상 나의 짐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만일 다른 사람들이 나의 짐을 제거해 주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짐을 제거해 주지 않으실 것이라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로마서 5장을 보겠습니다. “그리할 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도 기뻐하니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체험을, 체험은 소망을 이루는 줄 우리가 아노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에 의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넓게 부어졌기 때문이니”(롬 5:3-5)

주님께서 갈라디아서 6:5에서 각 사람이 자신의 짐을 져야 한다고 말씀하신 이유는 당신이 몸 안에 있는 한, 그 짐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서는 왜 그 짐을 제거해 주지 않으시는 것일까요? 그 짐은 당신에게 인내를 주고, 인내는 체험을, 체험은 소망을, 그리고 그 소망으로 인해 성령님께서서는 당신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넓게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짐이 없다면 당신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맛보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며 당신이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짐과 고난으로 인해 당신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맛볼 수 있다고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는 이러한 경험을 함으로 인해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천 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작하신 사랑입니다. 자신이 우리의 연약함을 체험하신 후에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주셨습니다. 주님께서서는 우리가 받은 사랑을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기 원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짐을 지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의 짐을 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짐과 고난과 어려움을 제거해 주지 않으실까요? 고린도후서 1장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분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요 긍휼의 아버지시며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니라.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심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위로 받을 때 얻는 위로를 힘입어 우리가 어떤 고난 중에 있는 자들도 능히 위로하게 하려 하심이라.”(고후 1:3-4)

이 말씀의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만일 우리가 고난을 받지 않는다면 고난 중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연약함과 실패와 슬픔과 절망이 없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없을 거라는 말

입니다. 따라서 고난과 어려움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게 하는 연료인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을 증가시켜 주는 수단인 것입니다. 고난이 없으면 위로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고난과 어려움과 짐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돕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한 것들로 말미암아 성령님께서 당신 안에서 일하시고 또 당신은 그 성령님을 힘입어 다른 사람들을 돕고 섬기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없애주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의 고난을 없애주시면 다른 고난을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당신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을 맛보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잘못을 하거나 부족한 사람을 보면 비판하지 말고 서로의 짐을 나눠 지십시오. 그렇게 함으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십시오.

## 9. 상처받았습니까?

시편 38편을 보겠습니다. “내 생명을 찾는 자들도 나를 잡으려고 올가미들을 놓으며 나를 해치려 하는 자들은 해로운 것들을 말하고 종일토록 속임수를 꾀하나 나는 귀먹은 자같이 듣지 아니하였고 말 못하는 자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처럼 내가 듣지 못하는 자같이 되었사오며 내 입에 꾸짖을 말이 없나이다.”(시 38:12-14)

우리는 말을 통해 다른 사람의 감정을 상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성경은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수는 없으나 그 일들을 일으키는 자에게는 화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눅 17:1). 만일 당신이 선한 말만 한다면,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격려해주고 용기를 주고 축복하는 말만 할 수 있다면, 당신은 죄에 빠지지 않는 완전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 아버지 오른쪽에 앉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저는 저에게 상처를 주고 잘못된 길로 가게 하고 괴롭히는 사람들로 둘러싸여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본성을 이해하는 사람은 이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인정할 것입니다. 이것은 꽤나 낙심이 되는 말이지만 하나님께 감사하게도 주님께서서는 이러한 사람들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성경에 미리 기록해 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자녀들이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지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몽둥이로 맞거나 돌팔매질을 당하면 상처를 입는 것처럼 사람은 말을 통해 상처를 입을 수 있습니다. 험담하고 비방하고 거짓말로 꾸며 안 좋은 소문을 내는 것은 그 대상이 되는 사람에게 엄청난 상처를 줍니다. 그래서 마귀는 주로 이러한 것들을 통해 형제 자매들 사이를 분열시키는 것입니다. 만일 험담이나 비방이나 안 좋은 소문을 내는 것이 상처를 주고 분열을 일으키지 않는다면 마귀는 이러한 것을 사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이 엄청난 상처를 줍니다. 이러한 것으로 인해 교회가 분열되고 상처를 입고 문제가 생겨납니다.

말은 감정을 드러냅니다. 성경은 입이 마음에 가득한 것을 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마 12:34). “선한 사람은 자기 마음의 선한 보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자기 마음의 악한 보고에서 악한 것을 내나니 그의 입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말하느니라.”(눅 6:45)

다른 사람을 비방하거나 험담해 놓고 자신은 그런 의도로 말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말한 그대로입니다. 다른 사람을 비방하거나 험담하는 이유는 그 사람을 미워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을 위해주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마음속에 그 사람에 대한 미움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비방하고 험담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마음에 가득 차 있는 것이 그저 입으로 흘러나온 것뿐입니다.

우리는 죄악 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구원받았으면서도 이 세상의 방식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합니다. 이게 구원은 받았지만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한 사람의 현실입니다. 구원을 받아도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면 이 세상 사람과 전혀 다르지 않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들의 방식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합니다.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것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악한 세상에서 죄를 짓지 않고 주님처럼 살 수 있는지 그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는 위선자들이 많기 때문에 더 이상 교회에 다니지 않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실상은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야말로 가장 큰 위선자인 경우가 흔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험담을 하기 때문에 교회에 가지 않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참으로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너무 비판적이라고 그 사람을 비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험담하는 사람에 대해 험담하고 비방하는 사람에 대해 비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불평하는 사람에 대해 불평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다른 사람을 정죄하면서 동시에 자신을 정죄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사람을 비방하면 결국 자신도 같은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정죄하는 짓을 스스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재는 자로 자신을 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같은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군가 비성경적인 짓을 하는 사람을 비방하는 것은 괜찮지만 자신을 비방하는 것은 참지 못합니다. 성경은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말다툼하는 자가 되지 말며 오직 부드러우며 모든 사람에게 온전히 온유함을 보이게 하라.”(딤후 3:2)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군가 자신을 비방하면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자신을 비방하지 말라고 합니다. 하지만 자신이 다른 사람을 비방할 때는 이 말씀을 무시해 버립니다.

성경에 의하면 사람들은 당신을 비방할 것입니다. 당신은 누군가의 말로 인해 상처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 누군가가 때로는 구원받은 사람일 수 있고 때로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 당신을 비방하고 험담하고 상처를 줄 것입니다. 특히 그 누군가가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이거나 당신과 가까운 사람일수록 상처는 더욱 커집니다. 우리가 밖에서 복음을 전할 때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를 욕하면 별로 상처를 받지 않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욕하는 것은 별로 상처가 되지 않지만, 아내나 남편이나 아들이나 딸이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비방하면 상처를 받습니다. 내가 잘 알고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비방하면 그 상처는 모르는 사람이 비방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큼니다. 그래서 마귀는 이러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비방하도록 역사하는 것입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관계를 가장 크게 망치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로마 가톨릭이나 공산주의나 무신론자들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작은 혀입니다. 혀는 그 어떤 이단이나 사상이나 무신론보다 더 교회를 크게 파괴시키고 형제 자매의 관계를 망쳐버립니다. 다만, 오직 우리가 허락할 때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허락해서 그렇게 사용할 때만 혀가 파괴적인 일을 할 수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허락하지 않으면 혀는 다른 사람을 상처주거나 교회를 망치는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보다 더 비방을 많이 당한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보다 거짓말을 더 많이 들은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보다 더 많은 거짓 고소를 당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님보다 더 큰 오해를 받은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님

보다 더 많은 시험과 도전을 받은 사람도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서는 단 한번도 죄를 지은 적이 없습니다. 누가 비방을 하거나 험담을 해도 예수님께서서는 그것으로 인해 평안을 잃어버리시거나 죄를 지으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 단 한번도 자신을 비방하거나 험담하는 사람을 적절하지 않게 대하신 적이 없습니다.

다시 처음 살펴본 본문으로 돌아가서 13절과 14절을 보겠습니다. 각 절의 앞 부분에 나오는 표현을 잘 보십시오. “나는 귀먹은 자같이 듣지 아니하였고…”(13절) “이처럼 내가 듣지 못하는 자같이 되었사오며…”(14절)

자신을 비판하고 비방하고 험담하고 대적하는 자들에 대해 시편 기자가 보여준 태도는 무엇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비방하고 험담하고 거짓 고소하는 자들에게 어떤 태도로 대응하셨습니까? 시편 기자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단순하게 그러한 비방과 험담을 듣지 않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러한 말을 듣지 못했다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듣기는 들었습니다. 듣기는 들었지만 그것을 머릿속에 새겨 넣거나 가슴에 담아두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너희가 듣는 것에 주의하라.”(막 4:24)고 말씀하셨습니다. 험담이나 비방 같은 덕이 되지 않는 쓰레기 같은 말은 잡아두지 말고 그대로 흘러 보내라는 것입니다.

당신은 대부분 학교를 졸업한지 오래되었을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1학기 둘째 주 수요일 첫째 시간에 선생님이 가르쳐 준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선생님이 어떤 말을 하셨습니까? 아마 전혀 기억이 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분명히 어떤 말을 들었지만 지금은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은 당신의 인생 전체

를 놓고 볼 때 그렇게 중요한 말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 말은 당신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저 흘러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당신은 어떤 말을 듣고도 그냥 흘러버릴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들었지만 완전히 잊어버리고 살 수도 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 선생님에게 들은 말 중 99% 이상은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기억하는 부분이 1%도 채 되지 않습니다. 분명히 많은 말을 들었지만 대부분은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저의 마음에 남아있지 않고 그대로 가라앉아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당신은 제가 설교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것을 여러 번 들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제가 가르친 것들을 거의 다 잊어버렸을 것입니다. 제가 수백 시간을 가르쳤지만 단 한 시간도 되풀이할 수 없을 것입니다. 분명히 듣기는 들었지만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다 잊어버렸을 것입니다.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서 마음에 뿌리를 내리지 않고 그대로 가라앉아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을 것입니다.

잘 들어 보세요. 당신의 귀에 들리는 말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마음속에 깊이 간직할지 아닐지는 당신의 결정에 달려있습니다. 귀로 들어온 그 말을 계속 생각하고 의미를 부여하고 마음속에 새기는 것은 모두 우리의 결정에 달려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상하는 것이나 그것으로 인해 다툼과 분열이 생기는 것은 모두 우리가 쓸데없는 말에 의미를 부여하고 그것을 마음속으로 붙잡아 두기 때문입니다. 결코 마음에 자리를 잡아서 안 되는 것들이 자리를 잡도록 허락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부지런히 살펴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게 하고 쓴 뿌리가 돌아나 너희를 괴롭게 하거나 그것으로 말

미암아 많은 사람이 더럽게 되지 않도록 할지니”(히 12:15)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쓴 뿌리가 당신의 마음에 뿌리를 내리면 쓴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우리는 쓴 뿌리가 우리 마음속에서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바로 마귀가 당신의 마음속에서 역사하는 것들입니다. 당신은 이러한 것들이 당신의 마음속에 뿌리를 내리도록 마귀를 도울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무엇을 하셨는지 아십니까? 자신에게 거짓말을 하고 자신을 거짓 고소한 사람들을 위해 피를 흘려 주셨습니다. 자신에 대해 험담한 사람들을 위해 피를 흘려 주셨습니다. 마귀 들렸다고 비방한 사람들을 위해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요 술을 즐기는 자라고 비방한 사람들을 위해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거짓 소문을 내고 저주한 사람들을 위해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자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을 위해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으셨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서는 자신의 귀에 들어온 것을 마음으로 붙들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비방하고 욕하는 말들에 주님의 마음은 전혀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까. 주님의 사랑은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일은 우리의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비방하고 모욕하고 험담하는 말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달려 있습니다. 직장에도 우리에게 대해 험담하고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짓으로 꾸며 소문을 내기도 합니다. 이상한 별명을 만들어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말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속으로 붙들 수도 있고 흘려 보내 버릴 수도 있습니다. 누가 나에게 대해 안 좋은 소리를 한다고 해서 바로 직장을 그만 두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 언젠가 그들에게 복

음을 전해야 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들과 다투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이 하는 비방과 험담에 귀를 기울여서는 안 됩니다. 그러한 것으로 마음이 가득 차 있으면 결코 주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비방과 험담은 한 귀로 듣고 다른 귀로 흘려 보내십시오. 절대 당신의 마음에 그러한 말이 머물게 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자신에 대한 것이든 다른 사람에 대한 것이든 비방과 험담을 당신의 마음에 담아 두지 마십시오.

전도서 7장을 보겠습니다. 이것은 저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당신 모두에 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선을 행하고 죄를 짓지 않는 의인은 땅 위에 하나도 없느니라.”(전 7:20) 당신은 이 말씀을 믿습니까?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선을 행하고 죄를 짓지 않는 의인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죄인이 아닌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항상 의만 행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항상 옳은 말만 하는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단 한 사람도 말과 행위로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똑 같은 죄인입니다. 우리 속에는 똑같은 죄의 본성이 있습니다. 똑같은 죄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다음 절을 주목해서 봐야 합니다. 21절을 보세요.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주의를 기울이지 말라. 네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네가 들을까 염려하노라.”

성경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시는지 아시겠습니까? 만일 당신이 모든 말에 주의를 기울이게 되면 당신과 함께 주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이 당신을 비방하고 욕하고 험담하고 저주하는 말을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모든 말에 주의를 기울이면 당신과 같은 교회를 다니는 형제 자매들이 당신에 대해 욕하고 비방하는 말을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앞에서는 “형

제님 만나서 정말 반가워요. 형제님을 위해 기도할게요.” 라고 해 놓고 뒤에서는 온갖 비방을 다 하고 다니는 사람이 한 교회 안에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없습니다. 마음에 담아 둘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22절을 보면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너도 그와 같이 다른 사람들을 저주하였음을 네 마음도 종종 아느니라.” 다른 사람이 나를 비방하는 것처럼 나도 다른 사람을 비방한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마음이 그것을 알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는 말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죄인들은 항상 다른 사람에 대해 이야기하고 비방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에게 대해 나쁘게 말할 때 기분 나빠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도 다른 사람에 대해 나쁘게 말한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 스스로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다른 사람을 헐담하고 비방하면서 다른 사람은 나에게 그렇게 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은 이루어지지 않은 일을 바라는 욕심에 불과합니다.

당신은 집에서, 차에서, 교회에서 다른 사람을 비방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 헐담합니다. 나는 그런 적이 없다고 거짓말하지 마세요. 제가 알고 당신이 알고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성경은 당신이 그렇게 한 적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전도서 7:20-22을 항상 기억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자신에 대해 비방을 하면 이 말씀을 붙들고 모든 비방을 날려버렸으면 합니다.

야고보서 3장을 보겠습니다. 주의해서 잘 보세요. “내 형제들아, 너희는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우리가 더 큰 정죄를 받을 줄 너희가 아느니라.”(약

3:1) 다른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위치에 있을수록 더 많은 비방을 받게 됩니다. 저는 욕먹기 싫은 사람은 목회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목회를 하게 되면 가장 많이 먹게 되는 게 바로 욕이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커질수록 그만큼 더 많은 욕을 먹게 됩니다. 어떤 목사님이 자신에게는 634가지 문제가 있다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사역하시는 교회의 성도들이 바로 634명이었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다음 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많은 것에서 실족하니 만일 어떤 사람이 말에서 실족하지 아니하면 바로 그 사람은 완전한 사람요 능히 온 몸도 제어하는 사람이라.”(2절) 우리는 모두 다 실족한 적이 있습니다. 특히 말에서 실족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중 누구도 잘못된 말,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한 적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절을 보겠습니다. “보라, 말들이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것들의 온 몸을 돌리느니라. 또한 배들을 보라. 그것들이 그렇게 커도 사나운 바람에 밀려가되 사공이 매우 작은 키 하나로 자기가 가고자 하는 대로 그것들을 돌리느니라.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되 큰 일들을 자랑하는 도다. 보라, 작은 불이 얼마나 큰 물체를 태우는가! 혀는 불이요 불법의 세계니라. 혀는 우리의 지체들 가운데서 그와 같아서 온 몸을 더럽히고 본성의 행로에 불을 붙이며 지옥 불 위에 놓여 있느니라.”(3-6절)

마귀가 가장 즐겨 사용하는 도구가 바로 우리의 혀입니다. 당신의 혀로 다른 형제 자매들을 비방한다면 지옥 불을 이 세상으로 가져오는 것입니다. 당신의 그 길들여지지 않은 혀로 인해 사람들이 지옥으로 가게 되거나 지옥을 맛보게 됩니다.

6절에서는 혀가 온 몸을 더럽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몸은 우리의 육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혀를 잘못 놀릴 때 그리스도의 몸은 더러워집니다. 우리가 다른 형제 자매를 비방하고 험담할 때 그리스도의 몸이 더러워진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다음 절을 보겠습니다. “모든 종류의 짐승과 새와 뱀과 바다에 있는 것들은 길들여졌고 또 사람이 길들여 왔으나 혀는 아무도 능히 길들이지 못하니 그것은 다스릴 수 없는 악이요 죽이는 독으로 가득한 것이니라.” (7-8절)

폭풍 한 가운데서도 키를 잘 잡으면 배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힘이 좋은 야생마도 재갈을 물리면 길들일 수 있습니다. 덩치가 큰 코끼리도 훈련을 통해 길들일 수 있습니다. 동물의 왕이라는 사자도 길들여서 서커스 쇼를 시킬 수도 있습니다. 코브라를 길들여서 작은 피리 하나로 움직이게 할 수도 있습니다. 사자를 길들이는 사람도 있고 뱀을 길들이는 사람도 있고 폭풍 속에서 배를 움직이는 사람도 있지만 혀를 길들이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의하면 당신의 입 안에 있는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반역적이고 훈련이 되지 않았으며 길들이기 힘든 것입니다. 성경에 의하면 뱀을 길들이는 게 혀를 길들이는 것보다 훨씬 더 쉽습니다.

성령님으로 충만한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아십니까? 성령님의 능력이 충만한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아십니까? 모든 사람이 자신의 혀를 제어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는 교회입니다. 다른 형제 자매를 비방하고 험담하는 데 혀를 사용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사용하는 교회가 바로 성령 충만한 교회입니다.

계속해서 다음 절을 보겠습니다. 이 구절은 읽기에 매우 민망하고 슬픈 구절입니다.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곧 아버지를 찬송하며 또 그것으로 우

리가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어진 사람들을 저주하느니라. 같은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거니와, 내 형제들아, 이런 것들이 결코 그래서서는 아니 되느니라.”(9-10절)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고 찬양을 드렸던 혀로 주님께서 피를 흘려 구원하신 다른 형제 자매를 비방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같은 입술과 혀로 식사를 하기 전에 감사기도를 드리고 나서는 식사를 하면서는 다른 형제 자매를 저주합니다. 감사히 먹겠다고 기도해놓고는 음식을 씹지 않고 다른 형제 자매를 씹고 있는 것입니다. 같은 혀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라고 해 놓고 집에 오는 길에는 “하지만 예수님의 자녀들은 미워합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당신은 이게 사실이라는 걸 잘 아실 것입니다.

다시 시편 38편을 보겠습니다. 앞서 살펴본 13절과 14절입니다. 이번에는 두 구절의 뒷 부분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귀먹은 자같이 듣지 아니하였고 말 못하는 자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였나이다.”(시 38:13) “이처럼 내가 듣지 못하는 자같이 되었사오며 내 입에 꾸짖을 말이 없나이다.”(시 38:14)

시편 기자는 다른 사람의 비방에 대해 그대로 갚아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누군가 자신을 비방해도 다시 그 사람을 똑같이 비방할 필요가 없습니다. 똑같은 식으로 대꾸하거나 반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입을 열 필요도 없고 꾸짖을 말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흘려 보내기만 한다면 그러한 비방은 나에게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비방을 당한 대로 똑같이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원수들이 비방할

때 잠잠하셨던 것같이, 오히려 그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목숨까지 내어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네 구절만 찾아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절들은 모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들입니다. 먼저 이사야서 53장입니다. “그는 학대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였어도 자기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도살장으로 향하는 어린양같이 끌려가며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자기 입을 열지 아니하는도다.”(사 53:7) 이 말씀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당하시는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완전히 변하게 될 것입니다. 다른 형제 자매와의 관계도 완전히 변하게 될 것입니다.

만일 누군가 자신이 당한 부당한 일에 대해 항의해야 한다면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일 것입니다. 주님은 부당하고 불공평한 재판을 받으셨지만 한마디도 항의하지 않으시고 그대로 모든 불만과 부당함을 감수하셨습니다. 자신이 처한 상황을 아버지의 뜻으로 여기고 모든 고난과 기쁨을 받아들이셨습니다.

이제는 신약성경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한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입니다. “수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소를 당하실 때에는 아무것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라. 이에 빌라도가 그분께 이르되, 그들이 너를 대적하려고 얼마나 많은 것을 증언하는지 네가 듣지 못하느냐? 하되 그분께서 그에게 결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이에 총독이 심히 이상히 여기더라.”(마 27:12-14)

예수님께서서는 사람들이 질문을 하면 답해 주셨습니다. 심지어 시험을 하려고 도전해도 모두 받아주셨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거짓으로 꾸며 고소할 때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을 비방하고 헐뜯고

욕하고 죽이려고 모의하고 거짓 고소를 하는데 잠잠히 계셨던 것입니다. 거짓으로 고소하는 자들에게 단 한 마디도 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아무런 저항 없이 그들의 거짓 고소를 묵묵히 받아들이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을 보겠습니다. “참으로 너희가 심지어 그 일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나니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에게 본을 남기시며 너희가 자신의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그분께서는 죄를 짓지 아니하시고 입에 교활함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며 오직 의롭게 심판하시는 분에게 자신을 맡기시고 친히 나무에 달려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지셨으니 이것은 죄들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살아서 의에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그분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고침을 받았나니”(벧전 2:21-24)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실 때 어떤 죄가 포함되어 있었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비방한 죄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욕을 욕으로 되갚아 준 죄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헐담한 죄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거짓으로 꾸며 악의적인 소문을 낸 죄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다른 형제 자매를 비판한 죄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이러한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처리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입술의 죄를 제거하시고 이제는 우리가 주님의 의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더 이상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기 위해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들, 특히 입술로 짓는 죄들을 가져가고 그 대신 자신의 의를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의로 이 세상을 살아야 합니다. 그 의로 다른 형제 자매들을 대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당신에 대해 악하게

말할 때 그들이 한 것과 똑같이 갚아주지 마십시오. 당신을 욕하고 거짓으로 고소하고 저주하고 위협할 때, 그들에게 똑같이 갚아주지 말고 당신 자신을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의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바른 일을 행하십시오.

이제 마지막 한 구절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부당한 일을 당해도 우리를 부당하게 대한 사람에게 사랑으로 대하기를 원하십니까? 사람들이 우리를 말로 실족시키려 해도 우리는 실족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확신 가운데 거할 수 있습니다. 시편 119편입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큰 평안이 있나니 아무것도 그들을 실족하게 하지 못하리이다.”(시 119:165)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큰 평안이 있습니다. 그 무엇도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에서 평안을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 그 어떤 말로도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을 실족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한 가지 비유를 들겠습니다. 두 사람이 있습니다. 둘 다 구원받았습니다.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 누구가 나에게 대해서 하는 말을 들어봤어? 그 사람 정말 나쁜 사람이야 나는 상처받았어. 실족했다구.” 다른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군가 나를 비방했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나는 그보다 더한 죄인이야. 나를 비방한 사람에게 똑같이 대해 주지 않을 꺼야. 나는 주님의 발자취를 따를 거야.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걸 할 꺼야. 나를 비방한 그 형제를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처럼 계속 사랑할 꺼야.”

둘 다 구원받았습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았고 다른 사람은 사랑했습니다. 한 사람은 실족했고 다른 사람은 실족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따를

수룩,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를수록, 저는 사람들이 저에 대해 어떤 말을 하든 실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지 마십시오. 상처를 주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으로 인해 실족하지도 마십시오. 상처를 입지도 마십시오. 당신이 주님의 인도를 따를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를수록, 하나님을 사랑할수록,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지도 않고, 다른 사람으로 인해 상처를 받지도 않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서 역사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아멘.

## 10. 화해

오늘 우리는 화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가 공부하려는 주제는 그리스도인의 관계와는 상관이 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 사이의 화해에 대해 다루기 위해 가장 먼저 이해하고 있어야 할 것이 바로 하나님과 인간의 화해가 어떻게 이루어졌으며, 예수님께서서는 이것을 위해 무엇을 해 주셨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누가복음 23장을 보겠습니다. 여기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들이 갈보리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 범죄자들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오른편에 다른 하나는 왼편에 있더라.”(눅 23:33) 마태복음에서는 이 사건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들이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은 뒤에…”

(마 27:35) 마가복음도 비슷합니다. “그들이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고…”(막 15:24) 요한복음도 비슷합니다. “그들이 거기서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고…”(요 19:18)

성경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장면을 매우 간결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손과 발에 못이 박힐 때 예수님께서 감당하신 고통에 대해 자세하게 묘사하지도 않고 당시의 예수님의 마음이나 생각에 대해 묘사하지도 않습니다. 어떤 고난을 당하셨는지, 얼마나 힘들었고 고통스러웠는지 구체적으로 묘사하지도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님의 육체에 가해진 고통에 관해 자세히 묘사하면서 설교를 하기도 합니다. 폐가 어떤 상태가 되었고, 심장은 어떻게 되었으며, 간은 어떻게 되었고 하는 식으로 예수님의 사망까지의 육체 상태를 자세히 설명합니다. 그런 설교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성경은 그러한 것에 대해 자세한 묘사를 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에 엄청난 고통이 가해진 것은 사실이지만 성경은 그러한 것을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모습을 다섯 단어 이내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거기서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들이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고…”(막 15:24) 이것은 네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은 뒤에…” 이것은 세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장면을 몇 개의 단어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좀 이상한 일입니다. 성령님께서 성경이 이런 식으로 기록되도록 하신 이유는 이 문제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적인 고난을 강조하지 않기 위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여기서 강조하고자 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적 고통이 아니

라 인간의 죄로 인한 그분의 죽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육체로 당하신 고통은 인간의 죄로 인한 결과였습니다. 예수님의 육체적인 죽음은 죄값을 치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신 것은 우리의 치유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분이 상처를 입으신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성령님께서서는 우리가 그분의 육체적인 죽음에 초점을 맞추지 않게 하시려고 의도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장면을 간결하게 기록하신 것입니다.

마리아의 태를 통해서 오신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십자가 대속의 핵심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핵심은 하나님의 아들께서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몸으로 모든 인간의 죄를 담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의 육체에 가해진 고통에 대해 자세하게 묘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하신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왜 십자가에 달리셔야만 했는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일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십자가 위에서 구약성경의 예언을 성취하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보시는 바와 같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핵심은 그분이 당하신 육체적인 고난이 아닙니다. 핵심은 그분이 왜 그런 고통을 당하셔야 했는가입니다. 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셔야만 했으며, 왜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는지가 핵심입니다. 왜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죽으셔야만 했습니까? 온 세상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누가복음 23장으로 돌아가서 계속해서 다음 절을 보겠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시더라…”(눅 23:34) 이 말씀을 잠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마태복음 5장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말한바, 너는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한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들을 사랑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을 축복하고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선을 행하며 악의를 품고 너희를 다루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이들이 되리니 그분께서는 자신의 해를 악한 자와 선한 자 위에 떠오르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 위에 내려 주시느니라.”(마 5:43-45)

예수님의 말씀은 자신을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면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사람을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십자가 위에서 자신이 가르치신 것을 그대로 실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핍박하고 괴롭히고 악의를 품고 다루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심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만일 우리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리고 싶으면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들을 대하신 것처럼 동일한 태도로 대하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른 사람들에게 관용을 보이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관용을 보인다면 우리가 바로 그 관대하신 분의 자녀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사도행전 7장에서 스테반은 자신을 죽이는 사람들을 위해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간구했습니다. “주여, 이 죄를 저들의 책임으로 돌리지 마옵소서.”(행 7:60)

스테반은 성령님으로 충만하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리스도를 닮은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자신을 핍박하고 저주하

고 악의를 품고 대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처럼 선하게 대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하나님의 아들(the Son of God)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신도 구원받고 나서, 거듭나고 나서는 무엇이라고 불리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아들(a son of God)이라고 불립니다. 그리스도께서 당신 안에 거하십니다. 당신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됩니다. 스테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지 못할 사람은 없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자신을 악하게 대하는 사람들에게도 은혜와 사랑으로 대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자신을 악하게 대하는 사람을 위해 절대로 기도할 수 없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고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부인하고 성령님을 따라 걸으면 할 수 있습니다. 스테반은 그렇게 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그리스도처럼 행동했습니다. 자신을 돌로 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며 그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다시 누가복음 23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가 34절에서 읽은 구절은 가만히 생각해보면 좀 이상한 구절입니다. 많은 이단들이 이 구절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자신들의 이단 교리의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들은 이 구절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라고 주장합니다. 왜 그런지 잠시 후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단 중에는 “아리안 주의”는 게 있는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실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육체에 임하셨다가 십자가 위에서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떠나셨다는 주장입니다. 따라서 십자가 위에서 고난을 받으신 것

은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삼위일체의 일원이신 아들 하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게 아니라 단지 인간 예수가 십자가 위에 죽었다는 주장입니다.

이러한 주장을 하는 자들은 누가복음 23:34을 증거로 제시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었다면 직접 사람들을 용서해 주실 수 있었을 텐데 하나님이 아니었기 때문에 자신이 직접 용서하지 못하고 아버지께 용서해 달라고 간구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자신이 직접 용서하지 않으시고 아버지께 용서해 달라고 간구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단순히 마태복음 5장에서 하신 말씀을 실천하여 본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만이 아닙니다. 이제 그 이유를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과 누가복음 7장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기 위해 성경을 열심히 읽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참 놀라울 뿐입니다. 이상한 일이지는 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신은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사실 정확히 말하면 그런 사람들이 당신을 만나러 오는 것이지만 말입니다. 그들은 사람들을 자신들보다 두 배나 더 지옥의 자식으로 만들기 위해 열심을 냅니다.

먼저 마태복음 9장을 보겠습니다. “보라, 그들이 마비 병으로 자리에 누운 사람을 그분께 데려오거늘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마비 병 환자에게 이르시되, 아들아, 기운을 내고 네 죄들을 용서받을지어다, 하시니라. 보라, 서기관들 중의 어떤 자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모독하는도다, 하니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속으로 악을 생각하느냐? 네 죄들을 용서받을지어다, 하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고 말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더 쉬우냐? 그러나 사람의 아들이 땅에서 죄들을 용서하는 권능을 가진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그때에 마비 병 환자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네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가 일어나 자기 집으로 떠나가거늘”(마 9:2-7) 예수님께서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 사람들 사이에서는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누가복음 7장도 보겠습니다. “그녀에게 이르시되, 네 죄들이 용서되었느니라, 하시니”(눅 7:48)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은 자신이 이 세상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능을 가진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죄로 인해 마귀와 질병에 속박되어 있었습니다. 만일 죄가 없었다면 그러한 고통을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일 아담이 타락하지 않았고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면, 죄와 악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사람들은 질병으로 고통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사람들에게 죄 용서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사실에 분노한 종교 지도자들이 항의했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죄를 용서할 수 있느냐고 따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서는 자신이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능을 가졌다는 사실을 입증하셨습니다. 질병은 죄의 결과로 인한 것이었는데 예수님께서서는 그 죄의 결과를 제거하신 것입니다. 죄를 용서해주셨기 때문에 죄의 결과가 사라진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받은 사람은 일어나 걸어가는 것을 통해 자신의 죄와 그 결과가 사라졌다는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하늘나라에는 왜 질병과 슬픔과 아픔과 고통과 죽음이 없는지 아십니까? 그곳에는 죄가 없기 때문입니다. 왜 이 세상에는 고통과 죽음과 아픔과

슬픔이 있는지 아십니까?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따르면 그러한 것들은 이 세상에 죄가 존재한다는 증거가 됩니다. 주님께서 누군가의 인생에서 죄의 결과를 제거해 주신 것을 통해, 주님께서 자신이 죄를 용서하고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만일 주님께서 죄를 용서한다는 말씀만 하셨다면 사람들은 그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질병을 고쳐주심으로 인해 자신이 죄를 용서하고 그 결과인 질병을 제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입증해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신 이유는 자신이 그들의 죄를 용서하고 제거했다는 것을 입증해 보이기 위함이었습니다.

마가복음 2장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마비 병환자에게 이르시되, 아들아, 네 죄들을 용서받을지어다, 하시니라. 그러나 서기관들 중의 어떤 자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속으로 따져 보며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하여 이렇게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느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들을 용서하겠느냐? 하더라. 예수님께서 그들이 속으로 그렇게 따져 보는 줄을 자신의 영으로 아시고 즉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속으로 이것들을 따져 보느냐? 마비 병환자에게, 네 죄들을 용서받을지어다, 하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고 말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더 쉬우냐? 그러나 사람의 아들이 땅에서 죄들을 용서하는 권능을 가진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마비 병환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네 길로 네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가 즉시 일어나 자리를 들고 그들 모두 앞에서 나아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그 일을 이런 식으로는 결코 본 적이 없다, 하니라.”(막 2:5-12)

예수님께서 누군가의 죄를 용서하시자 사람들은 예수님이 신성모독적

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죄를 용서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사람들과 논쟁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로서 인간의 아들로 이 세상에 온 자신이 세상에서 죄들을 용서하는 권능을 가진 것을 입증해 보여주기만 하면 되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세대주의가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는 방법이라고 믿습니다. 표적을 행하는 은사는 일시적으로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제한을 받지 않으시고 일하십니다. 특정한 시기에만 기적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지금도 계속해서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 죽은 자를 살리는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누군가 구원받을 때마다 다시 태어나는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당신이 구원받는 순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이것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것 못지 않은 기적입니다.

우리가 살펴본 구절들이 가르치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진정한 죄의 용서는 인간이 무엇인가를 하는 것을 통해 오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셔야 죄 용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의 용서를 받은 사람의 인생은 완전히 변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죄의 용서를 받은 사람의 인생에서 죄의 결과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나병환자가 깨끗해졌습니다. 불구자가 걷게 되었습니다. 소경이 보게 되었습니다. 창녀가 깨끗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마귀 들렸던 자가 온전한 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죄의 용서를 받은 사람의 인생에서는 그가 용서받았다는 보이는 증거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은 단순히 혼을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게 해 주시고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해 주시는 것도 포함됩니다.

요한복음 12장과 3장을 보겠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나 곧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리라”(요 12:32)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죄를 용서하는 권능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 세상에 계신 인간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죄를 용서하는 권능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엄청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분은 십자가 위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이셨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지만 동시에 인간이셨습니다. 그리고 온 세상의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을 보기 전에 먼저 베드로전서 2장을 보겠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자신의 몸으로(in his own body) 우리의 죄들을 지셨으니 이것은 죄들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살아서 의에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그분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고침을 받았나니”(벧전 2:24)

예수 그리스도께서 땅에서 들리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서는 하나님이시므로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땅에서 들리셨을 때, 십자가 위에서는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주지 못한지 아십니까? 십자가 위에서는 인간의 모든 죄를 지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단순히 온 세상의 죄가 예수님의 몸 위에 있었다고 말하지 않고 그의 몸 안에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in his own body). 예수님께서서는 십자가 위에서 죄인의 자리에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십자가 위에서 길을 잃고 정죄 받은 죄인의 자리에 서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이셨고 동시에 인간이셨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몸 안에,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지신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이사야서 53장을 보겠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거부되었으며 슬픔의 사람이요, 고통을 잘 아는 자라. 우리는 그를 피하려는 것 같이 우리의 얼굴을 감추었으며 그는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는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참으로 그는 우리의 고통을 짊어지고 우리의 슬픔을 담당하였거늘 우리는 그가 매를 맞고 하나님께 맞아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하였노라. 그러나 그는 우리의 범법들로 인해 부상을 당하고 우리의 불법들로 인해 상하였노라. 그가 징벌을 받음으로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길을 잃고 각각 자기 길로 갔거늘 주께서는 우리 모두의 불법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사 53:3-6)

5절에서는 예수님께서서 부상을 당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징벌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서는 주님께서서 우리 모두의 불법을 예수님께 담당시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단순히 우리의 죄로 인해 상처를 입으신 게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자신의 몸 안으로 가져가셨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해 상처를 입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단순히 죄인들을 대신해 주신 것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죄인의 죽음으로 죽으셨고 죄인들을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몸 안으로 우리의 죄를 받아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을 보겠습니다. “또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났으며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자신과 화해하게 하시고 또 화해하게 하는 사역을 우리에게 주셨으니”(고후 5:18)

예수님께서서 십자가 위에서 화해하게 하는 사역을 감당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 여전히 계셨습니다. 즉, 예수님께서서 십자가 위에 달려 계실 때에도 여전히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다음 절을 보겠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신과 화해하게 하시며 그들의 범법을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해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맡기셨느니라.”(19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죄를 세상 사람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해를 이루셨으며 화해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화해의 말씀이란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다음 절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너희에게 간청하시는 것 같이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한 대사가 되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너희에게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해하라.”(20절)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 안에서 화해가 이루어졌습니다. 서로 적의가 있던 두 쪽이 화해를 이룬 것입니다. 계속해서 다음 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한 그분을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21절)

성경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죄가 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가져가셨다는 것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죄인이 되신 게 아니라 죄가 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은 신성모독적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이런 말이 성경에 없었다면 신성모독적인 게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앞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 안으로 우리의 죄를 가져가셨다는 말씀을 봤습니다. 예수님께서 단순히 자신의 몸 위에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게 아니라 자신의 몸 안으로 우리의 죄를 가져 가신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고 말씀하시는 동시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가 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단순히 나를 대신하여 죄인이 되신 것뿐만 아니라 죄 자체가

되었습니다. 저를 대신해서 죄가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저의 죄를 가져가셔서 저를 대신해 단지 죄인이 되신 게 아니라 죄가 되었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예수님께서서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아닌 죄 자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단순히 의인이 아닌 의 자체가 되었습니다.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인 구원자로 받아들였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해 주셨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의를 제 안에 넣어주시고 저를 의롭게 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 달리셨을 때 저의 죄를 예수님 안에 넣으시고 예수님을 죄가 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의 의를 제 안에 넣어주시고 저를 의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죄는 저의 안에 있던 것이고 저의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의 안에 있던 죄를 자신 안에 넣으시고 저를 대신해서 죄의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제가 그 사실을 받아들이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안에 있던 의를 제 안에 넣으시고 예수님을 대신해서 의의 자리에 앉게 하신 것입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저의 개인적인 구원자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당신 앞에 하나님의 아들로 서 있고, 하나님의 의로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제 안에 있어서 제가 단순히 의로울 뿐만 아니라 의 자체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죄인인 저의 자리에 앉으셨기 때문에 저는 그분의 자리에 앉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 위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이러한 일을 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 아래서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값없이 구원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죄가 되었고 그 아래서 죄의 종이었던 우

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었습니다.

이제 요한복음 3장을 보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사  
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  
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요 3:14-15)

창세기 3장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뱀이 누구인  
지 아실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 나온 뱀은 마귀입니다. 사탄입니다. 루시  
퍼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요한복음 8장에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영적인  
아버지는 바로 마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버지 마귀에게서 났으  
므로…”(요 8:44) 침례인 요한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독사들의 세대”  
(마 3:7) 라고 불렀습니다. 독사는 뱀의 한 종류입니다. 성경에 의하면 구원  
받지 못한 사람들은 뱀의 자식들인데 침례인 요한에 의하면 종교지도자들  
은 뱀 중에서 독사인 것입니다. 영적으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의하면 뱀은 땅을 기어다면서 더러운 흙을 먹는 죄로 가득 찬 타  
락한 영적 존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무엇이 되셨는지  
아십니까? 뱀이 되셨습니다. 처녀를 통해 이 세상에 오셨던 하나님께서 십  
자가 위에서 아담의 타락한 혈통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길을 잃고 타락  
한 아담의 혈통에 속한 자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기  
회를 부여 받은 것입니다. 자신들을 창조하신 분 앞에서 의롭게 될 수 있는  
기회를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지 못하시고 아버지 하  
나님께 사람들을 용서해 달라고 간구한 것은 그분이 하나님이 아니었기 때  
문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성경에 대해 무지하기 때문에 그  
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며 어떤 일을 하셨는지, 특히 십자가 위에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일에 대해 모른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돌아다니지 말고 그냥 집에 머물러 있는 게 훨씬 낫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모르면서 복음을 전한다고 돌아다니면 자신만 지옥의 자식이 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두 배나 더 지옥의 자식으로 만드는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셨던 분은 단순한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셨다가 다시 인간이 되신 분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인간이신 분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인간을 위해 죄가 되신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가 되심으로 인간은 의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화해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라는 인간의 자리를 취하심으로 인간은 영원히 ‘의’라는 하나님의 자리를 취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인간이 하나님이 될 수 있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하나님의 자리에 함께 앉게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어 영원히 함께하게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죄 없고 의롭게 살 수 있게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아담이 하나님의 아들(the son of God)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눅 3:38). 하지만 아담이 타락하고 나서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는 누구도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원자로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요 1:12)

그래서 성경은 요한일서 3:1에서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

에게 베푸사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리게 하셨는가. 그런즉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는 세상이 그분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전에는 이런 사랑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게 되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러한 말을 너무 가볍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에 너무 익숙한 나머지 그 가치를 망각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 가치와 소중함을 잊고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어떤 대가를 치르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우리를 대신해서 죄로 인해 죽으신 게 아닙니다. 죄를 모르는 분께서 우리를 위해 죄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진리입니다.

다시 누가복음 23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34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분의 옷을 나누어 제비를 뽑고 백성은 서서 지켜보는데 치리자들도 그들과 함께 그분을 비웃으며 이르되, 그가 남들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그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 곧 그리스도이면 자기도 구원할 것이라, 하더라.”(눅 23:34-35)

예수님께서서는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셨으나 자신은 구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자신을 구원하기 위함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함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원하시면 언제든지 원수들을 멸하시고 자신을 구원하실 수 있었습니다. 수천의 천사들을 부르셔서 온 세상을 심판하실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당신과 저를 위해 홀로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예수님께는 자신을 구원하는

게 무척 쉬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 세상에 오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당신과 저를 구원하러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 당신과 저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고 죄의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단순히 죄의 형벌을 대신 받아주신 게 아닙니다. 단순히 대신 죄인이 되어 주신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당신과 저를 위해 죄가 되어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절을 보겠습니다. “또 군사들도 그분을 조롱하면서 그분께 **나아와 식초를 바치며**”(36절) 당신은 식초를 마셔본 적이 있습니까? 왜 군사들이 예수님께 식초를 드렸는지 아십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돕거나 그분의 고통을 줄이기 위해서 식초를 드린 게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들은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해 식초를 드린 것입니다. 군사들이 예수님의 고통에 대해 안타까워해서 식초를 드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러한 것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성경은 군사들이 예수님을 조롱했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절을 보겠습니다. “**이르되, 네가 만일 유대인들의 왕이거든 네 자신을 구원하라, 하더라.**”(37절) 예수님께서서는 이미 자신의 왕국이 지금 이 세상에 속한 게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요 18:36).

다음 절에는 사람들이 모순이라고 부르는 게 나옵니다. “**그분 위에는 그리스어와 라틴어와 히브리어로 이 사람은 유대인들의 왕이라 쓴 글도 있더라.**”(38절) 이것을 마태복음 27:37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두 구절을 잘 비교해 보세요. “**그분의 머리 위에 이 사람은 유대인들의 왕 예수라고 쓴 죄명을 붙였더라.**” 마가복음 15장도 보겠습니다. “**그 위에 있던 그분의 죄명을 적은 글은 유대인들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막 15:26)

복음서를 비교해보면 십자가에 달린 명패에 적힌 게 서로 약간씩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거부하는 비평가들은 성경에 모순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도 보겠습니다. **“빌라도가 명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였는데 거기의 글은 유대인들의 왕 나사렛 예수라 하더라.”**(요 19:19) 이것도 앞의 세 복음서에 기록된 것과 다릅니다.

우리는 누가복음 23:38에 기록된 대로 십자가에 달린 명패가 그리스어와 라틴어와 히브리어, 이렇게 세 가지 언어로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명패에는 **“유대인들의 왕”**, **“유대인들의 왕 예수”**, **“유대인들의 왕 나사렛 예수”** 라고 세 언어로 기록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서로 약간씩 다르게 기록된 이유는 언어를 사용하는 민족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어는 야벳(백인)이 사용하는 언어고, 라틴어는 함(흑인)이 사용하는 언어이며, 히브리어는 셈(황인)이 사용하는 언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알게 하기 위해 당시에 세상에서 사용하는 중요 언어로 명패를 쓰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누구인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유대인들의 왕이십니다. 그분이 자신을 구원하지 않으신 이유는 자신을 구원하러 세상에 오신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과 사람을 화해하게 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인간이 자신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되거나 그분께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어 인간에게로 찾아오신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 계셨고 십자가 위에서 세상과 화해하셨습니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고 엄청난 의미가 있는 일입니다. 이것이 당

신에게도 엄청난 의미가 있는 일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시느니라.”(롬 5:8) 이것으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고 다른 사람들과도 화해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인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당신 인생의 주님으로 인정한다면, 십자가로 인해 하나님과 화해하게 된 것처럼 다른 형제 자매들과도 화목하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당신도 형제 자매들과 평안 가운데 거할 것입니다.

# 부록



# 부록1: 가장 중요한 질문

글 Dennis Costella, Matt Costella

## 이것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사람이 만일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혼을 잃으면 그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막 8:36)

우리는 모두 이 세상의 삶을 위해 많은 시간과 돈과 노력을 쏟아 붓고 있습니다. 영원한 삶에 대해 생각하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의 삶이 끝났을 때,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생각해 보는 것은 중요한 일이 아닐까요? 오래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혼을 잃으면 그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사람이 무엇을 주어 자기 혼을 대신하겠느냐?”(막 8:36-37) 당신은 이 중요한 질문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습니까? 당신은 어디서 영원을 보내게 될지 알고 있습니까?

인생은 의문으로 가득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누구나 반드시 답해야 할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당신이 인식하건 그렇지 못하건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믿으며 삽니다. 모든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신뢰하면서 살아갑니다. 당신은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이나 감정을 신뢰하며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교회나 종교를 믿으며 살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나 사후세계나 영적인 것에 관해 다른 누군가의 말을 믿거나 혹은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을 붙들고 살고 있을 겁니다. 이 책의 목적은 하나님과 관계를 어떻게 맺고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얻는지에 관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과 다음 세상에서의 삶에 대해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잠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시간 낭비가 전혀 아닙니다. 어쩌면 당신이 지금까지 보낸 시간 중 가장 가치 있게 사용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가 우리의 창조자와 바른 관계를 맺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 우리의 의견이나 생각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 우리는 심각한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래 진노의 자녀들**”(엡 2:3)이었으며 “**범법과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엡 2:1) 자들이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며 실제로 죄를 짓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기록된 바, 의로운 자는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으며**”(롬 3:10)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롬 3:23) 우리는 모두 완벽한 거룩함이라는 하나님의 기준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서 모두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당신이 현재 상태 그대로 당장 죽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은 죽음 이후에 대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이것 뒤에는 심판이 있나니**”(히 9:27)

또한 성경은 이 심판의 결과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결코 영광스러운 하늘나라에 갈 수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21:27은 다음과 같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더럽게 하는 것은 어떤 것이든지 결코 그곳으로 들어가지 못하며 또 무엇이든지 가증한 것을 이루게 하거나 거짓말을 지어내는 것도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죄로 더러워진 것을 씻어내기 전에는 누구도 하나님께서 계신 하늘나라에 갈 수 없고 어린양의 생명책에도 이름이 기록될 수 없습니다. 하늘나라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입니다. 죄 안에 있는 자는 누구도 주님의 기록하신 면전에 설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또 다른 중요한 문제에 대해 생각해 봐야 합니다. “만일 죄 가운데 죽은 사람은 하늘나라에 갈 수 없다면, 그는 어디서 영원을 보내게 되는가?” 요한계시록 20:15은 이 문제에 대해 답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은 자는 불 호수에 던져졌더라.” 지옥은 영원한 고통만이 있는 실존 장소입니다. 성경은 불 호수에서 영원히 고통 당하게 되는 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부르며 이것이 바로 죄에 대한 정당한 형벌이라고 합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나”(롬 6:23) 자신의 죄 가운데 죽은 모든 사람들은 영원한 고통이라는 현실을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종말입니다.

##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며 죽음 이후에는 하늘나라가 아닌 지옥으로 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다음의 중요한

질문에 대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이 중요한 질문에 사람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한 삶을 통해 죄를 지워버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은 죄보다 많은 선을 행하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가집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래도 나는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서 자신이 악행보다는 선행을 더 많이 했을 거라고 스스로 위로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열심히 다니고 종교적인 행위들(침례나 세례, 고해성사, 주의 만찬 등)을 하면 죄 문제와 그 형벌을 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러한 생각은 모두 착각일 뿐이며, 이러한 것들은 인간의 죄와 그 죄에 대한 형벌을 결코 피하게 할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다음과 같이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신의 공흠에 따라 다시 태어남의 씻음과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고**”(딤후 3:5)

사실 우리는 아무런 의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아무런 행위도 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이 문제에 관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 부정한 물건 같고 우리의 모든 의는 더러운 누더기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불법들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갔나이다.**”(사 64:6)

우리가 정직하고 선한 행실을 하며 종교적이고 영적인 활동들을 하면서 살면 겉으로는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적으로는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고 아무런 마음의 변화도 없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죄를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감출 수 있지만 완전히 지워버릴 수는 없습니다. 선한 행위나 종교적인 의식으로는 우리 자신의 내

면을 변화시킬 수 없고, 우리의 죄를 없앨 수도 없으며 온전히 거룩한 의로  
우신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게 할 수도 없습니다.

## 하나님께서 하신 일

그렇다면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성경은 우리가 죄  
와 그 형벌로부터 스스로 구원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기 위  
해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성경  
은 이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은 놀라운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힘이 없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때가 되어 경건치 아니한 자들  
을 위해 죽으셨느니라.”**(롬 5:6) 잠시 이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아무  
런 힘이 없을 때에, 스스로 구원을 이룰 만한 힘이 전혀 없을 때에, 하나님  
의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우리가 지옥으로 가고 있고 희망이 전혀 없는 죄인들이  
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은혜에 따라 우리를 대신해  
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유일한 아  
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으로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죽게  
하심으로써 죄에 대한 대가를 완전히 치르셨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예  
수 그리스도께서는 죄인이 받을 형벌을 대신 받아 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  
을까요? 이 질문에 대해 로마서 5:8은 다음과 같이 답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때가 되어 경건치 아니한 자들을 위**

해 죽으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죄로 인해 갈보리 십자가 위에 달리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완벽하고 죄가 없는 하나님의 어린양이시기 때문에 자신의 죄로 인해 죽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의 형벌을 받으신 겁니다.

“그러나 그는 우리의 범법들로 인해 부상을 당하고 우리의 불법들로 인해 상하였노라. 그가 징벌을 받음으로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길을 잃고 각각 자기 길로 갔거늘 주께서는 우리 모두의 불법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사 53:5-6)

“친히 나무에 달려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지셨으니 이것은 죄들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살아서 의에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그분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고침을 받았나니”(벧전 2:24)

“그분께서는 우리의 범죄로 인하여 넘겨지셨으며 우리의 칭의를 위하여 다시 일으켜지셨느니라.”(롬 4:25)

짚값이 치러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죄를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위에 두시고 그 아들로 하여금 우리를 대신해 피를 흘리고 죽게 하신 겁니다. 우리의 죄에 대한 모든 대가와 형벌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영광의 주님 위에 놓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를 대신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일 때 우리를 사랑하시어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어 우리를 대신해 죽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십자가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었다”(요 19:30) 라고 울부짚으셨을 때, 정말로 모든 것을 다 이루신 것입니다. 그분은 자신의 죽음을 통해 죄에 대한 모든 값을 치르시고 우리의 완벽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예비해 주신 놀라운 선물에 우리가 더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선행은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을 망쳐버리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통해 이것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 놀라운 해결책

성경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예비해 주신 구원의 선물을 받기 위해서는 당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그 선물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구원이 당신에게는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됩니다. 오직 같보리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를 모든 죄로부터 깨끗하게 씻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께서 하신 일이 자신을 위한 것이라고 믿어야만 그분의 피로 죄를 깨끗하게 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누구나 원하면 자신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고 죽으심으로 죄인이 치러야 할 값 값을 대신 치르신 것입니다. 자신의 죄와 그 형벌로부터 구원해 주시며 하늘나라로 데려가실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라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묻히심과 다시 일어나심을 진심으로 믿는다면,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죄악에 빠진 인간을 구원하기 위함이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죄에 대한 완전한 용서와 영원한 생명의 선물을 받게 됩니다.

니다.

“그분에 대하여 모든 대언자들도 증언하되, 누구든지 그분을 믿는 자는 그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죄들의 사면을 받으리라, 하느니라.”(행 10:43) 이것이 바로 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의 죄를 모두 용서 받고 깨끗하게 되며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이 하신 일과 그분이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로부터 자유로워지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됩니다.

성경에 기록된 다음의 약속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받아들인 사람이 현재와 미래에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서게 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또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요 5:24)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요 1:12)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도다. 또 우리가 그분을 통해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 안에 믿음으로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기뻐하느니라.”(롬 5:1-2)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에 2:8-9)

“그들이 이르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네가 구원을 받

고 네 집이 받으리라, 하며”(행 16:31)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정죄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정죄를 받지 아니하거니와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미 정죄를 받았느니라.”(요 3:16-18)

“일을 하지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느니라.”(롬 4:5)

## 즉각적인 기회

독자여, 그렇습니다.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죄를 모두 용서 받고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당신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고 죄 없는 온전한 사람으로 서게 됩니다. 당신 자신의 의로는 정죄만 당할 뿐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의는 하나님의 눈 앞에서는 더러운 누더기와 같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을 때 당신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됩니다(고후 5:21). “**내가 말하거니와 이때에 자신의 의를 밝히 드러내사 자신이 의롭게 되며 또 예수님을 믿는 자를 의롭게 만드는 이가 되려 하심이라.**”(로마서 3:26)

아무도 자신이 구원받았거나 거듭났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 없다는 거짓말에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일과 그분의 말씀인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5:11-13은, 믿는 사람은 자신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사실과 자신의 죄가 영원히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 증언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분의 아들 안에 있다는 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들을 쓴 것은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기록된 다음의 사실들도 살펴보십시오.

“그러므로 그분께서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해 중보하심을 보전대 그분은 또한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들을 끝까지 구원하실 수 있느니라.”(히 7:25)

“내가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노니 그들이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또 아무도 내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하리라.”(요 10:28)

성경은 한번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님으로 봉인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 그분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봉인되었느니라.”(엡 4:30) 우리는 성령님 안에서 봉인되었으므로 영원히 안전하며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됩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개인적인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개인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고 죽어서 하늘나라로 가게 된다는 확신을 갖고 싶지 않으십니까? 만일 구원받기를 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오직 예수님만을 믿으십시오. 머리로만 받아

들이지 말고 온 마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머리로 믿지 말고 마음으로 믿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단순히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위해 십자가 위에서 무엇을 해 주셨는지(당신을 대신하여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신 것)를 머리로만 동의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도 동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당신을 위해 그렇게 해 주셨다고 받아들이고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기록된 다음의 사실을 믿으십시오.

첫째, 우리는 모두 죄인이며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둘째, 우리는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셋째,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묻히심과 부활을 통해 온전하고 영원한 구원을 예비해 놓으셨다.

선행이나 성사나 종교의식이나 교회 출석이나 도덕이나 침례나 세례나 영성 체험이나 다른 무엇을 통해 구원받으려는 모든 시도를 포기하십시오. 죽으면 끝이라는 어리석은 생각도 버리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께서 같보리 십자가 위에서 당신을 위해 해 주신 일을 받아들이십시오. 당신을 포함한 모든 죄인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초청에 응하십시오.

이러한 초청에는 이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구원의 선물을 거절하는 사람들은 매우 위험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유대인들과 또한 그리스인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증언하였노라.”**(행 20:21) 이것은 하나님과 그리스도 밖에 있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

람들은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태도를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가 온전히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완전히 망쳐버렸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 복음을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모두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를 맺지 못합니다.

아무리 종교적이거나 좋은 사람처럼 보인다 해도, 만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자신의 죄 가운데 완전히 버림받았으며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 대해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며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요 3:36)

성경은 자신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단순한 마음으로, 어린아이처럼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당신의 죄는 모두 용서받고 씻음 받으며 성령님께서서는 당신 안에 들어와 거하시고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리고 당신은 참된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축복을 받아들이고 영원한 생명이라는 선물을 받으십시오.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개인적인 구원자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분께서 이르시되, 받아 주는 때에 내가 네 말을 들었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구조하였노라, 하시나니, 보라, 지금이 받아 주시는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고후 6:2)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취하라.”**(계 22:17)

## 부록2: 성경이 말씀하시는 구원

이 글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구원에 관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알아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이 글을 읽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제시된 관련 성경 구절을 반드시 찾아서 읽어보시고 성경이 정말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7:11에 묘사된 사람들처럼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던 자들보다 더 고귀하여 온전히 준비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들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므로”

### 하나님은 누구신가?

살아계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사 6:3, 57:1, 벰전 1:15, 계 4:8).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죄악 된 것과는 완전히 분리되어 계십니다(사 59:2, 시 24:3-4, 사 6:3-5). 성경은 완전히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매우 은혜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온전히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요 14:6, 딤후전 2:3-6).

### 나는 누구인가?

당신은 구원받지 못한 죄인입니다(시 14:1-3, 롬 3:10-18, 23, 사 53:6, 시

51:5, 왕상 8:46). 당신의 마음도 악하고 사악합니다(렘 17:9-10, 막 7:20-23, 마 7:11). 그러므로 당신은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서 유죄입니다(롬 3:19). 그래서 현재 당신은 거룩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정죄를 받은 상태이며 그분의 진노가 당신의 머리 위에 있습니다(살후 1:8-9, 마 25:41, 46, 막 9:42-48, 계 20:11-15, 21:8).

## 복음이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서는 당신을 포함한 세상을 사랑하셔서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이 세상으로 보내셨습니다(요 3:17, 마 1:21-23, 눅 19:10, 딤후 1:15). 영원한 하나님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1:1, 사 7:14, 9:6, 미 5:2, 딤후 2:13) 모든 것의 창조자가 되시는데(요 1:3, 골 1:13-16) 이 세상에 오셔서 저와 당신을 대신해서, 저와 당신을 위해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이것을 통해 예수님은 저와 당신의 죄값을 치러주셨습니다(사 53장, 롬 5:6-8, 고전 15:3, 고후 5:21, 갈 1:4, 벧전 2:24, 3:18, 요일 2:2, 3:16, 4:10). 예수님은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과 저를 대신한 자신의 아들의 죽음을 기쁘게 여기시고 그 일에 만족하셨다는 증거가 됩니다(고전 15:4-20, 롬 4:25). 또한 이 부활로 인해 예수님께서서는 자신이 주장하신 것을 스스로 입증하셨습니다(롬 1:4).

## 구원받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라는 사실과 그분이 당신을 위해 십자가 위에서 어떤 일을 해 주셨는지 알았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이제 당신의 책임입니다(행 16:30-31, 요 3:16, 18, 36).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와서(요 6:35-37) 그분을 개인적인 구원자와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요 1:12, 롬 6:23). 구원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사실을 받아들이고 믿어야 합니다.

1. 주 예수님께서서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행 4:12, 요 10:9, 14:6). 예수님 외에는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2. 주 예수님께서서는 당신의 구원을 위해 죽으셨다가 다시 일어나셨습니다(살전 4:14, 고전 15:3-4, 롬 10:9).
3. 주 예수님께서서는 당신을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히 7:25, 사 59:1, 마 19:24-26).
4. 주 예수님께서서는 당신을 구원하기 원하십니다(요 6:37, 딤후 2:4).
5. 만일 당신이 주 예수님께서서 당신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라고 믿는다면 그분은 당신을 구원하실 겁니다(요 3:16).

## 당신은 다음의 것들로 구원받을 수 없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1. 당신 자신의 선행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사 64:6, 엡 2:9, 딤후 3:5).
2. 율법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롬 3:20, 갈 2:16, 약 2:10).
3. 침례나 세례를 통해서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엡 2:8-9, 행 16:31).

당신은 오직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엡 2:4-9, 딤후 3:4-7).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하는 것입니다(그분으로 인해, 그분이 하신 일과 하신 말씀으로 인해). 구원받기 위해서는 그분을 믿는 것 외에 무엇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서는 거짓말을 하실 수 없기 때문에(딤후 1:2, 히 6:18),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항상 신실하시기 때문에(히 13:8), 만일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인 구원자로 받아들였다면, 당신은 다음의 말씀들을 통해 기쁨 가운데 안식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1:28, 요한복음 1:12, 3:16, 3:18, 3:36, 5:24, 6:35, 6:37, 6:47, 10:9, 11:25, 사도행전 10:43, 로마서 10:9, 10:13, 요한일서 5:11-12

## 구원받고 나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만일 당신이 구원받았다면 당신은 그리스도 안에 속한 사람으로서 은혜 안에서,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안에서 영적으로 성장해 나아가야 합니다(벧후 3:18). 영적으로 성장해 나아가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것들을 해야 합니다.

1.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고(마 28:19-20, 행 10:48, 2:38),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겠다는 간증의 의미로 침례를 받아야 합니다(고후 5:14-17, 롬 6:3-11, 갈 2:20).
2. 매일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 받아야 합니다(벧전 2:2, 마 4:4, 시 119:97).
3. 매일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대화하며 그분께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히 4:16, 살전 5:17, 눅 18:1).
4.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가르치는 교회에 정기적으로 신실하게 출석해야 합니다(행 2:42, 히 10:25).
5. 매일 하나님께 죄를 자백하고(생각으로 짓는 죄나 말과 행동으로 짓는 모든 죄는 물론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과 맞지 않는 모든 것이 죄입니다), 죄를 지으면 그분 앞에서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요일 1:8-2:2, 요일 1:9, 시 51:3-6, 시 32:3-6, 잠 28:13).
6. 다른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해야 합니다(시 107:2, 마 10:32, 롬 10:9-10).
7. 행실과 입술과 인생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행 1:8, 사 43:10-12). 당신이 사는 방식과 인생과 말을 통해 사람들

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야 합니다(빌 2:15-16, 골 3:17, 벧전 3:15, 골 4:5-6).

## 도서출판 진리의성경 문서사역 후원 안내

“그러나 진리의 성경기록에 적힌 것을 네게 보여 주리니...”(단 10:21a) 천사가 다니엘에게 진리의 성경에 기록된 것을 그대로 보여준 것처럼 도서출판 진리의성경도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의 진리를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진리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할 것입니다. 이미 많은 책들이 기독교 서점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책들을 제작하고 보급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킹제임스성경에 근거하면서 킹제임스성경을 전혀 비평하지 않는 책들을 보급하기 위해서입니다. 좋은 책들이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성경을 비판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는 오류가 없다는 전제로 저술한 책들이 많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킹제임스성경에는 오류가 전혀 없다는 전제로 만든 책들을 출간하고 보급하려고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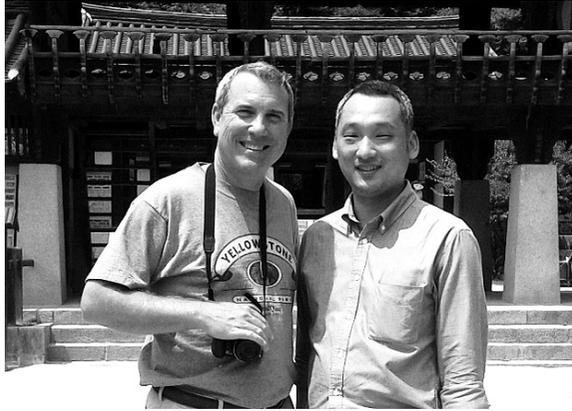
둘째, 성도들을 세워주는 건전한 책들을 저렴한 가격에 많은 사람들에게 보급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도서 구매가 어려운 교회와 개인에게 무상으로 도서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을 도와야 한다고 믿습니다. 문서사역 후원을 통해 다른 사람들이 무상으로 책을 받아볼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진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도서출판 진리의성경을 통해 사업이 아닌 사역을 하려고 합니다. 금전적인 이윤보다는 구원받은 혼과 영적 성장이 남기를 원합니다. 혼들이 구원받고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돌려 드리는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일에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문서사역 후원회 회원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분당침례교회 담임목사  
도서출판 진리의성경 대표  
이우진 목사

## 문서사역 후원 방법

- 국민은행 384702-04-212299 이우진(문서사역)
- 위 계좌로 매월 25일 자동이체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신청은 거래하시는 은행의 인터넷 뱅킹이나 영업점에 방문하여 하시면 됩니다.
  
- 자세한 사항은 교회 홈페이지(<http://cafe.naver.com/bbckjb>) 도서출판 진리의성경 게시판을 참고 하십시오.
- 후원회에 가입하신 분들은 이름, 주소, 전화번호, 후원금액을 문자(010-2322-1611)나 메일([kjv74@hanmail.net](mailto:kjv74@hanmail.net) 또는 [kjv74@naver.com](mailto:kjv74@naver.com))로 보내주시면 발행하는 신간 도서를 해당 주소로 보내드립니다.



**\* 원저자 : James W. Knox**

제임스 낙스 목사는 1958년 2월 26일 루이지애나 배턴 루지에서 태어나 줄곧 플로리다에서 학창시절을 보냈으며 플로리다 주립대학에서 영어와 저널리즘을 전공했습니다. 그는 고등학교를 졸업하던 해인 1976년 12월 17일에 성경을 읽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인 구원자로 받아들였고 이듬해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제임스 낙스 목사는 1987년 미국 플로리다 주의 달랜드에 성경침례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는 109개 나라에 있는 그리스도 안의 형제 자매들에게 성경공부 자료와 설교 테이프를 보급하고 있으며, 1987년부터 지금까지 600만 개의 도서와 테이프 자료들을 전 세계에 보급해 왔습니다. 그는 30여 권의 책을 저술했으며 문서사역과 테이프 사역을 통해 세계 곳곳의 지체들에게 다양한 언어로 번역된 자료들을 보냄으로써 그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http://www.jameswknnox.org>

## **\* 편역자 : 이우진**

이우진 목사는 1974년 4월 26일 서울에서 태어나 줄곧 여의도에서 학창시절을 보냈으며 펜사콜라성경신학원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성균관대학교 학부와 대학원에서 법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는 1990년 7월 중순 호주에서 성경을 읽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인 구원자로 받아들였고 1994년부터 문서사역을, 그리고 1997년부터 교회와 신학원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이우진 목사는 펜사콜라성경신학원과 킹제임스성경신학원에서 10여년에 걸쳐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그는 월간 강단의거성과 도서출판 킹제임스에서 편집장으로, 그리고 진리침례교회에서 부목사로 섬겼으며, 40여 권의 책을 번역하거나 저술했습니다. 그는 2007년에 도서출판 진리의성경을, 그리고 2014년에 분당침례교회를 세웠습니다.

<http://cafe.naver.com/bbckjb>







